국립국어원 2012-01-24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406-01

기자를 위한 신문 언어 길잡이

연구 책임자: 남영신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2012-01-24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406-01

기자를 위한 신문 언어 길잡이

연구 책임자: 남영신

국립국어원

제출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2012년 '기자를 위한 신문 언어 길잡이' 제작 연구 용역 계약에 따라서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연구 책임자: 남영신(사단법인 국어문화운동본부)

연구 기관: 사단법인 국어문화운동본부
연구 책임자: 남영신
보조 연구원: 박종분

[국문 초록]

신문이 사회의 목탁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에 걸맞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 공익적 기능을 충실히 감당하려면 무엇보다도 신문 기사가 바르고 쉽고 품위 있는 문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요즘은 종이 신문뿐 아니라 인터넷 신문이 수없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자질이 부족한 기자가 많이 생겨서 그런지 기사 문장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에 지금의 신문 문장의 언어적 문제점을 찾아 그 대안을 내고 이를 기자들에게 제공하여 기자들이 손쉽게 기사문을 작성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 연구 보고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부분별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첫째 부분: 신문의 기능, 신문의 지향, 신문 언어의 요건 등의 설명을 통해서 신문의 공적 기능을 이해시키고 신문 기사를 바르고 쉽고 공정하게 작성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둘째 부분: 기자가 꼭 알고 신문에서 틀리게 쓰지 말아야 할 것을 제시하고 이를 바로잡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주로 어문 규범 적용, 낱말 사용, 문장 구성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부분: 딱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용인하기에는 거북한 것들을 모아서 기왕이면 더 낫게 쓰도록 유도하였다.

넷째 부분: 신문 언어의 품격과 관련한 것으로서 품위 없는 말을 피하고 합리적으로 기사를 쓰도록 유도하였다.

위 각 부분별로 제기된 내용을 간단히 도표로 적으면 아래와 같다.

구분	제목	항목
첫째 부분	신문 기자의 언어 사용 능력 높이기	신문의 기능, 지향, 신문 언어의 요건
둘째 부분	정확하게 쓰기	어문 규범에 맞게 쓰기, 어휘 바르게 쓰기, 문장 바르게 만들기

셋째 부분	더 낫게 쓰기	시대에 맞는 말로 바꾸기, 딱 들어맞는 말로 바꾸기, 외국어 투 표현 바꾸기, 불필요한 피동 표현 바꾸기, 쉬운 말로 바꾸기, 상투적인 표현 바꾸기, 모호한 표현 바꾸기
넷째 부분	품격 있게 쓰기	품위 없는 말 안 쓰기, 합리적으로 기사 쓰기

이 작업을 하면서 우리는 신문 기사에 국어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려고 애썼다. 이 보고서가 우리 신문 기사의 질을 개선하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신문, 인터넷 신문, 공공언어, 어문 규정, 띄어쓰기, 사이시옷, 표준어, 큰따옴표, 낱말 사용법, 호응, 일치, 어려운 말, 저속한 표현, 차별적 표현, 과격한 표현, 논리, 과장, 편파, 왜곡, 미끼 제목

[Abstract]

As the press should lead the public by fulfilling people's need to know, the articles on the news media must be composed of correct, easy and refined sentences. However, as there are too many news companies both internet and newspaper, the quality of reporters and their sentences are becoming inferior.

Therefore, we have tried to find out errors on the news sentences and suggest the ways to rectify such errors. We want that the reporters can write their articles more adequately and effectively by this suggestion. This research is composed of 4 parts. The brief introduction of each parts are as follows.

Part 1
We emphasized the public role of press media, and the imporance of press language for writing the right, easy and fair articles.

Part 2.
We presented the guideline which the reporters should know, and listed the common errors on the news articles with suggestion to rectify them. We focused on the errors of grammer, selection of words (vocabulary) and composition.

Part 3.
For the expressions which are not wrong, but unusual, we proposed alternative expressions.

Part 4.
For the dignity of press language, we gave guideline to use elegant wordings and to avoid vulgar wordings.

Expressed in Chart form of the 4 parts

PART	TITLE	CONTENTS
1.	Improve the reporters language ability	* The function and aim of news media * The requirements for news language
2.	Correct writing	* Writing in correct grammar * Selecting adequate wordings * Correct composition of sentences
3.	Better writing	* Writing in tune with the times * More precise expression of the fact * Avoid the foreign tune expression * Avoid the unnecessary passive form * Using common and easy expression * Avoid stereo type and vague expression
4.	Improving the language dignity	* Stop using vulgar words * Reasonable and refined expressions

In preparing this report, we came to know that there are many problems in expression of the news articles. So we tried to suggest the best alternatives as possible. We expect that this report would be the good guide to improve the quality of articles of the news media.

기자를 위한 신문 언어 길잡이 연구 보고서

차례

제1장 사업 개요 … 1
 1. 사업 취지 … 1
 2. 사업 목적 … 1
 3. 사업 추진 개요 … 1

제2장 신문 기자의 언어 사용 능력 높이기 … 3
 1. 신문의 기능 … 3
 2. 신문의 지향 … 4
 3. 신문 언어의 요건 … 5

제3장 정확하게 쓰기 … 6
 1. 어문 규범에 맞게 쓰기 … 6
  (1) 표준어 … 6
   바램(→바람)6, 같애(→같아)7, 뿌리채(→뿌리째)7, 치르다(→치르다)8, 담구다(→담그다)9, 들리다(→들르다)10, 갖어(→가져)11, 딛어(→디뎌)12, -스런(→스러운)13, 절대절명(→절체절명)13, 홀홀단신(→혈혈단신)14, 환골탈퇴(→환골탈태)15, 가능한(→가능한 한/가능하면)16, 콘텐트/컨텐츠(→콘텐츠)16, 컨셉트(→콘셉트)17, 지놈(→게놈)18, 매니어(→마니아)18, 수퍼(→슈퍼)19
  (2) 사이시옷 … 20
   채소값(→채솟값)20, 우유값(→우윳값)20, 장마비(→장맛비)20, 등굣길(→등굣길)20
  (3) 띄어쓰기 … 21
   밖에21, 만21, -ㄴ지/-ㄹ지/-던지22, 데/-는데23, 지23, 수24
  (4) 문장부호(큰따옴표) … 24

 2. 낱말 바르게 쓰기
  (1) 낱말 뜻에 맞게 쓰기 … 26
   한글/한국어/우리말26, 등극27, 연출28, 파장/파문29, 반증/증거/증명30, 접수/제출31, 승패/성패31, 글씨/글자32, 껍질/껍데기32, 틀리다/다르다33, 그리고/그러고34, 임산부/임신부35, 결제/결재36, 첫 번째/첫째36, 곤욕/곤혹37, 갱신/경신38, 당기다/댕기다/땅기다38, 부분/부문39, 유래/유례40, 일체/일절41, 임대/임차41, 쫓다/좇다42, 한참/한창42, 형태/행태43, 피의자/용의자44, 돌입44, 선열45

(2) 낱말 사용법에 맞게 쓰기 … 46
여부46, 애환47, 사사하다47, 유명세48, 같은 경우49

3. 문장 바르게 쓰기
(1) 조사, 어미, 접사 바르게 쓰기 … 51
(가) 조사 … 51
'은/는'과 '이/가'51, 까지/마저/조차52, 에/에서/에게/에게서53
(나) 어미 … 54
-ㄴ다/-다54, -는/-은55, -면서/-며56
(다) 접사 … 57
-시키다57
(라) 직접 인용문의 종결어미와 인용 조사 … 57
(2) 품사별 용법에 맞게 쓰기 … 59
첫59, 감격해하다/당황해하다60, 꺼려하다61
(3) 성분 간 일치와 호응 지키기 … 62
(가) 주어 없는 문장 쓰지 않기 … 62
(나) 높임 일치 지키기 … 62
(다) 나열 일치 지키기 … 63
(라) 성분 간 호응 지키기 … 63

제4장 더 낫게 쓰기
1. 시대에 맞는 말로 바꾸기 … 66
현해탄66, 민초67, 공복67
2. 딱 들어맞는 말로 바꾸기 … 69
와중69, 르네상스70, 측면71
3. 외국어 투 표현 바꾸기 … 72
에 있어서72, 을/를 통해72, 만남을 갖다73, 에서 자유롭지 못하다74,
에 대하여74, 배제할 수 없다75
4. 불필요한 피동 표현 바꾸기 … 76
요구되다76, 되어지다77, 발라지다77
5. 쉬운 말로 바꾸기 … 78
미제78, 초동수사78, 양동작전79, 굴지의80, 답보 상태80, 미증유81,
민심 이반82, 폄하/폄훼82, 환골탈태83, 희화화하다84, 영어의 몸85,
천명하다85, 쾌척하다86, 대단원86, 소기의87, 수수하다88, 빈축89,
방불케 하다89, 사필귀정90, 일축하다91, 치킨 게임93, 포퓰리즘94
6. 상투적인 표현 바꾸기 … 96
거듭나다96, 겸허히97, 사상 최초로99

7. 모호한 표현 바꾸기 … 99

제5장 품격 있게 쓰기
1. 품위 없는 말 피하기 … 101
(1) 저속한 표현 … 101
짖다101, 양아치102, 멍청하다102, 미치다103
(2) 차별하는 표현 … 103
처녀104, 절름발이/벙어리105, 된장녀106
(3) 과격한 표현 … 107
직격탄107, 초토화108, 충격109, 경악110
(4) 외모에 치우치는 표현 … 111
미모111, 얼짱111

2. 합리적으로 기사 쓰기 … 113
(1) 사실에 맞게 … 114
(2) 논리적으로 … 116
(3) 지나치지 않게 … 117
(4) 인용, 출처 제시 정확하게 … 118
(5) 편파성을 벗어나 공정하게 … 119
(6) 사적 이익에서 벗어나 공익에 맞게 … 120
(7) 가치를 왜곡하는 단어 피하기 … 121
(8) 미끼 제목 달지 않기 … 122

맺음말 … 125
찾기 … 126

제1장 사업 개요

1. 사업 취지

국민의 언어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할 신문 기사가 부정확하고 부적절한 낱말과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국민의 언어생활을 혼탁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신문이 대세를 이루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빨라지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기자를 위한 언어 길잡이를 제공하여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신문 기사가 지금보다 훨씬 바르고 쉽고 품위 있게 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2. 사업 목적

이 사업은 신문 기자들이 바르고 합리적인 기사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돕는 연장으로서 '신문 언어 길잡이'를 만들어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적 언어 능력을 갖춘 신문 기자들이지만 실제 그들이 작성한 기사문을 살펴보면 언어 규범을 잘 지키고 상황에 맞게 작성한 기사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독자들은 기사를 읽으면서 어문 규범의 혼란을 경험하기도 하고,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워서 기사를 외면하기도 한다. 때로는 기사 제목과 내용이 전혀 달라서 독자들이 농락당한 느낌도 받는다. 상당히 많은 기사는 지나치게 현학적이거나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차별적이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신문의 공공성을 해치는 것이어서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제시할 '신문 언어의 길잡이'는 어떻게 기사를 잘 쓸 것인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공언어로서 신문 언어의 요건을 잘 지키게 할 것인지 고민한 결과물이 실려야 할 것이므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려 한다. 첫째, 어문 규범에 어긋난 점을 지적하고 바른 내용을 제시한다. 둘째, 단어와 어구의 의미, 사용법 등이 알맞은지 판단하여 부적합한 것을 개선한 내용을 제시한다. 셋째, 내용의 불합리성(저품격 언어 사용, 비논리적 언어 사용, 편파적인 언어 사용 등)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3. 사업 추진 개요

① 사업 기간: 2012. 3. 29. ~ 2012. 11. 29.(8달)
② 사업 기관: 사단법인 국어문화운동본부
③ 책임 연구원: 남영신(사단법인 국어문화운동본부 대표)

④ 보조 연구원: 박종분(사단법인 국어문화운동본부 소속 국어문장사)

⑤ 신문 언어 실태 조사

* 조사 대상 일간지: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 문화일보, 국민일보(이상 중앙 일간지), 강원일보, 경북일보, 광주일보, 대전일보, 부산일보, 제주일보(이상 지방 일간지), 매일경제신문, 일간스포츠, 스포츠한국, 스포츠조선, 스포츠동아(이상 특수 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이데일리, 뉴시스, 연합뉴스(이상 인터넷 신문) 모두 24신문

* 조사 기간: 2011. 4. 1. ~ 2012. 10. 31.

제2장 신문 기자의 언어 사용 능력 높이기

1. 신문의 기능

신문을 사회의 공기(公器)라고 한다. 신문이 비록 회사 형태의 기업이 발행하는 상품이지만[1] 그 기능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공적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와 관련하여 국어기본법(제15조 제2항)은 신문에게 특별한 구실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 **국어기본법 제15조**(국어문화의 확산)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람직한 국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문이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려면 신문이 스스로 올바른 국어 사용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신문 언어 개선을 위해서 신문 기자의 언어 사용 능력을 높여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이 일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신문의 기능을 간단히 검토하고자 한다.
신문의 기능은 크게 보도 기능과 평론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보도 기능은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특별한 사실을 널리 알리는 기능이다.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간단한 해설을 덧붙임으로써 독자에게 사건과 사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보도 기능의 일부이다. 보도 기능을 신문의 가장 원초적인 기능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대변하는 것이 표준국어대사전의 신문에 관한 뜻풀이이다. 이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신문**(新聞)「명사」 「1」새로운 소식이나 견문. 「2」사회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사실이나 해설을 널리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정기 간행물. 일반적으로는 일간으로 사회 전반의 것을 다루는 것을 말하지만, 주간·

1) 요즘은 인터넷 신문이 발달하여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이 온라인상으로 신문을 발행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신문의 주체를 언론 기업으로 한정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는 편의상 전통적인 신문사를 염두에 두고 표현하였을 뿐 신문 언어는 인터넷 신문이 사용하는 언어를 포함한다.

순간・월간으로 발행하는 것도 있으며, 기관지・전문지・일반 상업지 따위도 있다. 1609년에 독일에서 처음 신문이 발행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883년에 ≪한성순보≫가 발간된 것이 시초이다.
「3」=신문지.

그러나 요즘은 신문이 시사성 있는 사건에 대한 평론을 실어 사회 여론을 형성하거나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기도 하고, 특별한 방향성을 갖지 않고 단순히 의론의 마당을 제공하기도 한다. 신문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시론과 독자 의견란이 이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신문사의 사설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래서 우리는 신문의 보도 기능과 함께 신문의 평론 기능까지를 조사와 연구 대상으로 삼고 이 기능을 충실히 하는 데 유익한 신문 언어의 모범을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2. 신문의 지향

신문이 보도와 평론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하는 것이 옳은가? 신문 언어는 이 자세를 어떻게 갖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므로 신문이 보도와 평론을 어떤 자세로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신문 윤리 위원회가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신문 윤리 강령에 잘 제시되어 있다. 신문 윤리 강령 제4조에는 아래와 같이 보도와 평론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신문 윤리 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우리 언론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또한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할 것을 다짐하며,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을 결의한다.

이 강령에 따르면 보도는 사실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해야 하고, 평론은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보도...사실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
* 평론...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할 것.

* 여론...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여 건전한 여론 형성을 꾀할 것.

이런 태도로 보도하고 평론하는 것은 모두 언어로 기사화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문 언어의 기준을 이 강령에서 유추하여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3. 신문 언어의 요건

신문 언어의 요건을 정립하는 문제는 신문이 앞에서 말한 보도와 평론을 정확하고 명료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신문이 지향하는 사회 공기로서의 사명에 충실해질 수 있도록 하는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신문 언어의 요건을 '정확하게 쓰기', '더 낫게 쓰기', '품격 있게 쓰기'의 세 관점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제3장 정확하게 쓰기

신문 언어는 우선 정확해야 한다. 표기는 물론이고 사용하는 낱말의 의미와 용법도 정확해야 한다. 그래야 의미를 오해하거나 혼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고자 해도 언어를 부정확하게 사용하면 보도한 내용이 정확하게 독자에게 전달되지 못할 수 있다. 물론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대응하는 낱말을 사용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신문 언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어문 규범에 맞게 쓰기

규범적으로 정확한 표기를 하는 것이 신문 언어의 신뢰도를 높이고 나아가서 신문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유익하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 어문 규범을 신문이 어긴다면 신문의 품위가 떨어질 것이다. 신문이 국민의 국어 교사 구실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표기의 정확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1) 표준어

신문 문장은 표준어를 어문 규범에 맞게 표기해야 한다. 기사문을 작성하는 기자가 사용하는 낱말의 표기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이 사용한 낱말이라도 기사문으로 작성할 때에는 어문 규범에 맞게 적어야 한다. 만일 어쩔 수 없이 어문규범을 어기는 표기를 해야 할 경우에는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아래 제시된 예는 흔히 신문에 잘못 표기되는 것들이다. 이들이 왜 잘못이고 어떻게 표기해야 옳은지 간단히 설명한다.

<바램(×)→바람(○)>

→동사 '바라다'의 명사형은 '바람'이므로 '바램'은 틀린 표기이다. '바램'은 '바래다'의 명사형으로서 의미가 전혀 다르다. 입말에서는 '바람'을 '바램'으로 쓰기도 하지만 이는 표준어가 아니다. 신문 기사문에서는 마땅히 '바람'으로 적어야 한다.

. '천번의 입맞춤' 김소은, 이순재에 애절한 바램(→바람), '차화연 용서한다

면 이혼하겠다'(한국일보 2012.1.9.) 결국 지선은 집을 나가기로 하고, 주미의 간절한 바램(→바람)은 뜻을 이루지 못하며 또다시 같은 비극을 반복하게 된다. 그러나 지선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예고되며 또 다른 변화를 예감케 했다.

. 국내 수제 원목가구 업계 선도 브랜드인 카레클린트가 이러한 바램(→바람)을 실현시켜주는 첫 번째 가구 소통 프로젝트를 시작한다.(스포츠조선 2012.11.26.)

. 여의도 국회회관에서 열린 '개성공단 우리기업 상품 전시 및 판매전'에서 만난 삼덕통상 문창섭 대표의 바램(→바람)이다.(내일신문 2012.11.23.)

. 토레스 센터장은 "우리가 달리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면서 "생명유지 장치에 너무 오랫동안 의존해서 유족의 바램(→바람)대로 장기기증을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경향신문 2012.11.25.)

<같애(×)→같아(○)>

→'같다'의 종결형은 '같아'이다. '같애'는 비표준어로서 입말에서는 자주 사용되지만 글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같애서', '같애요'도 모두 '같아서', '같아요'로 적어야 한다.

. 스님 머리 나랑 같애(→같아)(뉴시스 2012.5.13.)

. "오바마 X같애(→같아)" 美 방송인 출연정지…PD 실수 때문에(경향신문 2011.7.1.) 버락 오마바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오바마는 X같았다(A dick)"라고 평가한 미국 유명 방송인이 무기한 출연 정지를 당했다.

<뿌리채(×)→뿌리째(○)>

→동사의 관형사형 뒤에는 의존명사인 '채'를 쓴다. 명사 뒤에는 접미사인 '째'를 쓴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채「의존명사」 (('-은/는 채로', '-은/는 채' 구성으로 쓰여)) 이미 있는 상태 그대로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
-째「접사」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대로', 또는 '전부'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유로존 구제금융 판도 뿌리채(→뿌리째) 흔들(한겨레신문 2012.6.11.)

. 24일 오전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일식집 그대로의 유비끼방식(뜨

거운 물로 살짝 데친 후 얼음물에 식힌 참돔을 껍질채(→껍질째) 썰어내 쫄깃한 식감을 배로 살리는 방식)으로 손질한 통영산 활참돔회를 25,000원에 선보이고 있다.(세계일보 2011.11.25.)
. 팝스타 비욘세가 첫 딸을 낳으면서 15억여원으로 병원을 통채로(→통째로) 빌렸다.(이데일리 2012.1.9.)

<치루다(×)→치르다(○)>

→'치루다'는 '치르다'의 잘못이다. '치르다'는 '치러, 치러지고, 치렀고'처럼 활용한다. '치루다'는 잘못된 표기이다.

. 그리스 2차총선 투표 순조롭게 진행(KBS뉴스 2012.6.17.) 이번 총선은 그리스 구제 금융의 선제 조건인 재정 긴축을 이행해야 한다는 신민당과 구제 금융을 원점에서 재협상해야 한다는 급진좌파 연합 시리자의 접전 속에 치뤄지고(→치러지고) 있습니다. 공식 투표 결과는 현지 시각으로 18일 새벽이 되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집트 헌재 "의회 해산"…정국 혼돈(한겨레 2012.6.15.) 이는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의 축출 이후 처음으로 민주적으로 진행됐다고 평가받은 지난 총선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으로, 정치적으로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이 정상적으로 치뤄질지에(→치러질지에) 대한 우려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슬림 형제단의 극렬한 반발로 지난해 반독재 투쟁 못잖은 유혈사태가 재현될 가능성마저 있다.
. 코스닥, 관망 속 강보합권 유지(매일경제 2012.6.14.) 국내 증시는 17일(현지시간) 그리스에서 치뤄지는(→치러지는) 2차 총선을 기다리는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겹치면서 방향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 신인그룹 'WE(위)', '엠카'서 성공적 데뷔 무대 치뤄(→치러)(동아일보 2011.11.17.)
. '디즈니 동화 웨딩 컬렉션'은 여자라면 누구나 꿈꿔 왔던 공주 드레스를 실제로 입을 수 있도록 꿈을 실현시켜 주고 있다. 누구나 입을 수 있는 똑같은 웨딩드레스가 아닌 동화 속 주인공으로 일생일대의 가장 큰 행복한 행사를 치뤄(→치러) 낼 수 있게 된 것.(경향신문 2011.11.3.)
. 미디어들은 무분별한 퍼가기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워 법무법인 등에 위탁하는 형태로 저작권 지키기 전쟁을 치뤄온(→치러온) 바 있다.(중앙일보 2012.6.26.)

. 삼성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다목적홀에서 '슈퍼스타 S' 결선을 치렀다. 성황리에 치뤄졌던(→치러졌던) 케이블 프로그램 '슈퍼스타 K'를 본떠 만든 이 행사는 전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해 '최고 가수'를 뽑은 행사다.(폴리뉴스 2011.6.18.)
. 경남 진주시 일반성면은 21일 제2회 부부의 날을 맞아 결혼 60주년 이상 된 노부부 10세대를 방문해 찾아주는 회혼식을 치뤄(→치러) 줄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뉴시스 2009.5.20.)
. 충북교청, 201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26일 치뤄(→치러)(한국인터넷신문 2012.6.25.)
. 최근 루머로 곤욕을 치룬(→치른) 셀트리온이 이날 또 다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로 주가가 장중 크게 흔들렸다.(아주경제 2012.10.19.)
. 하지만 이에 앞서 지해는 온라인 상에 떠돌았던 왕따설로 곤욕을 치룬(→치른) 바 있다.(한국일보 2012.10.17.)
. 혼성그룹 쿨 멤버 유리 (35·차현옥)가 사망설에 휩싸여 곤욕을 치뤘다(→치렀다).(동아일보 2012.10.17.)

<담구다(×)→담그다(○)>

→'담구다'는 '담그다'의 잘못이다. '담그다'는 '담가, 담갔다'처럼 활용한다. '담구다'는 잘못된 표기이다.

. 궁궐 장 담궈요(→담가요).(경향신문 2012.4.1.) 1일 경복궁에서 열린 장담그기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조선왕조 궁중의 장에 대해 설명하고 직접 간장을 담가보고(→담가보고) 있다.
. 한여름 날씨에도 이웃들 위해 김장 담궈요(→담가요)(뉴시스 2012.5.30.) 30일 서울 성동구 바르게살기운동 성동구협의회가 구청 앞 광장에서 '한여름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 를 개최, 관계자들이 김치를 담그고 있다.
. 전통 장 담궈(→담가)보세요(서울경제 2012.1.29.)
. 무조건 물에만 몸을 담구면(→담그면) 실패!(한국경제 2010.1.19.) 만일 매번 일반 뜨거운 물에 몸을 담궜다면(→담갔다면) 이번엔 소금을 물에 풀어보자. 소금물은 천천히 피곤을 풀리게 하며 피부를 이완시킨다.
. 칼륨은 물에 녹아서 빠져나가므로, 고칼륨 식품은 찬물에 2시간 이상 담궈(→담가) 놓거나 더운 물에 데쳐 먹으면 된다. 미역·고구마·배추·양배추·당근도 고칼륨 식품이다.(조선일보 2012.5.30.)
. 학생들은 지난 3월 장 담그기 체험활동을 하고 난 후 3개월이 지난 지금

장독대에 담궈(→담가) 놓은 메주를 떠서 된장 만들기를 했다.(한남일보 2012.6.25.)
. 에이드의 재료가 되는 복분자와 오미자는 송 씨의 어머니가 집에서 손수 담궈(→담가) 숙성시킨 후 카페에서 낸다.(한국경제 2012.6.22.)
. 자신의 감추고 싶은 단점 마저 스크린에 내보이며 혼신을 불사른 그의 연기열정은 대단했는데 대선배인 최명수에게 '더 강하게 담궈(→담가) 달라'고 주문했던 구타 신에서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마저 감수했다.(유니온프레스 2009.11.30.)

<들리다(×)→들르다(○)>

→'들리다'는 '들르다'의 잘못이다. '들르다'는 '들러, 들렀다'처럼 활용한다. '들리다'는 '듣다'의 피동형이거나 '들다'의 피동형 또는 사동형이다. '귀가 잘 들린다.'라고 하거나 '물건의 한 쪽이 높이 들렸다.' 또는 '어른이 아이에게 가방을 들리고 간다.'라고 할 때 쓰인다.

. 한편, 오원춘도 피해자 K씨(28·여)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아무렇지 않게 동네 슈퍼마켓에 들려(→들러) 비닐봉투를 구입하러 다녔으며, 경찰에 검거된 후에도 독서를 즐기고 농담을 하는 등 너무도 태연한 모습으로 일관했었다.(경기일보 2012.4.17.)
. 그렇게 힘든 치료시간이 끝나면 다시 택시를 타고 터미널에 가서 버스를 탄다. 버스를 타기 전 매점에 들려(→들러) 바나나 우유와 아이스크림을 샀는데, 그러면 물리치료로 인한 고통을 싹 사라지고는 했다.(에이블뉴스 2012.6.27.)
. 두터운 근시 안경에 우스꽝스러운 상고머리, 만성두통·중이염·변비는 물론 신경쇠약 증세도 있어 신경안정제 '삼비스이(3B水)'를 복용했던 약골, 지금의 조선호텔 부근에 있었던 다방 '낙랑파라'(樂浪 parlour)에 들려(→들러) 가배차(커피)를 마시고 식민지 근대 경성의 거리를 활보하던 만보객(萬步客), 무엇보다 일상을 소설 속으로 끌어들인 단편소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과 세태소설이라는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장편 『천변풍경』 등으로 한국문학사에 뚜렷한 발자국을 남긴 거인. 소설가 박태원(1910~86)의 풍모는 이처럼 다채롭다.(중앙일보 2011.11.14.)
. 아티스트와 빈티지 제품들이 한곳에 모여 윌리엄스버그의 '힙스터'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아티스트앤 플리.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으니 뉴욕을 여행할 때 꼭 들려(→들러)볼만 하다.(OSEN 2011.5.2.)

. 김임순 자문위원의 다양한 경매 노하우로 부동산 재테크에 뛰어들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바로 김임순 자문위원의 블로그에 들려(→들러) 상담을 받아 보길 바란다.(연합뉴스 2011.4.22.)

<갖어(×)→가져(○)>

→'가지다'는 'ㄴ', 'ㄱ', 'ㄷ', 'ㅈ'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갖다'로 줄여서 사용할 수 있다. '갖는, 갖고, 갖되, 갖지'처럼 쓸 수 있다. 그러나 모음이나 그 밖의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줄일 수 없다. '가지면, 가지려고, 가져, 가진'을 '갖으면, 갖으려고, 갖어, 갖은'처럼 쓰면 안 된다. '갖습니다'는 '가집니다'와 함께 사용할 수 있지만 '갖으시고'는 '가지시고'로 써야 한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가지다[Ⅰ]「동사」[1]「1」손이나 몸 따위에 있게 하다. 「2」자기 것으로 하다. 「3」직업, 자격증 따위를 소유하다. 「4」((모임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여))모임을 치르다. 「5」아이나 새끼, 알을 배 속에 지니다. 「6」거느리거나 모시거나 두다. 「7」((‘가지고’ 꼴로 쓰여))앞에 오는 말이 수단이나 방법이 됨을 강조하여 나타낸다. 「8」((‘가지고’ 꼴로 쓰여))앞에 오는 말이 대상이 됨을 강조하여 나타낸다.
[2] 생각, 태도, 사상 따위를 마음에 품다.
[3]((‘…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관련’을 뜻하는 말과 함께 쓰여)) 관계를 맺다.
[Ⅱ]「보조동사」((동사나 형용사 뒤에서 ‘-어 가지고’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의 결과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또는 그럼으로써 뒷말의 행동이나 상태가 유발되거나 가능하게 됨을 나타내는 말.
갖다「동사」 ‘가지다’의 준말. (갖는, 갖고, 갖지)

* 참고: '골고루 갖춘', '다 갖춘'의 뜻을 가진 관형사로 '갖은'이 있는데 이것을 '가진'으로 쓰는 것은 잘못이다. 아래 기사는 그래서 잘못이다.

. 그리고 가진 양념(→갖은 양념)을 넣어 만든 다데기가 미각을 자극하며 (경기일보 2012.4.19.)

. 이날 한국타이어 전시관에는 추신수 미국 프로야구 클리브랜드 선수가 방문해 싸인회를 갖어(→가져)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조선일보 2011.11.3.)
. 불확실한 요인들이 제거 되는 시점에서 증권주에 관심을 갖으면(→가지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한국경제TV 2011.12.8.)
. 타블로-강혜정 부부가 27일 오후 서울 성수동 대림창고에서 열린 '코오

롱스포츠 F/W 2012 컬렉션' 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은 후(→가진 후) 퇴장하고 있다.(한국일보 리뷰스타 2012.6.27.)
. '유리왕' 정진영 "서울대 국문과 출신에 관심 갖으면(→가지면) 서운해요" (경향신문 2008.11.3..)
. 새 얼굴도 많고 각 투수들에 대해 파악해야 할 것도 많아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고 하자 "그런 걸로 부담 갖으면(→가지면) 어떻게 포수 하나"라고 하며 특유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드러냈다.(스포츠조선 2010.12.27.)
. "과녁을 정확히 조준한다고 꼭 맞는 게 아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즉 무아지경에 이르렀을 때 화살은 과녁을 뚫는다." 안 회장은 "절대 욕심을 내거나 조바심을 갖으면(→가지면) 과녁은 화살을 외면한다"고 했다.(중앙일보 2010.10.5.)

<딛어(×)→디뎌(○)>

→'디디다'는 'ㄴ', 'ㄱ', 'ㄷ', 'ㅈ'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딛다'로 줄여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디디는, 디디고, 디디도록, 디디지'를 '딛는, 딛고, 딛도록, 딛지'처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모음이나 그 밖의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줄여서 사용할 수 없다. '디디면, 디디려, 디뎌, 디딘'을 '딛으면, 딛으려, 딛어, 딛은'처럼 쓰면 안 된다. '딛습니다'는 '디딥니다'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딛으신다'는 '디디신다'로 써야 한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디디다 「동사」 「1」 【…에 …을】 발을 올려놓고 서거나 발로 내리누르다. 「2」 누룩이나 메주 따위의 반죽을 보자기에 싸서 발로 밟아 덩어리를 짓다. 「3」 어려운 상황 따위를 이겨 내다.
딛다 「동사」 【…에 …을】 '디디다'의 준말. (딛는, 딛지, 딛게)

. 민주통합당 문성근 최고위원이 20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면서 상석(床石·무덤 앞에 제물을 차려놓기 위해 돌로 만든 상)에 한발을 딛은(→디딘) 데 대해 사과했다.(조선일보 2012.1.21.)
. 루이스 테나 멕시코 감독은 훈련 중간중간 파비안을 불러 상태를 확인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파비안도 여러 차례 오른발을 땅에 강하게 딛어(→디뎌) 보며 상태를 체크했다.(중앙일보 2012.7.24.)
. 한 편의 소설을 읽는 듯한 간결하면서도 몰입감 있는 스토리. 도전욕구를

자극하는 거대한 맵과 적들, 웅장한 음악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게이머라면 다시 한번 금단의 땅으로 발을 딛어(→디뎌) 보는 것이 어떨까요?(조선일보 2011.10.21.)
. 브래드 피트가 데뷔 후 처음으로 한국에 방문했다. 브래드 피트는 11월 14일 오후 9시 20분께 김포공항으로 입국,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딛었다(→내디뎠다).(뉴스엔 2011.11.15.)
. 이날 방송에서 사고 당시 장면은 편집됐다. 유빈은 뜀틀을 넘은 뒤 양궁 과녁에 발을 딛어(→디뎌) 점수를 따는 게임에서 뜀틀 바로 앞에 있던 볼풀에 빠졌다. 점수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의욕적인 모습을 잃지 않았다.(뉴스엔 2012.10.28.)

<-스런(×)→-스러운(○)>

→접미사 '-스럽다'는 '-스러운, 스러워'처럼 활용한다. '-스러운'을 줄여서 '-스런'으로 말하고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자연스러운, 개탄스러운, 갑작스러운'처럼 써야 한다.

. 치아 교정, 어릴때 해야 자연스런(→자연스러운) 얼굴형 갖게돼(중앙일보 2011.12.5.)
. 그러나 이들 업종의 조정은 단기급등에 대한 자연스런(→자연스러운) 조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국민일보 2011.5.17.)
. 배우 이준기 씨가 장난기 넘치는 자연스런(→자연스러운) 일상을 공개해 재미를 주고 있다.(데일리중앙 2012.6.27.)
.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미 밝혀진 진실을 두고 역사에 대한 왜곡을 서슴지 않다니 참으로 개탄스런(→개탄스러운) 일이다.(광주일보 2011.8.12.)
. 동해(凍害)는 농작물이 추위로 얼어서 입는 피해를 말하며, 냉해(冷害)는 이상저온 등 갑작스런(→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로 발생하는 피해다.(광주일보 2011.8.8.)

<절대절명(×)→절체절명(○)>

→'체(體)'를 '데이'로 발음하는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자주 '절대절명'으로 잘못 발음하고 표기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 '절체절명'이 옳은 말이다. 다만, 이 말은 일반 독자에게 사용하기에는 무겁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쉬운 말로 바꿔 쓰는 것이 좋겠다. '생사의 위기', '사활이 걸린

숙제' 등이 대안으로 쓰일 수 있겠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절체-절명(絶體絶命)「명사」 몸도 목숨도 다 되었다는 뜻으로, 어찌할 수 없는 궁박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절체.

. TJB 이갑우 사장은 올 한해 업무를 '절대절명(→절체절명)의 숙제'로 규명했다.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대처, 광고시장 확대와 함께 신사옥 건설까지 진행 중이어서 "일련의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최소 2-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대전일보 2010.1.7.)
. 이들은 "한미FTA가 비준되면 제주농업은 절대절명(→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된다"며 "특히 서귀포 감귤농업이 커다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제주일보 2011.9.21.)
. 특히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절대절명(→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며 감회에 젖었다.(국민일보 2012.6.7.)
. 또 7회말 무사 3루의 위기에서는 4,5,6번 타자를 연속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팀을 절대절명(→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해냈다.(스포츠동아 2012.5. 6.)
. 이 과정에서 할머니는 거꾸로 매달려 시속 200Km의 무서운 속도로 지상으로 곤두박질한다. 절대절명(→절체절명)의 순간이다.(시사서울 2012.5.26.)

<홀홀단신(×)→혈혈단신(○)>

→구태여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다가 틀린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홀'과 '단'이 쉽게 감응하여 '홀홀단신'이라고 잘못 사용하는 것 같다. 정확하게는 '혈혈단신'으로 써야 한다. '혈(孑)'은 '고단함' 또는 '외로움'을 뜻하는 한자인데 교육용 기초 한자 밖의 글자이다. 한자도 어려운 글자이고 말도 어려우므로 쉬운 말로 바꿔서 쓰면 좋겠다. '홀몸'이 대안으로 적절하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혈혈-단신(孑孑單身)「명사」 의지할 곳이 없는 외로운 홀몸. ≒혈연단신.

. '통영시 북신동 사글셋방에 기거하는 김 할머니는 남편이 숨진 뒤 50여 년을 자녀없이 지금껏 홀로 살아왔다. 그래도 지난해까지는 근처에 하나 남은 혈육인 남동생이 살고 있었으나 올해 초 숨지면서 그야말로 홀홀단신(→

혈혈단신)이다.(부산일보 2012.4.27.)
. 비록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자평이었지만 “노래 못한다”, “미국에나 가라” 등의 악플은 홀홀단신(→혈혈단신) 미국에서 꿈을 쫓아 한국으로 온 김나윤에게 상당한 상처가 되었을 것이다.(민중의 소리 2012.5.16.)
. 선진당은 이어 “5백만 충청인이 삭발과 단식, 피와 땀으로 지켜낸 세종시”라며 “사상 초유의 300 의석 국회를 탄생시킨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밀실에서 선거구 획정 야합을 거듭할 때 선진당과 충청인은 허허벌판에 홀홀단신(→혈혈단신) 나서 세종시를 지켰다.(대전일보 2012.3.19.)
. 벼랑 끝에 내몰린 그녀가 홀홀단신(→혈혈단신) 익명의 대도시에서 흉칙한 괴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한편으론 너무 불쌍하고 한편으론 너무 무섭다.(충청매일 2012.2.28.)
. 매년 이러한 의미있는 행사를 기획하는 황재명씨는 4세때 부모를 잃고 홀홀단신(→혈혈단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해 온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명절전 더욱 외로운 소년소녀가장의 마음을 십분 헤아리고자 하며, 자수성가한 본인의 사연이 소년소녀가장에게 작은 희망의 본보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영주신문 2011.9.10.)

<환골탈퇴(×)→환골탈태(○)>

→이것도 한자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잘못이다. 어려운 한자어를 잘못 사용할 바에야 쉬운 말로 바꿔 쓰는 것이 독자에게 서비스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습관적으로 이 말을 사용해 오고 있으나 이제는 버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다시 태어남’, ‘거듭남’, ‘확 바꿈’ 등의 말로 바꾸는 것을 권한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환골-탈태(換骨奪胎)「명사」 「1」 뼈대를 바꾸어 끼고 태를 바꾸어 쓴다는 뜻으로, 고인의 시문의 형식을 바꾸어서 그 짜임새와 수법이 먼저 것보다 잘되게 함을 이르는 말. 중국 남송의 승려 혜홍(惠洪)의 <냉재야화(冷齋夜話)>에 나오는 말이다. ≒탈태(奪胎)·환골(換骨)·환탈(換奪). 「2」 사람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하여 전혀 딴 사람처럼 됨. ≒탈태·환골·환탈.

. ‘어쨌든 한나라당은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한나라당이 환골탈퇴(→환골탈태)해야 한다.(경북일보 2011.6.29.)
. 그는 “인천시장과 구청장, 지방의회가 온통 한나라당이지만 인천은 자살·

실업·이혼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도시로 전락했다"고 한 뒤 "부평의 교육과 복지에 새 숨결을 불어 넣어 살고 싶은 도시로 환골탈퇴(→환골탈태)시켜내겠다"고 밝혔다.(부평신문 2010.5.15.)
. 속만 쓰린 예전 LG의 추격 야구와는 질적으로 달라졌다. LG 김기태 감독의 '형님 리더십'과 1, 2군이 하나로 응집된 집중력의 야구로 환골탈퇴(→환골탈태)했다.(매일경제 2012.6.13.)
.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 온 삼창기업은 경영혁신을 통해 '환골탈퇴(→환골탈태)'할 전망이다.(울산제일일보 2011.3.8.)
. 박 당협위원장은 이날 오전 천안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11 총선에서 충청인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사죄드리고 자유선진당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환골탈퇴(→환골탈태)해 충청도민들과 국민들께 사랑받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 나겠다" 며 이 같이 밝혔다.(뉴시스 2012.5.23.)
. 입지환경에 어려움 겪던 매장 환골탈퇴(→환골탈태)시키다. (MK뉴스 2012.6.15.)

<가능한(×)→가능한 한(○)/가능하면(○)>

→'가능한 한(限)'이라고 해야 할 것을 '한(限)'을 빠뜨리고 잘못 쓴 것이다.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의미인데 이를 쉽게 표현하면 '가능하면'이다. '가능한'은 '가능하다'의 관형사형이다.

. 日 외상 "가능한(→가능한 한/가능하면) 올 내 한국에 문화재 인도"(연합뉴스 2011.10.24.)
.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새 방통위원장을 가능한(→가능한 한/가능하면) 일찍 임명하려고 한다. 방통위원장은 5인의 위원들이 호선(위원들 간 추대)으로 결정한다.(아이뉴스24 2012.1.30.)

<콘텐트(×)→콘텐츠(○)> <컨텐츠(×)→콘텐츠(○)>

→내용을 의미하는 영어 'content'를 복수형으로 'contents'로 사용하는 것이 추상명사의 복수형을 허용하지 않는 영어 어법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 '콘텐츠'를 '콘텐트'로 쓰는 신문이 있다. 영어에서는 그 주장이 맞지만 우리 언어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 이미 콘텐츠가 대부분의 언론은 물론이고 정부 기관의 이름에서부터 부서의 이름, 정책의 이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일반에서도 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구태여 영어와 맞지 않다고 해서 이를 바꿔야 할 필요는 없다. 외래어는 어디까

지나 한국어이지 영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컨텐츠'도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이다.

. 스마트폰 소액결제 인증절차 94.5%가 '필요하다'(중앙일보 2012.6.15.) 아산소비자고발센터는 지난달 21일~6월 5일 아산시민 308명(청소년 148명, 일반성인 160명)을 상대로 인터넷 콘텐트(→콘텐츠) 이용에 관한 소비자 의식조사를 벌여 14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전체 응답자의 32.5%(성인 26.3%, 청소년 39.2%)가 인터넷 콘텐트(→콘텐츠) 이용 관련 법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 두 작품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정동천)의 문화원형 콘텐트(→콘텐츠) 사업의 도움을 받았다. 전통문화의 한류화를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우리 전통의 문화코드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각종 문화상품에 응용하자는 취지다.(중앙일보 2012.2.17.)
. 이 세 개의 대분류 안에 주제에 맞는 컨텐츠(→콘텐츠)가 있어 구매고객과 관심고객에게 모두 어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두었습니다. (조선일보 2012.11.7.)
. 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2 불법사채 피해예방 컨텐츠(→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모내용은 불법사채업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알아야 할 지식들을 콘텐츠(→콘텐츠)로 표현하면 된다.(매일경제 2012.10.29.)
. 한편 엘엔케이는 현재 유저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피로도 및 만렙 컨텐츠(→콘텐츠)에 대한 개발사의 입장과 향후 개발될 내용에 대한 설명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한국경제 2012.9.3.)

<컨셉트(×)→콘셉트(○)>

→영어 'concept'의 표기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서 '콘셉트'이므로 '컨셉트'로 표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 '전국 5일장 특집' 은 각각의 멤버가 전남 화순·구례, 충북 괴산, 경남 창녕 등 5개 지역에서 열리는 장터를 하나씩 맡아 여행을 떠나는 컨셉트(→콘셉트)로 진행된다.(대전일보 2011.9.23.)
. 한가인 난해 패션, 미모 반감시킨 '무리수' 컨셉트(→콘셉트)(조선일보 2012.11.1.)
. 24일 패션 잡지 <보그 걸>과 진행한 미쓰에이의 화보 촬영 사진이 공개됐

다. 최근 진행된 화보 촬영에서 미쓰에이는 '다크 엔젤(dark angel)' 컨셉트(→콘셉트)에 도전했다.(스포츠경향 2012.10.24.)
. 한국에선 오는 11월 12일 여의도 IFC에 '콘래드서울'이란 이름으로 개장한다. '콘래드'란 명칭은 힐튼월드와이드의 창시자의 이름인 '콘래드 힐튼'에서 유래되었다. 콘래드 브랜드의 컨셉트(→콘셉트)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럭셔리 서비스, 즉 '스마트럭셔리'다.(매일경제 2012.10.28.)
. 데뷔이후 단 한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짧은 머리 스타일을 선보인 세미의 모습에 네티즌들은 '세미닮은 남자인 줄 알았다', '새 앨범 컨셉트(→콘셉트) 노출인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영남일보 2012.9.24.)

<지놈(×)→게놈(○)>

→유전체를 의미하는 단어 'Genom'을 독일어로는 '게놈' 영어로는 '지놈(genome)'이라고 하는데 다 영어로 '지놈'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우리도 '지놈'으로 불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우리는 오래 전부터 '게놈'으로 쓰고 있으므로 이를 따라야 한다.

. 조만간 복숭아처럼 달콤하거나 고추처럼 매운 토마토 재배가 가능해질 것 같다. 신품종 개발을 쉽고 빠르게 하는 데 활용 가능한 토마토의 지놈(→게놈)(genome) 지도가 완전 해독됐기 때문이다.(중앙일보 2012.5.31.)
. 2003년 인간 지놈(→게놈)을 분석하는 지놈(→게놈) 프로젝트가 끝난 뒤 인간의 DNA 염기서열은 약 30억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2%에 불과한 일부 염기서열만이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갖고 있는 `유전자`인 것으로 밝혀졌다.(매일경제 2012.9.3.)
. 영국의 제약업체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은 9일(현지시간) 연구개발 파트너인 미국의 휴먼지놈(→게놈)사이언시스(HGS)에 대해 26억달러 규모의 적대적 인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12.5.9.)
. 그러나 바이러스 지놈(→게놈)이 RNA 바이러스인 관계로 약물에 대한 내성이 쉽게 발생하고 바이러스 감염 지역에 따라 지놈(→게놈)의 다양성을 나타내어 아직까지 효능이 좋은 치료제가 개발 되지 못하였다.(2012.8.10.)

<매니어(×)→마니아(○)>

→어떤 것을 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뜻하는 영어 'mania'를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서 '마니아'로 적어야 하는데 영어식 발음에 가깝게 '매니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 그는 “매운 맛을 좋아해 빨간 라면을 선호한다”는 한국 라면 매니어(→마니아)다. 미국 워싱턴주 에드몬드에 거주하는 ‘라면의 신’ 리네시와 4일 페이스북으로 인터뷰를 가졌다.(중앙일보 2012.6.5.)
. 이 신문은 특히 “이미 다른 스마트폰에서 보여지고 있는 몇몇 기능과 특징들이 아이폰5에서는 볼 수조차 없다”며 “일부 아이폰 매니어(→마니아)들 조차도 아이폰이 계속해서 변화를 선도하는 불꽃이 될 것인지 아니면 졸고 있는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고 제기했다.(머니투데이 2012.9.13.)
. 가족이 먹는 아침상에 밥 대신 빵을 식탁에 올린다는 게 낯설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친구가 자주 간다는 빵집을 소개 받았다. 서울 홍대 근처에 있는 폴앤폴리나다. 서씨는 이곳의 빵을 먹은 후 이 집 매니어(→마니아)가 됐다.(이코노미스트 2012.10.22.)

<수퍼(×)→슈퍼(○)>

→일반보다 더 크거나 특별한 것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 ‘super’이나 규모가 큰 소매점을 가리키는 ‘supermarket’을 가리킬 때에 ‘슈퍼’, ‘슈퍼마켓’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식 발음에 가깝게 ‘수퍼’, ‘수퍼마켓’이라고 하는 것도 옳지 않다. 우리는 한국어로서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이어서 이런 낱말들은 모두 한국인끼리 통용되는 단어라는 점을 유념하여 한국에서 통용되는 표기를 하는 것이 옳다.

. 北, 수퍼(→슈퍼)에 네스카페 커피 등 외국제품 즐비…개혁 ‘신호탄’?(조선일보 2012.9.2.)
. 미국 경제전문채널인 CNBC는 “글로벌 수퍼(→슈퍼) 리치들이 기존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게 붐”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지난해 미국 수퍼(→슈퍼) 리치 1700명이 조국을 등졌다.(중앙일보 2012.6.5.)
. 서울시 수퍼닥터 김시진 을지대학교 의료유통산업학부 강사가 서울 양천구 신월동 농협공판장 신월1직매장 점주 권대인(58) 두정순 부부에게 수퍼(→슈퍼) 운영 노하우를 전달한다.(내일신문 2012.10.25.)
. K리그 FC서울과 수원 삼성의 경기가 열린 3일 수원 월드컵경기장에 수퍼(→슈퍼)매치 답게 많은 팬들이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경향신문 2012.10.3.)
. 그녀는 수퍼(→슈퍼)에 가서 빵봉지를 다 뜯어놓는 동시에 "아빠 돈 많잖아. 돈 많으니까 저 사람들도 먹어살리는 거잖아"라고 반항을 시작했다.(한국일보 2012.11.9.)

(2) 사이시옷

→한글맞춤법에 따르면 고유어와 고유어, 고유어와 한자어가 합해져서 이루어진 합성어에서 두 단어 사이에 덧나는 소리가 있으면 사이시옷을 붙이게 되어 있으므로 아래 합성어에는 사이시옷을 붙이는 게 맞다.

<채소값(×)→채솟값(○)>

. 과일·채소값(→채솟값) 지난해보다 13.9%↑(한겨레신문 2012.6.1.)

<우유값(×)→우윳값(○)>

. 우유값(→우윳값) 인상 후폭풍으로 요구르트·커피음료 등 우유 넣는 제품 가격도 인상됐다.(강원일보 2011.11.17.)

<장마비(×)→장맛비(○)>

. 실제 최근 장마비(→장맛비)와 무더위로 인해 친수공간으로 조성된 하류쪽에 하상 퇴적물이 쌓이고 부패되면서 심한 악취를 유발하고 있어 여천천을 찾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부산일보 2011.7.7.)

. 장마비(→장맛비)는 매일 내린다. 한 달 동안 내릴 것이다 7월 한 달 빗속에서 살려면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 . 우산도 서너 개 사놓고 그야말로 장화도 필요할지도 모른다.(세계일보 2011.7.1.)

. 상주와 전북의 2011 현대오일뱅크 K리그 15라운드 경기가 장마비(→장맛비)가 쏟아지는 25일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열렸다.(스포츠조선 2011.6.25.)

<등교길(×)→등굣길(○)>

. 출·퇴근 및 등교길(→등굣길)에 자전거 어떠세요?(한국일보 2012.5.23.)

. 이번 캠페인은 등교길(→등굣길)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경북도 청송교육지원청, 청송경찰서, 청송119안전센터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100여명이 참석, '안전한 물놀이라는 어깨띠를 착용하고 홍보 전단지와 부채 등 홍보물을 나눠주며 물놀이 안전수칙 및 구명조끼 착용을 홍보했다.(경북일보 2012.7.5.)

. 수빈, 등교길(→등굣길) 버스 탄 모습 포착 '교복 여신' 등극(일간스포츠 2011.12.17.)

. 이밖에 단위 학교 별로 구연동화, 학습도우미, 등교길(→등굣길) 교통지도, 조손가정 반찬봉사 등 다양한 교육기부와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부산일보 2012.4.23.)

(3) 띄어쓰기

<밖에>

→‘뿐’의 의미로 쓰인 ‘밖에’는 조사로서 앞 말에 붙여 써야 한다. 이 경우에 뒤에 오는 말은 언제나 부정적 의미를 갖는다. ‘밖’이 실제로 일정한 공간의 바깥을 의미한다면 이때의 ‘밖’은 명사이므로 앞 말에 띄어 써야 한다. ＊ 붙여 쓰는 경우: 너밖에 모른다. 그럴 수밖에 없다. ＊ 띄어 쓰는 경우: 이 집 밖에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다. 이 밖에도 여러 문제가 있다.

. 하객 1인당 식비는 20만원, 하객들이 식사를 하며 곁들인 와인은 병당 10만원에 계산됐다. 이밖에도(→이 밖에도) 웨딩케이크 100만원, 기념초 30만원 등 양가의 혼주가 호텔에 낸 돈은 1억원을 넘었다.(조선일보 2012.2.11.)
. 이밖에도(→이 밖에도) 정부는 이란과의 대외무역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미국, EU와의 대외협의도 지속할 계획이다.(조세일보 2012.6.26.)
. 이밖에도(→이 밖에도)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를 외면·무시·방치한 20여건의 최근 사례를 모아 발표한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장은 “가정폭력을 막기 위한 법과 제도는 있으나 경찰의 관점이 문제”라며 “가정폭력은 인권 문제임에도 여전히 경찰은 사소한 집안일로 치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겨레신문 2012.6.25.)
. 국제회의 유치전이 앞으로 치열하게 전개될 수 밖에(→수밖에) 없다.(제주일보 2011.8.3.)
. 박진영은 문을 열고 들어가 무대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내 눈엔 너 밖에(→너밖에) 안보여’라고 고백한다.(파이낸셜뉴스 2012.4.27.)
. 과거 불법 복제 실태를 손 놓고 볼 수 밖에(→수밖에) 없었던 미디어들은 무분별한 퍼가기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워(중앙일보 2012.6.26.)

<만>

→일정한 기간을 나타내는 경우에 ‘만’은 의존명사이므로 앞 말에 띄어 써야 한다. 그러나 ‘만큼’의 뜻으로 명사 뒤에 쓰이면 조사로 보고 앞 말에 붙여 쓴다. 대상을 한정하는 경우에도 ‘만’은 조사로서 앞 말에 붙여 써야 한다.

* 띄어 쓰는 경우: 열흘 만에 만났다. 이게 얼마 만이냐?
* 붙여 쓰는 경우: 형만 한 아우 없다. 오늘만 쉬겠다. 1시간만 기다려다오.

. 신동규 농협금융 회장 6일만에(→6일 만에) 첫 출근(매일경제 2012.6.26.)
. 한국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 8일 기준 135bp로 하루만(→하루 만에)에 18bp 급등하면서 1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강원일보 2011.8.10.)
. 실질 GNI가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분기 이후 2년만(→2년 만)이다.(대전일보 2011.6.16.)

<-ㄴ지, -ㄹ지, -던지>

→어미의 형태는 다양하다. '-ㄴ지', '-ㄹ지', '-던지'는 모두 어미의 형태이다. 여기에서 '지'가 한 음절로 적혀 있어서 앞의 '-ㄴ', '-ㄹ'과 띄어 써야 하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다. 어미의 형태를 익혀 두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 바닷물이 얼마나 푸른지 말로 형용할 수 없다.(어미는 '-ㄴ지)
*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어미는 '-ㄹ지')
* 얼마나 좋던지 무어라고 표현할 수 없었다.(어미는 '던지')

. 법률자문을 맡은 양정숙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특위 위원은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 중 소를 어느쪽에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어떤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좋을 지(→좋을지) 검토 중"이라며 "7월 말 일본 변호사들과 만나 논의해 본격적인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매일경제 2012.6.27.)
. 아이들은 놀이와 피서 생각에 벌써부터 들떠있지만, 정작 부모는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좋을 지(→좋을지) 걱정부터 앞선다.(전북도민일보 2012.6.25.)
. 그렇다면 물가관리를 잘하면 될게 아니냐고 반문할 지(→반문할지) 모른다.(대전일보 2011.6.16.)
. 제주 미래를 위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지(→될지), 오리새끼가 될 지(→될지) 분명히 짚어 봐야하기 때문이다.(제주일보 2011.8.5.)
. 미심쩍었던 지(→미심쩍었던지) "공천에 대해서 두 분이 원칙을 정하거나 논의하거나 합의하거나 할 위치와 입장이 아니지 않은가"라고도 했다.(대전

일보 2011.6.18.)
. 서구청의 100억원 규모 마을재생프로젝트가 순항할 지(→순항할지) 여부는 오는 10월 국비지원 규모가 확정돼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영남일보 2012.6.27.)
. 건설노조의 파업을 대비해서는 공정별로 대체공정을 진행할 수 있는 지(→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조선비즈 2012.6.25.)

<데/-는데>

→'데'는 의존명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어미 '-는데'의 음소로 쓰이기도 한다. 의존명사 '데'는 '곳'이나 '경우'의 뜻을 나타내고 조사 '에'를 붙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데'를 앞 말과 띄어서 써야 한다. 그러나 어미 '-는데', '-는데도'에 있는 음소 '데'는 띄어 쓰면 안 된다.

. 올해 3분기 코스닥 주요 기업들은 장사도 잘하지 못한데다(→못한 데다) 덩치까지 작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12.11.15.)
. 문 후보측에 대해서는 이른바 '안철수 현상'이 나온 배경에 민주당의 잘못이 있는 데도(→있는데도) 제1야당의 패권주의적 행태로 단일화를 그르치고 있다는 비판이다.(내일신문 2012.11.16.)
. 강남 핵심지역이라고 해도 요즘 임대수익률이 3~4%에 불과한 데도(→불과한데도) 대부분 개인 자산가들은 중소형 빌딩만 찾는다.(매일경제 2012.9.3.)
. 정치쇄신을 가장 최고의 화두로 이야기하는 (야권의)후보들이 누가 나올지도 모르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는 데도(→있는데도) 스스로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문화일보 2012.11.16.)
. 포미노에서 만든 디저트 와인은 산도가 높기 때문에 단맛이 강한 데도(→강한데도) 무거운 느낌이 없다는 게 특징이다.(중앙일보 2012.11.16.)
. 쌍용 예가 아파트는 700가구가 넘는 대단지인 데도(→대단지인데도) 전세 물건이 귀하다.(중앙일보 2012.11.16.)
. 상무위원이던 쩡칭훙은 연임이 가능한 데도(→가능한데도) 신진 정치인에게 길을 터주겠다면서 용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대신 '킹 메이커' 역할을 했다.(국민일보 2012.11.15.)

<지>

→일정한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의존명사는 '지'이다. 이것은 어미 '-ㄹ지', '-ㄴ지', '-는지', '-던지'와 구별해야 한다.

. 가격표시제(오픈프라이스)가 확대 시행된지(→시행된 지) 10개월째를 맞고 있지만 의류 품목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매일경제 2011.4.25.)

<수>

→가능성이나 개연성을 나타내는 표현법으로 '-ㄹ 수'를 써서 '-ㄹ 수 있다' 또는 '-ㄹ 수 없다'처럼 사용한다. '수'는 의존명사이다.

. 성장·발육이 끝나기 전에 성형수술을 할 경우 나중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무엇보다 어린 나이에 얼굴을 뜯어고치는 현상이 확산되는 것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가치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수(→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조선일보 2012.7.19.)

(4) 문장 부호(큰따옴표)

문장 부호와 관련한 어문 규정이 아직 완전히 준비되지 않아서 문장 부호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지적은 하지 않고 다만 명백한 큰따옴표 사용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한다.

→큰따옴표는 대화 내용 또는 다른 사람의 말임을 나타내는 부호이다. 신문 언어에서는 이 부호가 기사의 출처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기사의 사실성, 신뢰도와 직접 연결된다. 특히 사람에 대해서 평할 때에 따옴표는 특정인의 말을 따온 것으로 보기 때문에 평론의 객관성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어문 규정이 정한 요건을 엄격히 지켜서 큰따옴표를 사용해야 한다. 많은 신문이 큰따옴표를 자의적으로 사용하여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마치 남이 한 것처럼 큰따옴표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의도적으로 독자를 혼란스럽게 하면서 자기 의사를 강요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아래에 몇 예를 제시한다.

<자료: 한글맞춤법 부록 '문장 부호 규정'>

큰따옴표 대화, 인용, 특별 어구 따위를 나타낸다.
(1) 글 가운데서 직접 대화를 표시할 때에 쓴다. (2) 남의 말을 인용할 경우에 쓴다.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다."라고 하였다.

. “나는 反 박근혜 연합전선의 산토끼 담당!”(뉴데일리 2012.7.21.) 안철수는 이쯤 됐으면 자신의 간판을 이젠 정명론(定命論)에 따라 정확하게 정의(定義)해야 한다. 알쏭달쏭한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를 지양하고, 차라리 “나는 광의의 반(反)우파 연합전선 내부의 우 쪽 날개다”라고 자임하는 편이 더 맞지 않을지? 이게 여전히 불명확한 명칭이라면 이런 이름은 어떨까? “나는 반(反)박근혜 연합전선의 ‘산토끼’ 담당이다.”(설명: 자신의 생각을 큰따옴표로 처리하여 마치 남이 말한 것처럼 제목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안철수 자신이 한 말처럼 보이게 되니 이 신문이 의도적으로 안철수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장난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생각은 작은따옴표로 처리하고 자신의 생각임을 드러내 주어야 한다.)

. 문재인vs손수조 총선 지지율 “의외로…”(머니투데이 2012.3.6.) 한겨레신문이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에 의뢰해 5일 밤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 고문은 47.1%, 손 후보는 34.2%로 각각 나타났다. 문 고문이 12.9% 포인트 차로 앞서긴 했지만 이름조차 생소한 손 후보자가 유력 대권주자와의 맞대결에서 30% 넘는 지지율을 획득한 것이다. 출발선상에서 미미했던 지지율이 지난달 말 20%를 넘어 30%까지 상승한 것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지역 표심이 상당히 유동적일 수 있다고 봐야 한다.(설명: 이 말을 한 당사자를 드러내지 않을 거면 큰따옴표를 쓰지 말아야 한다.)

2. 낱말 바르게 쓰기

보도에도 낱말을 정확하게 사용해야 하겠지만 평론을 할 때에 더욱 낱말 사용의 정확성이 필요하다. 그 자리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적확한 낱말을 사용하면 신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독자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 낱말 뜻에 맞게 쓰기

<한글, 한국어, 우리말>

→'한글'을 '한국어'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글날 한글 문제를 언어 문제로 오해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눈에 띈다. 글자와 말을 구별해서 사용해야 할 것이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한글 「명사」 우리나라 고유 문자의 이름. 세종 대왕이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하여 창제한 훈민정음을 20세기 이후 달리 이르는 것으로, 1446년 반포될 당시에는 28 자모(字母)였지만, 현재는 24 자모만 쓴다.

. 세계 5대 언어로 부상하는 한글(→한국어)(매일경제 2011.12.28.)
. 포털 '한글(→언어, 한국어) 파괴' 도 넘다(세계일보 2011.10.7.)
. 한글(→언어, 한국어)파괴 앞장서는 행정기관 공공언어 안 되죠(아시아투데이 2011.10.9.)
. 한글(→한국어) 앱 '푸딩카메라' 美 사로잡다(서울신문 2011.5.19.)
. 한글(→한국어) 응용프로그램이 해외 앱 시장에서 성공한 사실상 첫 사례로 꼽힌다.(매일경제 2011.11.18.)
. '시월드-멘붕' 등 한글(→한국어) 파괴현상 심각(새전북신문 2012.10.8.)
. 축약어, 비속어, 모음을 떼고 자음 만을 사용한 말 등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만들어진 여러 신조어들은 매년 수백 개에 달합니다. 젊은 층의 이같은 비정상적인 언어 사용은 한글(→한국어)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세대간의 소통에도 장애물이 됩니다.(한국정책방송 2012.10.9.)
. 한글(→한국어)의 오염도 심각하다. 영어와 같은 외래문자와 혼용돼 정체성을 잃어가고 인터넷에서의 축약과 비속어 등 한글(→한국어)파괴 현상이 심하다. 한글(→한국어) 파괴현상은 어린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더욱 심각하다.

한글(→한국어)의 오염은 곧 우리 정신의 오염일 것이다. (법보신문 2012. 10.8.)

. CBS는 한글날을 맞아 날로 심화되고 있는 우리 일상속의 '한글(→한국어) 파괴 현상'을 짚어보기로 했다. 10일은 홈쇼핑 채널에서 과대한 존대어는 물론 영어와 한자가 마구잡이로 뒤섞인 한글파괴 현상을 보도한다.(노컷뉴스 2012.10.10.)

. 매년 반복되는 이런 행사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우리 말과 글은 아파서 신음하고 있다. 그런 아픔을 알면서도 치유하지 못하고, 덩달아 한글(→한국어) 파괴에 동참하는 것 같아 글 쓰는 자신이 부끄러워진다.(제민일보 2012.10.8.)

. 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은어. 그 속에 있는 비속어와 줄임말 사용은 대학생이 돼도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한글(→한국어)이 파괴된 그들만이 아는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에스비에스 2012.10.9.)

. 요즘 초등학생들의 말, 가만히 들어보면 마치 외계인들이 사용하는 말 같습니다. 한글날을 맞아서 초등학생들의 한글(→한국어) 파괴현상 집중 취재했습니다.(에스비에스 2012.10.9.)

. 정체불명 영어 가사, 한글(→한국어)로 바꿔 불러보니(소년조선 2012.10.9.)

. 비속어·줄임말·은어·외국어가 사라진 하루. 아이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한글(→한국어) 파괴, 한글(→한국어)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다"고 말했다.(소년조선 2012.10.9.)

<등극(登極)>

→'등극'은 전제주의 시대에 임금에 오르는 것을 가리키던 말인데 이것을 일등이 되는 경우에 전용하였고, 요즘은 좋은 자리에 오르는 것에까지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 적어도 최고의 자리나 지위에 오르는 경우가 아니면 이 말을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4위 등극'이나 '팜므파탈로 등극했다' 같은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등극(登極) 「명사」 「1」 임금의 자리에 오름. 「2」 어떤 분야에서 가장 높은 자리나 지위에 오름.

. 삼성전자, 스마트폰 4위 등극(→올라)(코리아헤럴드 2011.11.7.)

. 곽현화가 불륜녀 연기로 호평을 받으며 팜므파탈로 등극했다(→자리매김했다). 지난 16일 방송된 KBS 2TV 드라마 '사랑과전쟁2'에서 유부남을 유혹하는 리얼한 연기를 선보여 곽현화 호평이 쏟아진 것.(서울신문 2011.12.17.)
. 대한민국 여성, 세계 미모 2위 등극(→올라)(이데일리) 대한민국 여성의 평균 미모가 세계 2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남성 역시 7위를 기록해 남녀 모두 10위권 안에 입성했다.
. 리제강이 장성택의 2인자 등극(→오름)을 5일 앞두고 갑자기 사망한 것은 "매우 이상하다"(안보부서 당국자)는 관측이다.(조선일보 2010.6.8.)
. 이운재, 비호감 선수로 5위 등극(→올라)(투데이코리아, 2010.6.21.)
. 세계 부자 순위 488위에 등극한(→오른) 장신 CEO와 그의 남편 판스이(潘石屹.46)소호차이나 회장은 중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조장하는 데 한몫 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판스이 회장은 지난 2005년 자신의 주식을 부인 장신에게 증여하기도 했다.(매일경제 2010.8.29.)
. [김정은 北 2인자 등극(→올라)] '천안함 주범' 김영철 뜨고 '공작 총책' 오극렬은 지고(조선일보 2010.9.30.)

<연출(演出)>

→'연출'은 특별한 상황이나 상태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특별히 이런 상태를 만들어 내는 경우가 아닌데도 연출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분위기가 연출되었다'라고 하려면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도 일부러 그런 분위기인 것처럼 꾸몄다는 의미이다.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가 된 경우나 꾸미지 않고 특별한 모습이 보이거나 드러나는 경우에는 연출을 사용할 수 없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연출(演出) 「명사」 「1」 연극이나 방송극 따위에서, 각본을 바탕으로 배우의 연기, 무대 장치, 의상, 조명, 분장 따위의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도하여 작품을 완성하는 일. 또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 「2」 규모가 큰 식(式)이나 집회 따위를 총지휘하여 효과적으로 진행함. 「3」 어떤 상황이나 상태를 만들어 냄.

.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된(→조성된) 것으로 전해졌다.(경향신문 2011.5.12.)
. 이로 인해 일부 관광객들은 착시현상을 체험하기 위해 무단으로 도로를 유턴하는가 하면 역주행까지 하는 아찔한 상황을 연출(→행동으로), 교통 혼잡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 우려를 높게 하고 있다.(제주일보 2011.8.4.)

. 논란 당시 치열한 진실 공방을 벌였던 둘이다. 어색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특별한 모습은 연출되지(→보이지) 않았다.(서울신문 2011.4.18.)
. KIA는 선두 삼성에 1.5경기 차로 앞섰지만 승률에서 2모(0.002) 뒤져 2위에 머무는 보기 드문 상황을 연출했다(→상황이 되었다).(동아일보 2011.7.11.)
. 라마로피디 자넬 단장과 백상기 부단장(마다가스카르 한인회 부회장)을 비롯한 선수단 21명은 17일 오후 2시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최양식 시장과 최암 경주시축구협회장 등으로부터 환영 인사를 받고 선물을 주고받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만들었다).(경북일보 2011.8.18.)
. 13일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에서 시민들이 화려한 조명이 연출된(→비치는) 억새밭을 산책하고 있다.(연합뉴스 2012.10.13.)

<파장(波長), 파문(波紋)>

→영향을 미치는 것은 파문이고, 파장은 그것의 길이이다. '파장'을 '파문'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파장'은 길거나 짧은 것일 뿐 그것이 일어나거나 일으키는 것이 될 수는 없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파장(波長)「명사」「1」『물리』파동에서, 같은 위상을 가진 서로 이웃한 두 점 사이의 거리.「2」충격적인 일이 끼치는 영향 또는 그 영향이 미치는 정도나 동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파문(波紋)「명사」「1」수면에 이는 물결.「2」물결 모양의 무늬.「3」어떤 일이 다른 데에 미치는 영향.

. 정치적 파장(→파문)이 예상된다.(경향신문 2012.6.29.)
. 결국 현재 아스널의 알 수 없는 행보에 박주영의 위기는 더욱 커지고 있고 이 위기가 대표팀에게도 파장(→파문)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답답한 상황이다.(뉴스엔 2012.2.15.)
. 그의 실험은 정신의학계에 큰 파장(→파문)을 불러오면서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엄격한 지침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매일경제신문 2012.6.27.)
.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제한 조례를 놓고 법원의 위법 판결이 내려지면서 '골목 상권' 보호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센 파장(→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경기신문 2012.6.24.)
.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민이 단속 업무를 집행하던 우리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숨진 사건은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외교관계에 적잖은 파장

(→파문)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일보 2012.10.17.)

<반증(反證), 증거(證據), 증명(證明)>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것은 모두 증거이다. 증거에는 적극적인 증거가 있고 소극적인 증거가 있다. 그랬다는 증거가 전자이고 그러지 않았다는 증거가 후자이다. 이에 비해 먼저 제시된 주장이나 증거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내는 증거가 반증이다.

* 법률상 반증은 거증 책임이 없는 당사자가 상대의 진술이나 증거에 반하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증거를 제시하는 일을 가리킨다. 반증은 언제나 일차적으로 상대의 주장이나 증거가 제시된 경우에 사용한다. 단순히 예측이나 상식에 반하는 증거를 반증이라고 하지 않는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반증(反證) 「명사」 「1」 어떤 사실이나 주장이 옳지 아니함을 그에 반대되는 근거를 들어 증명함. 또는 그런 증거. 「2」((주로 '-는/ -다는 반증이다' 구성으로 쓰여))어떤 사실과 모순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는 사실.

증거(證據) 「명사」 「1」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2」 『법률』 법원이 재판의 기초가 될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료. 인적 증거, 물적 증거, 상황 증거가 있다.

. 현재의 상황에 무언가 문제점이 있다는 반증(→증거)이기 때문이다.(한국일보 2012.6.28.)

. 시즌2가 기획된다는 것은 그만큼 시즌1에서 만들어진 기대감이 크다는 반증이다(→증거다).(엔터미디어 2012.6.30.)

. 영상 속 임재범은 '신이 내린 음악성'을 반증(→증명)하듯 건반 연주에 맞춰 특정한 가사 없이도 즉흥적으로 자신의 느낌만으로 표현된 가이드송을 만들어 냈으며, 소름 끼치는 라이브를 선보여 네티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스타저널 2012.5.24.)

. aT는 경기 둔화로 유흥을 위한 소비가 큰 폭 감소했음을 반증(→증명)한다고 설명했다.(헤럴드경제 2012.6.28.) *aT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말함

. 일본과 미국 정부의 신속한 반응은 한.미.일 3개국이 군사정보 교환과 공유 체제를 갖추기 위해 관련 작업을 지속해 왔다는 반증으로(→증거로) 보인다.(미디어오늘 2012.6.28.)

. JYJ 김준수, 첫 솔로앨범 'XIA' 일본서 1위 싹쓸이 '인기 반증(→증명)'(조

선일보 2012.5.18.)

<접수(接受), 제출(提出)>

→'접수'와 '제출'은 행위자에 따라서 구별되는 말이다. '접수'는 서류를 받는 행위이고, '제출'은 서류를 내는 행위이다. 학생은 입학 원서를 내는 사람이므로 원서 제출이라고 해야 하고, 학교는 원서를 받는 행위를 하는 곳이므로 '원서 접수'라고 하게 된다. '원서 접수 시한'도 학교 측의 언어이다. 만일 학생 측의 언어로 바꾼다면 '원서 제출 시한'으로 바꿔야 한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접수(接受)「명사」「1」신청이나 신고 따위를 구두(口頭)나 문서로 받음. 「2」돈이나 물건 따위를 받음.
제출(提出)「명사」문안(文案)이나 의견, 법안(法案) 따위를 냄.
접수(接收)「명사」「1」권력으로써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일방적으로 수용함. 「2」받아서 거둠.

. 874가구 청약에는 1525명이 접수시켜(→신청하여)(매일경제 2012.6.22.)
. 그는 "이 사건 판결과 같이 모욕죄가 성립한다면 국회의원인 제가 개콘 '사마귀유치원'에서 국회의원을 풍자한 최효종을 모욕죄로 고소해도 된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정말 최효종을 모욕죄로 고소라도 해 볼까요……"라고 언급했고, 실제로 고소장을 접수했다(→제출했다).(내일신문 2011.11.18.)
. 공직박람회에 오면 공무원들로부터 직접 안내를 받고 공무원 채용 원서를 접수할(→제출할) 수 있다.(서울신문 2012.5.24.)
. 다음달 6일까지 원서를 접수받아(→받고) 서류심사 등을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게 된다.(한라일보 2012.6.26.)
. 선발인원은 남학생 54명, 여학생 48명 등 총 102명으로 31일까지 원서를 접수받아(→받고) 2월1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중부매일 2011.1.18.)

<승패(勝敗), 성패(成敗)>

→경기에서 이기고 지고는 승패의 문제이고, 일을 이루고 못 이루고는 성패의 문제이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승패(勝敗)「명사」 승리와 패배를 아울러 이르는 말.
성패(成敗)「명사」 성공과 실패를 아울러 이르는 말.

. 비즈니스 승패(→성패)는 30년이면 충분하다.(전자신문 2012.6.27.)
. 이번 합의의 승패(→성패)는 제도적 차원에서 탐사 프로그램의 시급한 복원, 인적 차원에서는 보도본부장의 조속한 교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한겨레21 2012.6.15.)
. 지난 21일 노조 집행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기 전 김재철 사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 같다”며 노조 집행부의 구속 여부에 따라 파업의 승패(→성패)가 좌우될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도 이 같은 의혹에 힘을 싣게 하는 대목이다.(미디어오늘 2012.6.7.)

<글씨, 글자>

→우리말에 접사 ‘-씨’가 붙으면 ‘기술’, ‘상태’의 의미가 첨가된다. ‘솜씨, 마음씨, 날씨’ 등이 그 예이다. 마찬가지로 글씨라고 하면 마땅히 글자를 쓴 모양이나 맵시를 가리키는 것이 옳기 때문에 글자와 글씨를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옳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글씨「명사」 「1」 쓴 글자의 모양. 「2」=글자. 「3」 글자를 쓰는 법. 또는 그런 일.
글-자(-字)「명사」 말을 적는 일정한 체계의 부호.

. 광화문 현판 글씨(→글자) 한글이냐, 한자냐(한국경제 2012.4.17.)
. 글을 아는 지식인들에게 사인은 인장보다 세련된 증명 표시였다. 물론 도난이나 위조로 인장이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 더 결정적 계기이다. 글씨(→글자)를 모르면 사인을 모방하기 쉽지 않았을 테니까.(중앙일보 2011.4.1.)

<껍질, 껍데기>

→껍질과 껍데기는 전문 용어가 아니므로 상식적인 판단에 따라서 딱딱한 정도와 분리 가능성으로 구별할 수 있다. 딱딱하여서 두드려서 깨뜨릴 수

있는 정도의 것은 껍데기라고 하는 편이 맞고, 말랑말랑하며 내용물에 붙어서 쉽게 벗겨지지 않는 것은 껍질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조개, 달걀, 호두 따위의 겉은 껍데기이고 사과, 도토리, 나무 등의 겉은 껍질이라고 한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껍질 「명사」 「1」 딱딱하지 않은 물체의 겉을 싸고 있는 질긴 물질의 켜. 「2」 = 껍데기「3」.
껍데기 「명사」 「1」 달걀이나 조개 따위의 겉을 싸고 있는 단단한 물질. 「2」 알맹이를 빼내고 겉에 남은 물건. 「3」 화투에서, 끗수가 없는 패짝.

. 호두 껍질을(→껍데기를) 단박에 깨뜨려 좌중에 놀라움을 안겼다.(뉴스엔 2012.6.10.)
. 조개는 껍질(→껍데기) 사이로 벌린 틈을 건드렸을 때 즉시 닫으면 신선한 것이다. 껍질을 까서 물에 담가 판매되는 조개는, 비린내가 없는 것을 고른다. 새우, 게 등 갑각류는 껍질이(→껍데기가) 단단하고 빛깔과 광택이 반질반질한 것으로 고른다.(헬스조선 2012.6.18.)
. 날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입맛이 떨어진 산란계가 사료섭취를 꺼려 낳는 계란의 껍질이(→껍데기가) 얇아졌고, 결국 세균에 잘 감염되고 운송 시 파손 비율이 높은 계란이 생산된 것이다.(광주일보 2011.8.16.)

<틀리다, 다르다>

→'틀리다'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틀리다'는 잘못이 있을 때 사용한다. 즉 '맞다'의 반대 개념으로 쓴다. '같다'의 반대 개념으로는 '다르다'를 쓰고, '옳다'의 반대 개념으로는 '그르다'를 쓴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틀리다 [Ⅰ]「동사」「1」【(…을)】셈이나 사실 따위가 그르게 되거나 어긋나다. 「2」바라거나 하려는 일이 순조롭게 되지 못하다. 「3」마음이나 행동 따위가 올바르지 못하고 비뚤어지다. [Ⅱ]「형용사」 →다르다.
다르다 「형용사」「1」【(…과)】(('…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 「2」보통의 것보다 두드러진 데가 있다.
그르다 [Ⅰ]「형용사」 어떤 일이 사리에 맞지 아니한 면이 있다. [Ⅱ]「동사」「1」((흔히 과거 시제에 쓰여))어떤 일이나 형편이 잘못되다. 「2」어떤 상태나 조건

이 좋지 아니하게 되다.

. 영화속 머리카락 유무 '확실히 틀리다(→다르다)'(한국경제 2012.2.1.)
. 소녀시대, 美 진출 '급'이 틀리다(→다르다)…시청률 1위 공중파 토크쇼 출연(세계일보 2012.1.25.)
. 소지섭 '영화 회사원, 영화 아저씨랑 많이 틀리다(→다르다)'(뉴스앤 2012.9.12.)
. 내수수요에 광역수요 더한 분양시장, 미래가치가 틀리다(→다르다)(동아일보 2011.8.19.)
. 이 관계자는 이처럼 과징금 부과 문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을 두고는 "어떤 식으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옳다 틀리다(→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다" 라며 "저마다 판단은 다를 수 있다" 고 덧붙였다.(노컷뉴스 2012.6.27.)

<그리고, 그러고>

→'그리고'는 낱말, 문장을 이어서 나열하는 접속 부사이다. '그리고'의 앞 낱말이나 문장과 뒤 낱말이나 문장은 서로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이에 비해 '그러고'는 '그러다'의 활용형이므로 앞의 동작을 한 뒤에 다음 동작을 하는 경우에 두 동작을 연결하는 경우에 사용하는데 '그렇게 하고'의 의미를 갖는다. 두 동작을 시간의 앞뒤로 연결할 때에는 '그러고'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그리고 나서'라고 쓰면 '그리고'와 '나서'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그리고 「부사」 단어, 구, 절, 문장 따위를 병렬적으로 연결할 때 쓰는 접속 부사.
그러고 '그리하고'가 줄어든 말. '그러다'의 활용형.

. 그리고(→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대선이다.(전북도민일보 2012.6.27.)
. 지난 30년 동안 구단들은 야구발전을 위한 지원과 투자는 흉내만 내고 단물 빨아먹기에만 급급했다. 그리고는(→그러고는) 향후 10년간 고교 20개, 중학교 30개 팀이 더 늘어나고, 인프라가 개선되면 그때 새로운 창단을 고려하겠다니 "우리 말고는 영원히 프로야구 할 생각 하지 말라" 는 소리다.(한국일보 2012.6.20.)
. 하지만 최근 리그 성적이 곤두박질하면서 감독의 요청에 따라 결정을 뒤바

꿨다. 그리고는(→그러고는) 하루 만에 결국 박주영을 대표팀에 보내주기로 했다.(세계일보 2011.11.6.)
.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언론사 파업과 관련해서도 27일 MBC 라디오에 출연, "과거에도 회사 노사분규를 정치인이 부채질해 망하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그리고 나서(→그러고 나서) 책임을 안 지는 것을 저희가 반복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한국경제 2012.6.27.)

<임산부(姙産婦), 임신부(姙娠婦)>

→아이를 밴 여자와 아이를 갓 낳은 여자를 아울러 사용할 때에만 임산부라는 말을 쓴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임-산부(妊産婦) 「명사」 임부와 산부를 아울러 이르는 말.
임신-부(妊娠婦) 「명사」 =임부(妊婦).
임부(妊婦) 「명사」 아이를 밴 여자. ≒임신부(姙娠婦)
산부(産婦) 「명사」 =산모(産母)
산모(産母) 「명사」 아기를 갓 낳은 여자. ≒산부(産婦)

. 다(多)태아 임산부(→임신부)에게는 임신출산진료비가 20만원 추가지원 되며(조선일보 2012.6.29.)
. 임신기간 동안 차(茶)를 많이 마시면 선천성 결손아를 출산할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차를 많이 마신 임산부(→임신부)가 출산한 아기들 가운데 이분척추증이 나타난 빈도가 높았다는 것.(약업신문 2012.6.27.)
. 10일 경찰이 밝힌 교통사고 자해공갈단에 6세 여아는 물론 출산을 눈앞에 둔 만삭의 임산부(→임신부)도 끼어 있어 혀를 내두르게 했다. 경찰은 이들이 쉽게 돈을 벌기 위해 뱃속의 아이는 물론 어린 조카까지 동원했다고 설명했다.(동아일보 2012.7. 10)
. 서해해경청은 10일 오전 6시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에서 복통을 호소하던 임산부(→임신부) 이모(31·여)씨를 헬기를 이용해 목포의 한 병원으로 후송했다.(중앙일보 2012.7.10.)
. "배부른 거 안 보여요?" 뻔뻔한 임산부(→임신부) 뭇매… 기차 자리양보 강요 창피당한 여대생 인터넷 호소(국민일보 2012.10.17.)

<결제(決濟), 결재(決裁)>

→'결제'와 '결재'는 소리로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글자의 형태로 구별해야 한다. '결제'는 '일을 끝냄'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거래를 끝냄'의 뜻이고, '결재'는 '(윗사람이) 결정하여 승인함'의 뜻이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결제(決濟)[-쩨] 「명사」 「1」 일을 처리하여 끝을 냄. 「2」 『경제』 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끝맺는 일.
결제-하다(決濟--) 「동사」 「1」 일을 처리하여 끝을 내다. 「2」 『경제』 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끝맺다.
결재(決裁) 「명사」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함. '재가04(裁可)'로 순화.
결재-하다(決裁--) 「동사」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하다.

.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친필로 이 문서를 결제(→결재)했다.(한국일보 2012.2.1.)
. 4일 오전 서울 강동세무서에서 '제4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1일 명예 민원봉사실장으로 위촉된 이민영이 결제서류(→결재 서류)를 바라보고 있다.(서울신문 2012.3.4.)
. 제주신라호텔이 패키지 상품을 현대카드로 결재(→결제)하면 상품권과 렌트카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펼친다.(세계일보 2012.1.26.)
. 취득한 차량과 관련하여 유류비나 차량수리비 등을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재(→결제)하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대상 지출액으로 처리할 수 있다.(중앙일보 2012.10.19.)
. 고객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전소를 설치(3개소)하고, 물품구입시 카드결재(→결제)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연합뉴스 2012.10.17.)

<첫 번째, 첫째>

→여럿을 차례대로 가리킬 때 맨 처음 것이 첫째이다. 이에 비해서 횟수를 나타내는 경우에 맨 처음 회가 첫 번째이다. 몇 가지 종류가 있을 때 이를 나열하려면 첫째, 둘째, 셋째로 나열해야 한다. 여러 번 한 일을 하나씩 나열할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열한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첫째: 위치, 중요도 차례 중에서 맨 처음 차례.
첫 번째: 여러 번 중에서 맨 처음 번.

. 한강대교 남단 첫 번째(→첫째) 아치 난간 위로 올라갔다.(서울신문 2011.5.19.)
. 유뇨증은 여아보다는 남아에서 흔히 나타나며 첫 번째(→첫째) 아이, 스트레스가 많은 아이에게서 빈번하게 나타나며 주간 유뇨증의 경우에는 여아에서 더 많이 나타나기도 한다.(대전일보 2012.6.17.)
. 노승주는 나와 절친한 김동건 아나운서를 깍듯하게 형님으로 부르며 가까이 지내고 있었다. 나와도 형·동생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사이였다. 어느날 첫 번째(→첫째) 아이 돌잔치한다는 전화가 걸려왔다.(일간스포츠 2011.8.24.)
. 이번 앨범은 콘서트의 구성으로 만든 것이 특징이며 첫 번째(→첫째) 트랙의 '프레이어'는 그레고리 성가 같은 이색적이면서도 엄숙한 느낌을 허밍으로 표현했다.(스포츠동아 2012.10.19.)

<곤욕(困辱), 곤혹(困惑)>

→'곤혹'은 당황스러움을 느끼는 것이고, '곤욕'은 욕을 당하거나 겪는 것이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곤혹(困惑)「명사」곤란한 일을 당하여 어찌할 바를 모름.
곤욕(困辱)「명사」심한 모욕. 또는 참기 힘든 일.

. 강풍이 불어 선수들을 곤욕(→곤혹)스럽게 했다.(중앙일보 2012.6.2.)
. 설 명절을 앞두고 배송 물량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도로명 주소에 익숙하지 않은 우체국 집배원과 택배업체 기사들이 곤혹(→곤욕)을 치르고 있다.(조선일보 2012.1.19.)
. 일설에 의하면 어린이들이 우노에게 "아저씨 야구공에 헤딩하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라며 우노를 곤욕(→곤혹)스럽게 했던 일화도 전해지고 있다.(서울신문 2012.5.17.)
.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3천만 달러(약 333억원)의 사나이' 알렉스 로드리게스(37·뉴욕 양키스)가 경기 도중 관중을 유혹한 사실이 알려져 곤혹(→곤욕)을 치르고 있다.(스포츠서울 2012.10.18.)
. 또 아이배냇은 올해 9~10월 한 달간에 걸쳐 뉴질랜드 농무청,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연구소에 자연방사능을 포함한 방사능 검사

를 의뢰한 결과 기준치 이하로 불검출 판정을 받았다. 같은 나라에서 원료를 수입하는 일동후디스가 세슘 검출로 곤혹(→곤욕)을 치른 것과 다른 부분이다.(이투데이 2012.10.18.)

<갱신(更新), 경신(更新)>

→'갱신'과 '경신'은 같은 한자를 쓰며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를 갖지만 용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대체로 기간이 끝난 효력을 다시 효력이 있게 만드는 경우에는 '갱신'을 사용하고, 기록을 새롭게 작성하는 경우에는 '경신'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기록을 '갱신'했다는 표현과 비자를 '경신'했다는 표현은 다 부적절하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갱신(更新)「명사」「1」=경신(更新)「1」. 「2」『법률』법률관계의 존속 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일. 계약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명시적 갱신과 계약 없이도 인정되는 묵시적 갱신이 있다. 「3」『컴퓨터』기존의 내용을 변동된 사실에 따라 변경·추가·삭제하는 일. '다시 고침'으로 순화.
경신(更新)「명사」「1」이미 있던 것을 고쳐 새롭게 함. '고침'으로 순화. ≒갱신(更新)「1」. 「2」기록경기 따위에서, 종전의 기록을 깨뜨림. 「3」어떤 분야의 종전 최고치나 최저치를 깨뜨림.

. "기록갱신(→경신) 위해 버티기 힘들다" 토로(매일경제 2011.10.23.)
. 씨스타의 '나 혼자'는 美 빌보드 K팝차트 'K팝 핫 100' 차트에서 4월 3주차부터 5월 2주차까지 1위를 휩쓸며 빌보드 K팝차트 단일 앨범 최장 기록을 갱신(→경신)하는 기염을 토했다.(조선일보 2012.5.11.)
. 에드바르 뭉크의 '절규'가 최고가 낙찰 기록을 갱신(→경신)했다.(서울신문 2012.5.3.)

<당기다, 댕기다, 땅기다>

→'당기다'를 쓸 자리에서 '댕기다'나 '땅기다'를 잘못 쓰거나 반대로 '댕기다'를 쓸 자리에 '당기다'를 잘못 쓰기도 한다. 어떤 기자는 '땅기다'를 쓸 자리에 '당기다'를 잘못 쓰기도 한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당기다「동사」 [1]「1」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 저절로 끌리다. 「2」입맛이 돋우

어지다. [2]「1」 물건 따위를 힘을 주어 자기 쪽이나 일정한 방향으로 가까이 오게 하다.「2」 정한 시간이나 기일을 앞으로 옮기거나 줄이다.
댕기다「동사」 불이 옮아 붙다. 또는 그렇게 하다.
땅기다「동사」 몹시 단단하고 팽팽하게 되다.

. 통합의 도화선에 불이 당겨졌다(→댕겨졌다).(전북도민일보 2012.5.2.)
. 이 경우 비대위가 추진중인 총선 물갈이 명분으로 검은돈수뢰자로 낙인을 찍을 수 있으며, 만약에 이들이 공천불투명으로 탈당 할경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척결<물갈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입맛이 댕기는(→당기는) 묘책이다.(민주일보 2012.1.9.)
. 특히 지성피부는 뽀드득한 느낌이 날 때까지 세안을 하면서 필요이상의 수분과 유분이 함께 빠져 나가기 때문에 당기는(→땅기는) 느낌이 더욱 큰데, 올바른 기초케어 방법을 모르는 이들은 세안 후 얼굴이 당긴다고(→땅긴다고) 밀크로션을 사용하거나 유분이 많은 영양크림 사용으로 피부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다.(환경일보 2012.6.27.)
. 최우식 '옥탑방 왕세자' 캐스팅 '꽃미남 신드롬에 불을 당기다(→댕기다)'(한국경제 2012.10.18.)
. 박근혜, 한나라당 쇄신에 불을 당기다(→댕기다)(아주경제 2011.12.19.)
. 한국·일본서 한류 재점화 불을 당기다(→댕기다)(주간한국 2010.8.31.)
. 여자핸드볼, 난적 독일 격파...'우생순' 신화 불 당기다(→댕기다)(조이뉴스 2008.8.11.)

<부분(部分), 부문(部門)>

→부분은 전체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전체의 일부를 나타내는 말이다. 이에 비해서 부문은 한 개념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하위 개념으로 분류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산업을 몇 부문으로 나눠 볼 수 있고, 사회를 몇 부문으로 나눠 설명할 수 있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부분(部分)「명사」 전체를 이루는 작은 범위. 또는 전체를 몇 개로 나눈 것의 하나.
부문(部門)「명사」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거나 나누어 놓은 낱낱의 범위나 부분.

. 신인문학상 시부분(→부문)에 당선돼 시인으로 등단했다.(제민일보 2012.2.26.)
. 업무 중요도에서 다소 낮은 인터넷 서비스 부분(→부문)에 먼저 클라우드

컴퓨팅을 적용해 서비스 안정성을 검증해 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전자신문 2012.6.20.)
. 25일 시장조사업체 GfK의 2010년 가전시장 조사에 따르면, LG전자는 인도네시아 가전시장 10개 부분(→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아시아투데이 2011.3.25.)
. KB국민은행은 20일 최근 급증하는 피싱사이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안서비스 부분(→부문)을 강화했다고 밝혔다.(뉴시스 2012.4.20.)
. 정부는 19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고령화 사회변화에 맞춰 공공부분(→부문) 일자리 총 551건, 11만7000개 일자리의 연령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파이낸셜뉴스 2012. 10.19.)

<유래(由來), 유례(類例)>

→유래는 '생긴 내력'의 의미를 가질 뿐 '예'(例)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비슷한 예'의 뜻으로 쓰는 낱말은 '유례'(類例)이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유례(類例)「명사」 ((주로 없거나 적다는 뜻의 서술어와 함께 쓰여)) 「1」 같거나 비슷한 예. 「2」=전례(前例)「1」.
유래(由來)「명사」 사물이나 일이 생겨남. 또는 그 사물이나 일이 생겨난 바.

. 역사상 유래(→유례)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한국경제 2012.3.9.)
. 용인경전철이 불러온 재정 파탄을 극복하기 위해 경기 용인시가 지자체 역사상 유래(→유례)가 없는 긴축재정에 들어갔기 때문이다.(한국일보 2012.4.25)
. 그는 "비대위 체제라는 세계 정당 역사상 유래(→유례)가 없는 상황이 초래됐는데 당을 운영하셨던 분들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성이랄까 성찰이 없다고 하면 과연 쇄신이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문화일보 2012.1. 10.)
. 지난 1월 이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 '문화재 제자리 찾기' 대표 혜문 스님은 "국보 17호 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등과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졌지만, (일렬로 세워진 것은) 우리나라에서 유래(→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배열이며 거의 모든 일본 신사가 따르는 일본만의 전통이다"라고 했다.(조선일보 2012.5.31.)

. 그 당시 왜 그리도 천한 뱃놈이 되려고 하는 학생이 많았는지 사상 유래(→유례)가 없는 경쟁 속에 같이 갔던 친구들은 우수수 낙엽 떨어지듯 떨어졌다.(매일경제 2003.2.18.)

<일체(一切), 일절(一切)>

→같은 한자어가 달리 쓰이는 경우이다. 일체는 '모두', '다', '전부'의 의미로 쓰이고, 일절은 '아주', '전혀', '절대로'의 뜻으로 쓰인다. 일체는 긍정문에 쓰이고, 일절은 부정문이나 금지문에 쓰인다. 일체는 명사로도 쓰이지만 일절은 부사로만 쓰인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일체(一切) [Ⅰ]「명사」 「1」모든 것. 「2」(('일체로' 꼴로 쓰여)) '전부' 또는 '완전히'의 뜻을 나타내는 말. [Ⅱ]「부사」 「1」모든 것을 다. ¶ 걱정 근심일랑 일체 털어 버리고 자, 즐겁게 술이나 마시자. 「2」→ 일절(一切).
일절(一切)「부사」 아주, 전혀, 절대로의 뜻으로, 흔히 사물을 부인하거나 행위를 금지할 때에 쓰는 말.

. 이민호에 대한 언급은 일체(→일절) 하지 않았다.(스포츠경향 2011.10.5.)
. 일본 언론에 따르면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로서 원자력을 군사적으로 전용한다는 생각은 일체(→일절) 갖고 있지 않다"며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하는 데에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매일경제 2012.6.21.)
. 이어 "김성수는 A 씨에게 집 밖으로 나가라고 밀기만 했을 뿐 현관에서 허리를 밟았다는 등의 폭행 사실은 일체(→일절) 없었다"고 해명했다.(서울신문 2011.11.5.)

<임대(賃貸), 임차(賃借)>

→물건을 빌린 사람은 임차했다고 하고, 그것을 빌려준 사람은 임대했다고 한다. 내가 빌린 사람이라면 '내가 임차한' 주택이 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돈은 임차료가 된다. 내가 빌려준 사람이라면 '내가 임대한' 주택이고 거기서 받는 돈은 임대료가 된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임대(賃貸)「명사」 돈을 받고 자기의 물건을 남에게 빌려 줌. 「반」 임차(賃借).

임차(賃借)「명사」 돈을 내고 남의 물건을 빌려 씀. '세냄'으로 순화. 「반」 임대.

. 임대(→임차) 입주민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 업체의 당초 입장이었다.(연합뉴스 2012. 3.14.)
. 중견기업에 다니는 김모(45) 차장은 지난 2009년 판교신도시에 공급된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전용 101㎡의 아파트를 보증금 1억7,000만원, 월 임대료(→임차료) 65만원을 내고 10년간 임대로(→빌려) 사는 조건이다.(서울경제 2012.5.29)

<쫓다, 좇다>

→앞에 가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은 쫓는 행위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지시를 따르는 것은 좇는 행위이다. 신문 언어에서는 주로 '좇다'를 쓸 자리에 '쫓다'를 쓰는 경향이 있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좇다「동사」 「1」 목표, 이상, 행복 따위를 추구하다. 「2」 남의 말이나 뜻을 따르다. 「3」 규칙이나 관습 따위를 지켜서 그대로 하다. 「4」 눈여겨보거나 눈길을 보내다. 「5」 생각을 하나하나 더듬어 가다. 「6」 남의 이론 따위를 따르다.
쫓다「동사」 「1」 어떤 대상을 잡거나 만나기 위하여 뒤를 급히 따르다. 「2」 어떤 자리에서 떠나도록 몰다. 「3」 밀려드는 졸음이나 잡념 따위를 물리치다.

. 이번 '수궁가'에서는 프라이어 연출의 해석에 따라 별주부는 돈과 명예를 쫓는(→좇는) 세속적인 캐릭터로, 토끼는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영리한 영웅으로 그려졌다.(연합뉴스 2011.9.9.)
.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권력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답은 교인들이 나서는 것이다. 권력을 쫓는(→좇는)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에 대해 교인들의 생각은 매우 비판적이다.(노컷뉴스 2011.10.28.)
. 록펠러의 실패 뒤쫓는(→뒤좇는) 與 소장파(조선일보 2011.6.1.)

<한참, 한창>

→일정한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한참'을 쓰고, 무엇이 활발하고 활기참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한창'을 쓴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한-참「명사」 「1」 시간이 상당히 지나는 동안. 「2」 두 역참(驛站) 사이의 거리.
한창 [Ⅰ]「명사」 어떤 일이 가장 활기 있고 왕성하게 일어나는 때. 또는 어떤 상태가 가장 무르익은 때. 어떤 일이 가장 활기 있고 왕성하게 일어나는 때. 또는 어떤 상태가 가장 무르익은 때. [Ⅱ]「부사」 어떤 일이 가장 활기 있고 왕성하게 일어나는 모양. 또는 어떤 상태가 가장 무르익은 모양.

. 한참(→한창) 꽃다운 나이에 '출렁출렁, 울퉁불퉁'(연합뉴스 2009.1.7.)
. 푸시치노는 물론 나라 전체적으로도 한참(→한창) 일할 나이인 35~50세 과학자의 절반 이상이 러시아를 떠났거나 과학계를 떠났다.(서울신문 2011.12.23.)
. 취업박람회장에 가면 젊은이들만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한참(→한창) 일할 나이의 50대 중장년층이 많이 눈에 띈다.(충북일보 2012.2.26.)
. 남자 나이 마흔...한참(→한창) 성장할 나이(오마이뉴스 2012.8.13.)
. 런던 올림픽 개막을 이틀 앞둔 25일 오후(현지 시간) 영국 런던 세인트 제임스 공원에 위치한 비치발리볼 주경기장이 마무리 공사가 한참(→한창) 진행되고 있다.(OSEN 2012.7.26.)
. 한참(→한창) 자랄 나이인데… 보육원 한 끼 밥값 1400원(한국일보 2012.5.22.)
. 서영은 "결혼 6년 만에 드디어 사고가 나서 한참(→한창) 입덧중입니다"(스포츠동아 2012.4.28.)
. 한참(→한창) 마무리 작업 중인 숭례문(뉴시스 2012.6.12.)

<형태(形態), 행태(行態)>

→모양과 관련되면 '형태'를 쓰고, 행위와 관련되면 '행태'를 쓴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형태(形態)「명사」 「1」 사물의 생김새나 모양. 「2」 어떠한 구조나 전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체가 일정하게 갖추고 있는 모양.
행태(行態)「명사」 행동하는 양상.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쓴다.

. '반민주적인 형태(→행태)'라고 비난했다.(머니투데이 2012.5.7.)
.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22일 당원명부 유출사건과 관련해 민주통합당이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치 후진적 형태(→행태)"라고 비판했다.(뉴시스 2012.6.22.)

<용의자(容疑者), 피의자(被疑者)>

→입건하기 전에 단순히 의심을 품을 만한 사람은 용의자이고, 혐의점이 있어서 입건하여 조사를 시작한 사람은 피의자이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피의-자(被疑者)「명사」『법률』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정식으로 입건되었으나,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아니한 사람.
용의-자(容疑者)「명사」『법률』 범죄의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되지는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

. 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파출소에서 달아났던 절도 용의자(→피의자)가 40일만에 붙잡혔다.(노컷뉴스 2012.6.18.)
. 경찰은 현장주변 CCTV를 분석해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후 수배전단을 뿌리고 탐문수사를 진행하던 중 지난 25일 오후 신평동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피의자(→용의자) 박 씨를 검거했다.(사하인터넷뉴스 2012.6.27.)
. 경찰이 일단 남편을 용의자로 지목한 것은 피의자(→용의자) 방에서 사체 가운데 하반신을 발견하고 피의자(→용의자) 몸에 부부 싸움을 하면서 생긴 이빨자국과 딸이 실종신고 하려 하자 피의자(→용의자)가 전기장판 전선을 이용 자살을 시도한 점을 들고 있다. 특히 피해자와 피의자(→용의자)가 주거지에 단둘이 거주했고 방안에서 압수한 칼에 혈흔반응이 있는 점으로 남편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다.(뉴스캔 2012.6.25.)

<돌입(突入)>

→계획에 따라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하는 행위는 돌입한다고 할 수 없다. 갑자기 하는 행위, 줄기차고 강력하게 하는 행위에 한해서 이 말을 쓸 수 있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돌입-하다(突入--)「동사」 ((‘…에’, ‘…으로’ 대신에 ‘…을 향하여’가 쓰이기도 한다)) 세찬 기세로 갑자기 뛰어들다.

. 황우여-非朴 조찬회동..경선룰 논의 돌입(→시작)(연합뉴스 2012.6.15.)
. (YTN)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MBC 김재철 사장 퇴진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와이티엔 2012.6.14.)

. 고양환경에너지시설 정상운영 돌입(→시작)(환경TV 2012.6.14.)
. 신안천일염 우수성 홍보 팸투어 돌입(→시작)(시민일보 2012.6.14.)
. 빅죠 몸무게 273kg, 다이어트 돌입(→시작) "올해 100kg 감량이 목표"(매일신문 2012.6.13.)
. 주원 드디어 '각시탈' 썼다, 신현준 이어 2대 각시탈 활약 돌입(→시작)(뉴스엔 2012.6.14.)
. 윤하, 존박과의 듀엣곡 선공개로 본격적 컴백 돌입(→시작)(마이데일리 2012.6.14.)
. 장근석, 복근 만들기 돌입(→시작) "상의탈의 후 기타연주 할래"(매일경제 2012.6.14.)
. 'K팝스타' 김우성, 김범수 아이비 한솥밥 "데뷔 돌입(→준비)"(뉴스엔 2012.6.22.)

<선열(先烈)>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그러므로 6·25 전쟁에서 공산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싸우다 순국한 군인은 '순국선열'이라고 할 수 없고 '순국 장병'이라고 하여야 옳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순국-선열(殉國先烈)「명사」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윗대의 열사.
열사(烈士)「명사」 나라를 위하여 절의를 굳게 지키며 충성을 다하여 싸운 사람.

. 초연이 쓸고간 계곡, 비목이여~ 그 노래 태어난 화천서 순국선열(→순국 장병) 기립니다(중앙일보 2012.6.5.)

. 순국선열(→순국 장병)의 소중함 배웠어요(뉴시스 2012.7.4.)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6.25전쟁 당시 자신을 바친 국군과 유엔군의 활약을 제대로 알기 위해, 월드피스자유연합이 주최하는 '생명의 항해 6.25전쟁 사진전'을 초청하여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 "순국선열(→순국 장병) 고귀한 희생정신 기리며 달려요"(강원도민일보

2012.6.22.) “6·25전쟁 62돌을 맞아 순국선열(→순국 장병)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대회여서 더욱 의미깊은 마라톤이 될 것 같습니다.” ‘제13회 강원도민달리기 대회’가 오는 23일 춘천을 비롯한 도내 12개 시·군에서 일제히 펼쳐지는 가운데 회원들의 대회 참가와 함께 성공대회를 위해 주관을 맡은 춘천시육상연합회(회장 임백현)는 회원들의 역주에 순국선열(→순국 장병)의 희생정신을 담겠다는 각오다.

(2) 낱말 사용법에 맞게 쓰기

<여부(與否)>

→‘여부’의 앞에는 일방의 의미를 갖는 명사가 오는 것이 정상이다. 사실 여부, 생존 여부, 실행 여부, 준비 여부 등처럼 쓰는 것이 옳다. 양방의 의미가 있는 생사, 성패, 존부 같은 명사 뒤에는 여부를 쓰지 않는다. 또 ‘어떻게 할지 여부’처럼 이미 일방으로 기울어진 상태의 표현 뒤에는 여부를 쓰기 어렵다. ‘어떻게 할지 말지’처럼 써야 제격이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여부(與否)「명사」 「1」그러함과 그러하지 아니함. 「2」((주로 ‘있다’, ‘없다’와 함께 쓰여))틀리거나 의심할 여지.

. 이와 관련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구글이 온라인 산업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남용 여부/남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전반적인 조사를 준비 중이다.(매일경제 2011.6.25.)

. 이어 “대회를 완전히 취소할지, 연기할지 여부에 대해서는(→연기할지는) 일본 빙상연맹과 더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경향신문 2011.3.15.)

. 서구청의 100억원 규모 마을재생프로젝트가 순항할 지 여부(→순항할지)는 오는 10월 국비지원 규모가 확정돼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영남일보 2012.6.27)

. 정몽준 전 대표, 이재오 의원, 김문수 경기지사 등 ‘비박 3인방’의 경선 불출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탈당이 현실화될 지 여부(→현실화할지)가 최대 관심사다.(대전일보 2012.6.26)

. 건설노조의 파업을 대비해서는 공정별로 대체공정을 진행할 수 있는 지 여부(→있는지)를 확인했다.(조선비즈 2012.6.25)

<애환(哀歡)>

→애환은 기쁨과 슬픔을 아우르는 낱말이므로 이에 맞춰 서술어를 사용해야 한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애환(哀歡)「명사」 슬픔과 기쁨을 아울러 이르는 말. ≒비환02(悲歡).

. 1919년 개업한 부산의 내호냉면은 6·25전쟁 때 피란 온 실향민의 애환(→아픔)을 위로하던 곳이고, 1924년 문을 연 울산의 함양집은 4대째 비빔밥을 만들고 있다.(조선일보 2012.7.12.)

. 해학적 춤으로 서민 애환(→아픔) 달래주던 '시대의 예인'(서울경제 2012.7.9.)

. "보이는 라디오로 풍물시장 상인 애환(→슬픔) 달래요"(한겨레 2010.4.28.)

. 삶의 애환(→아픔)을 달래주는 노래, 민요(머니투데이 2009.7.24.)

. 강동윤의 실체를 알고 부리나케 투표소로 달려간 시민들이 보여준 소름 돋는 명장면. 현실에 찌든 평범한 소시민들의 애환(→아픔)을 달래주기보다 국민들의 현명한 각성을 택한 <추적자>의 용감한 선택은 드라마를 넘어선 시대의 전설이 되었다.(오마이뉴스 2012.7.11.)

. 또한 피란민들의 애환(→아픔)을 달래주는 생존의 거리이자, 그 난리통에도 소박한 문화를 즐겼던 문화의 거리이기도 하다.(서울신문 2012.6.26.)

<사사하다(師事-)>

→낱말 안에 섬긴다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목적어를 취하여야 하므로 목적격 조사를 사용해야 한다. 또 '사사받다' 같은 어법은 옳지 않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사사-하다(師事--)「동사」 (('…에게서' 대신에 '…에게'가 쓰이기도 한다)) 스승으로 섬기다. 또는 스승으로 삼고 가르침을 받다.

. LG 임찬규, 봉중근에게 사사받은(→에게서 배운) 비기는?(스포츠조선 2012.1.31.)

. '터치', 박재범 안무가 앤드류에 사사받은(→에게서 배운/전수한) 춤 공개(일간스포츠 2012.1.27.)

. '뱀검' 연정훈, 데뷔12년만 액션도전 "이소룡 제자에 사사했다(→에게서 배

웠다)"(마이데일리 2011.9.30.) 연정훈은 민태연 역을 소화하기 위해 이소룡의 제자로부터 절권도 액션을 사사받았다(→배웠다).

. 이미 공연은 선배 가수 김장훈에게 사사받은(→에게서 배운) 그는 YG엔터테인먼트로 들어가 또 다른 공부에 들어갔다.(아주경제 2012.7.17.)

.존박 발레, 박소현 직접 사사한(→박소현에게서 배운) 춤사위 공개 '김태원 MC 잘하네'(뉴스엔 2012.3.9.) 존박은 머뭇했지만 박소현에게 사사받은(→에게서 배운) 유려한 동작으로 녹화장의 시선을 한몸에 받아냈다. 이날 김태원을 비롯한 진행자들은 선이 아름답다며 박수를 보냈다.

<유명세(有名稅)>

→이 낱말은 유명해진 것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는 것을 세금에 빗댄 것이다. 그러므로 세금을 내는 것처럼 유명세도 치르는 것이지 이것을 즐겁고 기쁜 것처럼 생각할 수는 없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유명-세(有名稅)「명사」 세상에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탓으로 당하는 불편이나 곤욕을 속되게 이르는 말.

. 충남 서부의 최고 명산인 오서산(791m)과 명대계곡으로 이루어지는 오서산자연휴양림은 산정상의 억새평원으로도 유명세를 얻고(→유명해지고) 있다.(조선일보 2012.10.22.)

. 이에 대구 지역에 위치한 '굿마미'(http://goodmommy.kr) 산후도우미업체는 임산부들의 산후도우미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주는 파견업체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산후 전문 케어사가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산후 회복을 도와주는 릴렉싱 맛사지와 흩어진 몸매를 빠른 시일에 만들어 주는 S라인 전문 케어사 파견으로도 유명세를 타고(→유명해지고) 있다.(동아일보 2012.10.23.)

. '007' 다니엘 크레이그, "유명세로(→유명해져) 삶이 풍성해졌다". 이날 다니엘 크레이그는 "007 촬영을 하면서 살이 많이 찐 부분이 없지않아 있다"면서도 "촬영하며 삶이 풍성해졌다. 유명세로 인해(→유명해져) 일상생활 불편한 점도 있지만 미미하다. 배우로서 성장했을 뿐 아니라 영화 업계 최고의 배우들과 일할 수 있다는 게 내가 얻은 큰 기회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마이데일리 2012.10.22.)

. 한편 재희는 1997년 MBC '산'으로 데뷔해 KBS2 '쾌걸춘향'을 통해 유명

세를 타기(→유명해지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MBC 주말드라마 '메이퀸'에서 열연 중이다.(서울신문 2012.10.23.)
. 지난 2010년 출범한 창의자문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스타 펀드매니저 출신인 서 대표와 리서치 업계에서 '족집게'로 유명세를 떨친(→유명해진) 김영익 부사장의 명성을 업고 1조원이 넘는 투자금을 유치해 투자자문 업계에 자리를 잡았다.(아시아투데이 2012.10.23.)
. 옆집 아저씨 같은 '주중 美대사 로크' 中스타로 부상, 유명세 타고(→유명해져) '세일즈 외교'도 성과(서울경제 2012.10.22.)

<같은 경우>

→이 말은 두 사물을 비교하여 다른지 다르지 않은지 판단한 결과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니 꼭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 생각만을 말하거나, 특정한 사물만을 가리킬 때에는 이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같다 「형용사」 [1] 【(…과)】 (('…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 서로 다르지 않고 하나이다.
[2] 【…과】 (('…과' 성분은 주로 '과'가 생략된 단독형으로 쓰인다)) 「1」 다른 것과 비교하여 그것과 다르지 않다. 「2」 (('같은' 꼴로 체언 뒤에 쓰여))그런 부류에 속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
[3]((선행 명사는 단독형으로만 쓰인다)) 「1」 (('같으면' 꼴로 쓰여))'-라면'의 뜻을 나타내는 말. 「2」 (('같은' 꼴로 동일 명사 사이에 쓰여))'기준에 합당한'의 뜻을 나타내는 말. 「3」 (('같아서(는)' 꼴로 '마음', '생각' 따위의 명사 뒤에 쓰여))'지금의 마음이나 형편에 따르자면'의 뜻으로 쓰여 실제로는 그렇지 못함을 나타내는 말. 「4」 (('같아서는' 꼴로 일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쓰여))'그 시간에 벌어진 일이나 상황 따위가 계속된다면'의 뜻으로 쓰여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내는 말. 「5」 (('같으니(라고)' 꼴로 욕하는 말 뒤에 쓰여))혼잣말로 남을 욕할 때, 그 말과 다름없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
[4](('-ㄴ/는 것', '-ㄹ/을 것' 뒤에 쓰여)) 추측, 불확실한 단정을 나타내는 말.

. 선박 회사 STX그룹 같은 경우에도(→STX그룹도) 연료의 약 50% 정도가 덜 드는 친환경 선박을 개발했다.(한국경제 2012.6.29.)
. 그러나, 위 환자와 같은 경우(→환자는) 신체구조의 손상을 진단하는 영상검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한의학에서는 어혈에 의한 증상으로 진단해 볼 수 있다.(대전일보 2012.6.24.)
. 충청과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남부지방은) 일요일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

겠습니다.(MBC뉴스 2012.6.26.)

. 젊은 층이 많이 다니는 서울 신촌로터리 같은 곳의 경우(→신촌로터리는)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 현수막은 남아 있지만 새누리당 현수막은 찢겨 나가는 일도 생기고 있다.(조선일보 2012.10.31.)

. “암벽화는 자기 발 사이즈보다 좀 작게 신어야 돼요. 발가락을 한 곳에 딱 모아야 힘을 잘 실을 수가 있고 암벽의 미세한 부분을 디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저는) 보통 신발은 225㎜에서 230㎜ 정도를 신는데 암벽화는 205㎜를 신어요. 발가락이 완전히 구부러진 상태에서 암벽을 올라야 하기 때문이죠.”(중앙일보 2012.10.31.)

3. 문장 바르게 쓰기

신문 문장은 문장 구성을 정확하게 곧, 문법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문법에 맞지 않은 문장은 의미를 오해하게 만들거나 이해를 어렵게 하고 독자의 언어생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신문은 조사, 어미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

(1) 조사, 어미, 접사 바르게 쓰기

(가) 조사

<'은/는', '이/가'>

→주격조사 '이/가' 대신에 보조사 '은/는'을 주격조사로 쓰려면 아래와 같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1) 비교나 대조: 다른 것과 이것을 비교하거나 대조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와 구별하기 위해서도 '은'을 사용한다. (예: 기분은 그리 좋지 않다. 이 기계에는 이런 기능은 없다. 매출은 줄었지만 이익은 그리 줄지 않았다.)
(2) 설명: 정의하거나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주어가 전 문장을 주관하기 때문에 서술어를 이에 걸맞게 사용해야 한다. (예: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 주유소업계 관계자는 "당분간 가격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기름값 상승에 따른 차량 운행 자체 영향으로 매출은(→매출이) 줄면서 주유소들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제주일보 2011.8.3.)
. 과점 업계의 오랜 문제점을 눈감아 준다면 정부에 시장감독 기능은(→기능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동아일보 2011.4.26.)
. 500m쯤 떨어져서 사는 두 사람은(→사람이) 서로 만나는 것을 꺼리고 대화도 나누지 않기 때문이다.(조선일보 2011.4.15.)
. 이렇게 누적된 핵연료는(→핵연료가) 방사능 오염수를 통해 건물 지하나 해양으로 유출되면 대규모 재앙으로 연결될 수 있다.(매일경제 2011.5.14.)
. 1년 새 얼굴은(→얼굴이) 많이 바뀌었다. 그러나 경쟁은 여전히 뜨겁다.(경향신문 2011.5.12.)

. 왕복 2차선인 이 도로는 착시현상을 체험할 수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그러나 안내문은(→안내문이) 한쪽에만 설치돼 있어 관광객들은 무단으로 도로를 유턴하거나 역주행까지 하는 실정이라고 한다.(제주일보 2011.8.5.)

.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 재즈 뮤지션으로 활동하는 출연진들은(→출연진들이) 독특하고 매력적인 음색으로 국내 재즈팬들을 매료시킬 것으로 보이는 2011 칠포국제재즈페스티벌은 화려한 공간디자인으로 객석의 감동을 극대화한 무대와 유열의 사회로 한층 돋보이는 공연이 될 전망이다.(경북일보 2011.8.16.)

. 이처럼 상가 공급은(→공급이) 늘어나고 분양가도 올랐지만 상가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영업자 수는 2002년 619만명에서 2009년 571만명으로 급감했다.(매일경제 2012.4.25.)

. 김 여사는 공주궁에서 하야 공주와 환담하면서 "한국이(→한국은) 동계 스포츠의 발전과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의 '내조외교'를 펼쳤다.(동아일보 2011.3.15.)

<까지, 마저, 조차>

→범위에 이미 포함된 것 외에 다른 것을 더 포함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보조사로서 모두 보조사 '도'의 기능을 하는데, '까지'는 포함되는 것의 최후 한계를 나타내고, '마저'는 마지막 남은 것이 포함됨을 나타내며, '조차'는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것이 포함됨을 나타낸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까지 「조사」((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 「1」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되는 범위의 끝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흔히 앞에는 시작을 나타내는 '부터'나 출발을 나타내는 '에서'가 와서 짝을 이룬다. 「2」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3」 그것이 극단적인 경우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마저 「조사」((체언 뒤에 붙어))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하나 남은 마지막임을 나타낸다.

조차 「조사」((흔히 체언 뒤에 붙어))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극단의 경우까지 양보하여 포함함을 나타낸다.

.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인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연루된 인물들은 알량한 자존심과 명예조차(→명예심이나마) 있는지.(부산일보 2011.6.17.)

. “원전 복구작업이 지연되면서 300km 이상 떨어진 수도권 지역도(→지역까지) 오염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매일경제 2011.5.14.)
. 낸드플래시 시장 규모가 더욱 커진 것은 최근 1~2년 사이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수요가 늘어난데다 공급 차질마저(→차질까지)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한겨레신문신문 2011.4.1)
. 전문적인 해커에 의한 해킹으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휴대전화 번호가(→번호까지) 유출됐다.(서울신문 2011.4.)

<에/에서/에게/에게서>

→‘에’는 장소에 접근하는 행동에 쓰고, ‘에서’는 장소 안의 행동 또는 장소를 벗어나는 행동에 쓴다. ‘에게서’는 ‘에서’와 같은 용법으로 쓰이지만 출발점이 장소가 아니라 사람(동물 포함)인 경우에 쓴다. ‘에게’는 ‘에’와 같은 용법으로 쓰이지만 접근하는 곳이 장소가 아닌 사람(동물 포함)인 경우에 쓴다.

. 연구팀은 생포한 자리돔 치어의 유전자(DNA)를 제주도 해역 자리돔과 비교 분석해 제주 해역 자리돔과 비교 분석해 국제학회에(→국제학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제주일보 2011.10.27.)
. 남경필·구상찬·김성식·정태근 의원 등 수도권 의원들은 1일 저녁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음식점에) 모여 …… 원내대표에 출마한 황우여, 이주영 의원의 단일화를 촉구하기로 결의했다.(한겨레신문 2011.5.2.)
. 이런 은폐 덕분에 보통 일본인은 전쟁에(→전쟁에서) 질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았다.(조선일보 2011.6.23.)
.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대선자금과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기업들에(→기업들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경향신문 2012.7.18.)
. 맹꽁이에(→맹꽁이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제주일보 2011.8.1.)
. 경주에는(→경주에서는) 지금 세계문화엑스포가 열리고 있다.(경북일보 2011.8.19.)
. 차우찬은 올해 선발로도 SK와 4경기에(→4경기에서) 1승1패 평균자책점 2.39의 빼어난 기록을 남겼다.(제주일보 2011.10.30.)
. 그러나 우리나라엔(→우리나라에서는) 일본 ‘롯폰기 힐스’처럼 성공적인 복합개발 사례를 찾기 힘들다.(조선일보 2011.6.1.)

.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현장에서) 건설 폐기물을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인근 지역에 불법 매립한 의혹을 받고 있는 포스코건설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경북일보 2011.8.19.)
. 이런 은폐 덕분에 보통 일본인은 전쟁에(→전쟁에서) 질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았다.(조선일보 2011.6.23.)
. 미테랑 대통령의 친구인 뒤마가 해외출장을 가면 그녀도 은밀히 따라붙었다. 자신의 스위트룸에(→스위트룸에서) 파티를 열고 뒤마를 초대했다.(조선일보 2011.3.28.)
. '광화문 연가'에 이문세가 없고, '맘마미아'에 아바가 안 나오는 것처럼 '스트릿 라이프'에서도(→스트릿 라이프에도) DJ DOC가 직접 등장하지는 않는다.(조선일보 2011.6.23.)
. LG는 이틀 전 잠실 홈경기에서 디펜딩 챔피언 SK에(→SK에게) 6-5 역전승을 거둔 데 이어 이날 천적 류현진마저 꺾으며 의미 있는 초반 2연승을 거뒀다.(중앙일보 2011.4.9.)
. '삼국유사 속으로' 존에는(→존에서는) 미추왕의 군대, 분황사 우물의 용신, 소지왕의 사금갑 설화, 원효대사와 해골 이야기가(→이야기를) LED영상과 3면 프로젝터 영상, 편광 3D 입체영상으로 만나게 된다.(경북일보 2011.8.17.)
.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6명이 지난 25일 '후쿠오카대 학생의 부모'라고 밝힌 일본인에게(→일본인에게서) '인천시의회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메일을 받았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대 운영 전반을 심의·감독하는 조직이다.(조선일보 2012.10.30.)

(나) 어미

<-ㄴ다, -다>

→동사의 서술형 종결어미는 '-ㄴ다(간다, 웃는다, 웃긴다, 넘는다)'이고, 형용사의 서술형 종결어미는 '-다(기쁘다, 좋다, 넓다, 높다)'이다. 아래 예문에서 사용된 '웃기다'는 동사이므로 문장의 종결어미로는 '웃긴다'라고 해야 한다. 물론 제목으로 '웃기다'를 쓸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웃겼다'를 쓸 자리에 강조 용법으로 쓰는 것이다. "싸이, 전 세계를 웃기다!"처럼 쓸 수 있다.

. 리무진의 치명적 단점 '폭소', "웃으면 안 되지만 웃기다(→웃긴다/우습

다)!"(동아닷컴 도깨비뉴스 2012.4.11.)
. 또 거론되는 인물 중 강호동에 대해서는 "탈세라는 죄를 진 인물이 총선에 투입된다는 발상 자체가 웃기다(→웃긴다/우습다)"는 의견들도 잇따르고 있다.(프로슈머 2011.11.14.)
. 방송을 접한 누리꾼들은 "하하 기습뽀뽀에 유재석 멘붕했네", "유재석, 하하 기습뽀뽀에 당황했겠다", "하하 기습뽀뽀 후 유재석과 어색한 모습 웃기다(→웃긴다/우습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경기일보 2012.6.25.)
. 이를 본 네티즌들은 "5교시의 위력 공감 100%", "5교시의 위력 완전 웃기다(→웃긴다)", "5교시의 위력 대단하지~ 게다가 물리시간? 시간표 너무 잔인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동아닷컴 도깨비뉴스 2012.6.25.)
. "개그보다 웃기다(→웃긴다/우습다)" 등 반응도 각양각색이었다.(한국일보 2012.5.14.)
.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박지민 과자 흡입 너무 웃기다(→웃긴다/우습다)", "귀엽다~", "박지민 과자 흡입 상상이 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동아일보 2012. 11.1.)

<-는, -은>

→관형사형 어미 '-는'과 '-은'은 동사와 형용사에 따라서 다른 기능을 한다. 동사에 붙은 어미 '-는'과 '-은'은 시제와 관련이 있다. '-는'은 현재형, '-은'은 과거형 어미로 쓰인다. 그러나 형용사에 붙는 관형사형 어미로는 '-은'과 '-ㄴ'뿐이다. 어간의 끝 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은'이 붙고(예: 좋은, 붉은) 받침이 없으면 '-ㄴ'이 붙는다(예: 푸른, 큰). 흔히 문제가 되는 '알맞다'와 '걸맞다'는 형용사이므로 관형사형을 쓸 때는 '알맞은'과 '걸맞은'으로 써야 한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알-맞다「형용사」 일정한 기준, 조건, 정도 따위에 넘치거나 모자라지 아니한 데가 있다.
걸-맞다「형용사」 두 편을 견주어 볼 때 서로 어울릴 만큼 비슷하다.

. 특히 배낭은 크기에 따라 무게도 다르다. 오르려는 산의 높이와 자신의 체형을 고려해 알맞는(→알맞은) 배낭을 골라야 한다.(중앙일보 2012.9.13.)
. "솔직히 부담이 많다. 내가 첫 번째 케이스라 더 그렇다. 인정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인정을 받지 못하면 상심이 클 것 같다. 구단이 좋은 기회를 좋으

니 그에 걸맞는(→걸맞은) 대우를 받고 나가고 싶다. 이번 주중에 결론이 날 것 같다."(중앙일보 2012.11.5.)
. 어찌됐든 뉴욕 닉스에서 단박에 주전 자리로 뛰고 있으니 그에 걸맞는(→걸맞은) 대우는 어쩌면 당연한 일.(동아닷컴 2012.3.22.)
. 이와중에 '무신'에 또 다른 극찬이 들려오고 있다. 바로 배경에 깔리는 음악이 그것. 적재적소의 상황에 알맞는(→알맞은) 경음악의 향연은 부담스럽거나 거부감 없이 극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많은 시청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뉴스엔 2012.3.1.)

<-면서, -며>

→'-면서'를 신문에서는 좀 이상하게 쓰고 있다. '-면서'는 앞의 행동이 진행되는 동안에 뒤의 행동이 시작하여 두 행동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면서 「어미」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ㄹ' 받침인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1」 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이나 사태 따위가 동시에 겸하여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2」 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이나 사태가 서로 맞서는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며 「어미」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용언 어간, 'ㄹ' 받침인 용언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1」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나 상태 따위를 나열할 때 쓰는 연결 어미. 「2」 =-면서「1」.

.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접어들었으므로) 질병과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확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서울신문 2011.5.19.)
. 수산물 코너는 최고 인기 상품인 방어가 코요시장 개장 기념 특별 할인가격으로 판매되면서(→판매되니)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제주일보 2011.10.31.)
.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하면서(→인수할 때) 현대상선 지분 7.7%도 함께 딸려갔기 때문이다.(매일경제신문 2011.10.20.)
. 1970년대부터 마을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며(→떠나) 사용자는 더 빨리 줄었다.(조선일보 2011.4.15.)

(다) 접사

<-시키다>

→신문 언어에서는 이 접사를 무의미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주어가 상대에게 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주어가 직접 하는 행위인데도 이 접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시키다 「접사」 ((서술성을 가지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사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 복지부는 또 건보료의 평균 상한선을 현행 24배 수준에서 30배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이번 개정 작업에 포함시킬(→포함할) 전망이다.(매일경제 2011.4.25.)
. 교통약자 배려를 위해서는 버스, 택시, 화물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교통약자 배려 운동을 범국민 운동으로 확대시켜야(→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헤럴드경제 2012.4.15.)
. 국회 전문성 강화방안과 관련, 이인실 교수는 "국회의원당 7명의 보좌진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고 보좌관의 신분이 불안정한데다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다(→하다) 보니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서 "국회가 일할만한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차원에서 보좌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2012.7.5.)
. 이에 대해 그동안 변호사나 교수 등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이익 활동을 하는 사례들이 소개되는 등 국회의원 겸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면서 지방의원들도 공적인 영역을 포함한 모든 영리행위를 금지시켜야(→금지해야/못 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금강일보 2012.6.12.)

(라) 직접 인용문의 종결어미와 인용 조사

→직접 인용문은 큰따옴표로 표시하여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따온 것임을 나타낸다. 이 경우 높임법을 제대로 인용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 우리말은 높임법이 발달해 있지만 신문에서는 직접 인용할 때에 높임법을 살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공적인 내용을 전하는 것이라면 양해할 수도 있지만 사적으로 사과하는 표현인 경우에는 곤란해질 수 있다. 특히 주어와 서술어에 높임이 일치하지 않게 되면 문장 구성에도 문제가 생긴

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말을 직접 인용할 때에는 종결어미까지 정확하게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 손석희는 1시간 정도가 지난 7시 15분 3부부터 마이크를 넘겨받았으며 “오늘 제가 좀 늦었다(→늦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린다(→부탁드립니다)”라고 지각에 대한 사과를 한 뒤 방송을 재개했다.(중부일보 2012.10.30.)(설명: 주어 ‘제가’와 서술어 ‘늦었다’, ‘부탁드린다’와 높임의 일치가 안 되었다.)

. 이후 손석희 교수는 3부부터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손석희 교수는 “제가 좀 늦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는(→라는) 사과와 함께 평상시와 다름없이 방송을 이어갔다.(매일경제 2012.10.30.)(설명: 이 신문은 종결어미를 정확하게 인용했다. 그런데 인용 조사는 잘못 썼다.)

. 박세영은 “항상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인데, 저에게는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신의’는 제게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작품이다(→작품입니다)”며(→라며) “사극에 도전하면서 어렵기도 했지만 훌륭한 감독님, 선배님, 그리고 스태프 분들과 1회부터 24회까지 온전히 함께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다(→성장했습니다). ‘신의’와 공민-노국 커플을 아껴주신 분들께 사랑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싶습니다)”라고 종영 소감을 밝혔다.(스포츠월드 2012.10.31.)(설명: 실제로는 ‘작품입니다’, ‘성장했습니다’, ‘싶습니다’처럼 말하지 않고 구어체로 ‘-어요’를 사용했다면 그대로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 31일 김민준은 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노출 동영상과 관련해 “제가 맞다(→맞습니다). 잘못한 게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변명하고 싶지는 않다(→않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싶다(→싶습니다)”고(→라고) 밝혔습니다.(헤럴드경제 2011.10.31.)

. 전날 염홍철 대전시장과 만나 오간 얘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어제 제가 뵙자고 했다(→했습니다). 오후에 만났는데 결심내용을 말씀 드렸다(→드렸습니다). 고뇌 끝에 이런 결단했다 말씀 드렸더니 처음에 난감해 하시더라(→하셨어요). 제 입장을 고려해 달라 했고 향후에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힘을 합친다든가 역할이 있을 것이라 본다(→봅니다). 서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나갈 것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아쉽게 생각하시더라(→생각하셨습니다)"고(→라고) 전했다.(브레이크뉴스 2012.10.30.)

. 이 학부모는 "앞으로 보다 나은 교류를 위해, 인천대를 위해,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해 이 문제를 유야무야하지 말고 진상을 밝혀 재발하지 않도록 해 달라(→해주세요)"고(→라고) 시의회에 요구했다.(조선일보 2012.10.30.)

. 본격적인 녹화에 앞서 강호동은 "방송 녹화를 앞두고 설레기도 하고 무대 위에서 잘해낼 수 있을까 걱정도 되지만 그 모든 것이 너무나 그리웠다(→그리웠습니다). 공백기를 가지면서 방송으로 인해 시청자 분들에게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마음 속으로 절실히 느꼈던 시간이었다(→시간이었습니다)"고(→라고) 말했다. 이어 "복귀하는 마음보다는 처음 데뷔하는 신인의 자세로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더 사랑받는 방송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하다(→감사합니다)"고(→라고) 말하며 허리 숙여 인사했다.(조선일보 2012.10.29.)
. 김성주 공동선대위원장도 "실망의 정치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을 끊는 유일한 길은 헌정사상 첫 여성대통령을 만들어 맑고 밝은 아름다운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영계 발언'이 논란이 된 데 대해 "회사에서 자주하는 이야기인데 항간에서 성희롱 이야기까지 나왔다"며 "공인이 됐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다(→깨달았습니다). 발언을 조심하겠다(→조심하겠습니다)"며(→라고) 사과했다.(동아일보 2012.10.29.)

(2) 품사별 용법에 맞게 쓰기

<첫>

→'첫'은 관형사이므로 뒤에 동사나 형용사가 올 수 없다. 뒤에 동사나 형용사가 온다면 '첫'을 부사어로 바꿔 '처음으로'를 사용하면 된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첫「관형사」맨 처음의.
처음「명사」 시간적으로나 순서상으로 맨 앞.

. '재스민 혁명'의 진원지인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첫(→처음으로) 실시된 민주선거에서 온건 이슬람주의 정당이 압승한 데다 독재자 카다피가 사살된 리비아에선 새 지도부가 연일 온건 이슬람주의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부산일보 2011.10.26.)
. 오는 7월 말 방영을 앞두고 있는 MBC 새 수목 미니시리즈 '아랑사또전'에서 밀양 지역의 실세인 최대감 집 아들이자 어둡고 차가운 남자 '주왈'역으로 사극에 첫(→처음으로) 도전하는 연우진(Yeon Woo Jin)이 작품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쳐 눈길을 모은다. (톱스타뉴스 2012.6.27.)

. ‘대한민국’ 가슴에 품고 첫(→처음으로) 출전한 64년전 그곳…런던서 애국가 울려라(스포츠동아 2012.6.27.)
. 햇사레 복숭아 첫 출하(충청일보 2012.6.26.) 이천시와 음성군의 대표 농특산물인 ‘햇사레 복숭아’가 25일 첫(→처음으로) 출하됐다.
. 신동규 신임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선임 6일만에 첫(→처음으로) 출근했다. 신 회장은 27일 오전 취임식을 열고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매일경제 2012.6.26.)

<감격해하다, 당황해하다>

→이 낱말들은 동사이므로 동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벌도로 ‘-어 하다’의 형태를 취할 필요가 없다. ‘-어 하다’는 형용사로 동작을 나타낼 때에 사용하는 구문이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감격-하다(感激--)「동사」「1」마음에 깊이 느끼어 크게 감동하다. 「2」고마움을 깊이 느끼다.
당황-하다(唐慌--/唐惶--)「동사」 놀라거나 다급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다.

. 출소 뒤 세상으로 나온 엄마는 동두천의 한 미혼모 시설에서 교도소와 달리 문을 자기 마음대로 열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해하며(→감격하며) 아이와 문닫기 놀이를 한다.(한겨레신문 2011.4.28.)
. 드라마 ‘대장금’과 ‘천국의 계단’ 등 한류 드라마와 영화들이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다. 탈북자 중에는 한국에서 드라마 세트장을 보고 “드라마 ‘천국의 계단’에서 봤다”며 감격해하는(→감격하는) 이들도 있다.(중앙일보 2011.12.11.)
. 김병순 회장은 “제가 아이들을 위해 무대 위에서 광대가 되고, 가수가 되어, 사회를 봅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제가 혼자 원맨쇼를 합니다.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도와주신다니 너무 고맙지요.” 라며 감격해 하자(→감격하자), 그녀는 “제가 광대가 되고, 가수가 되고, 사회를 보겠습니다.” 라고 시원스레 말했다.(충북일보 2012.6.24.)
. 해외 게임업체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러한 조처에 당황해하는(→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한겨레신문 2012.6.26.)
. 술에 취해 돌아온 장수는 청애를 보자마자 그만 눈물을 울컥 흘리고 만다. “우리 같이 집 나갈까?”하는 장수의 말에 청애는 당황해한다(→당황한다).(한국일보 리뷰스타 2012.6.24.)

<꺼려하다→꺼리다>

→'꺼리다'도 동사이므로 '꺼려하다'처럼 사용할 수 없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꺼리다「동사」 [1]사물이나 일 따위가 자신에게 해가 될까 하여 피하거나 싫어하다. [2]개운치 않거나 언짢은 데가 있어 마음에 걸리다.

. "오래 산 주민들은 한양 도성 성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재산권 문제가 걸려 있으니 복원을 꺼려합니다(→꺼립니다)."(문화일보 2012.7.3.)

. 이우형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쉬다 가는 사랑방 같은 공간을 만들고 싶다"며 자신이 바라는 사무실의 모습을 묘사했다. 그의 이상이 실현 될 수 있다면 법과 관련되길 꺼려하다(→꺼리다) 생기는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까?(중앙일보 2011.8.24.)

. 실제로 개그맨 중 유일하게 농도 짙은 성인개그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면서도 단 한 번의 논란이 없었던 그의 능력은 실로 대단하다. 또한, 대부분의 방송인들이 수위 조절에 있어 어려움을 느껴 시도하기조차 꺼려하는(→꺼리는) 신동엽 특유의 개그영역은 아무도 따라올 자가 없기 때문에 단연 빛난다.(한국일보 2012.6.25.)

. 악마사냥꾼 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군이 매우 꺼려하는(→꺼리는) 무적하수인은 원거리 캐릭터에게 위협적인 영혼강탈자, 파고드는 껑충이, 시체청소부 등의 몬스터가 무적하수인 능력을 지니게 된다면 몬스터를 잡아서 아이템을 파는 가격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올 정도로 자주 사망하게 된다.(동아일보 2012.6.19.)

. 한국은 물론 일본·중국, 멀리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사는 삼촌 팬까지 있다. '이모 팬'들도 있지만 삼촌 팬들이 절대 다수라 오프라인 모임에 나오는 걸 꺼려하는(→꺼리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중앙일보 2012.5.26.)

. 학생들이 아침밥을 거르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누적된 피로로 식욕이 떨어져 아침밥 먹기를 꺼려한다(→꺼린다).(조선일보 2012.6.28.)

. 2010년 6월 한시적으로 출범한 EFSF의 규모는 4400억유로다. 그간 이 기금의 27%를 부담하는 최대 출자국인 독일은 재정위기국 국채를 매입했다가 손실 볼 것을 꺼려해(→꺼려) 이 기금으로 재정위기국 국채를 사는 데 반대해 왔다.(조선일보 2012.6.21.)

. 본점 직원 수 추이를 밝히기 꺼려한(→꺼린) 우리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은

올 초 본점 직원의 5~10%인 80~100명을 영업 현장으로 배치했다.(조선일보 2012.6.11.)

(3) 성분 간 일치와 호응 지키기

(가) 주어 없는 문장 쓰지 않기

→아래 문장은 주어가 없는 문장이다. 서술어에 포함된 명사(분석, 평가, 지적)가 주어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서술어로 삼고 있기 때문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 문장이 되고 말았다. 보도문은 육하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어디서 왜 했는지 밝히는 문장을 구성해야 한다. 주체를 밝힐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서술어에 포함된 명사를 주어로 바꾸는 방법을 사용하는 차선책을 생각할 수 있다.

. 만약 한-EU FTA는 쉽게 통과시키고, 한-미 FTA만 반대할 경우 '반미(反美)주의'라는 비판을 받는다는 고려도 작용한다는 분석이다(→분석이 있다).(조선일보 2011.4.11.)
. 간결해진 스윙으로 정확도가 높아져 홈런 수도 따라오고 있다는 평가다(→평가가 나오고 있다).(경향신문 2011.5.12.)
. 뒷골목의 전당포보다 못한 제도권 금융의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다(→지적이 많다). 한마디로 '금융막장'이다.(부산일보 2011.6.17.)
.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해 30%의 지분을 매입하는 가격이 4조원이 넘는 데다 산은금융의 경우 5조~7조원을 투입해 50%의 지분과 경영권 프리미엄 확보를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다(→관측이 나온다).(서울신문 2011.5.19.)
. 평택 기지로 2016년까지 이전이 예정된 미 2사단을 한·미 연합부대로 개편해 한강 이북 지역에 잔류시키는 방안을 추진시키고 있다는 보도이다(→보도가 있다).(서울신문 2012.6.19.)

(나) 높임 일치 지키기

→신문 언어에서 가끔 나타나는 높임의 불일치는 주로 주어(또는 주격조사)와 서술어(종결어미) 사이의 높임의 불일치이다. 대개 인용문에서 일어난다. 상대가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기자가 자기 말로 바꾸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 정동기 자진사퇴.. "국민 여러분께 송구" (연합 2011.1.12.) 정동기 감사원

장 후보자가 10일 “저는 오늘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서 사퇴하기로 결정했다(→했습니다)” 고 밝혔다.

. 이명박 대통령은 “근자에 제 가까운 주변에서, 집안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끼쳐드렸습니다)”,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린다(→드립니다)”, “생각할수록 억장이 무너진다(→무너집니다)”,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다(→없습니다)”, “모두가 제 불찰로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받겠습니다)”고 했다.(미디어오늘 2012.7.25.)

(다) 나열 일치 지키기

→여럿을 나열할 때에 나열하는 대상의 형태나 성질이 같아야 한다. 성질이 같아야 한다는 말은 명사를 나열한다면 명사를 죽 나열하여야 하고, 서술어를 나열한다면 서술어를 나열해야 한다는 말이다. 서술어의 형태도 일치하도록 하고, 부사어나 관형어도 일정한 형태로 나열해야 한다.

. 이 정부는 한마디로 멍청하거나 무기력하거나 아니면 좌파적 아니냐고 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조선일보 2011.4.19.)(→‘멍청하다’, ‘무기력하다’, ‘좌파적이다’를 나열한 문장이다. 그렇다면 ‘멍청하거나 무기력하거나 좌파적이라고’처럼 나열해야 한다.)

. 서울대가 지금처럼 관치(官治)에 길들여진 대학으로 자족하면 세계적으로 일류대 도약은 물론이고 국내에서의 위상도 흔들릴 수 있다.(동아일보 2011.6.1.)(→‘일류대 도약’과 ‘국내에서의 위상’을 ‘흔들리다’에 연결한 구조이다. 나열한 두 요소의 성질이 일치하지 않아 ‘흔들리다’에 연결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일류대 도약도 어렵고, 국내에서의 위상도 흔들린다’처럼 고쳐야 한다.)

. 284명 중 156명(56%)이었던 것이 3차 조사에서 80%로 급증했다.(한겨레신문 2011.4.4.)(→56%에서 80%로 급증했다고 표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156(56%)명이 227명(80%)으로 급증했다고 표현하면 된다.)

(라) 성분 간 호응 지키기

→기자들이 기사문에서 흔히 잘못하는 경우가 성분 간의 호응을 지키지 못하는 점이다. 의미가 통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생각 없이 문장을 구성하다 보면 성분 간에 호응이 안 되는 문장을 많이 만들어내게 된다.

. 이 전 국장과 돈을 전달한 기업 쪽 모두 합법적으로 받은 자문료라고 주장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향신문 2011.6.25.)(설명: 한 쪽은 받은 편이고 다른 쪽은 준 편이므로 '합법적으로 받은 자문료'라고 하면 안 된다. 그냥 '합법적인 자문료'라고 하면 된다.)

. 피로해진 눈은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는 시력감퇴 현상을 일으킨다.(경향신문 2011.6.3.)(설명: 눈이 시력감퇴 현상을 일으킬 수 없다. '눈이 피로해지면'처럼 인과관계로 문장을 구성해야 한다.)

. 세종시의 경우 이미 부지가 확보돼 있는 장점이 있지만, 행정 부처 이전을 전제로 한 기존 계획을 변경해야 하며, 이 경우 연구 단지나 대학 단지 등을 조성하는 데 어차피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한겨레신문 2011.4.11.)(설명: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밝히는 문장이므로 '장점이 있지만'과 어울리도록 '변경해야 하는 단점이 있고'처럼 구성하면 완벽해진다.)

. 이런 은폐 덕분에 일반 일본인은 전쟁에 질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았다.(조선일보 2011.6.23.)(설명: 보조사 '도'를 써서 강조하는 경우에는 그 앞에 보조사 '는'이 와야 정상이다. '전쟁에 질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다'처럼 써야 한다.)

. 후쿠시마 원전은 반경 20km 안 주민 21만명을 대피시켰지만 고리 원전이라면 부산시 일부와 울산시가 이 범위에 포함돼 대피 대상은 100만명을 훌쩍 넘어설 것이다.(한겨레신문 2011.3.15.)(설명: 후쿠시마 원전과 고리 원전을 주어로 사용하면 뒤의 서술어를 사용하기 어렵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는', '고리 원전에서 사고가 난다면'처럼 부사어로 바꿔야 현재의 서술어를 쓸 수 있다.)

. 사람이 신진대사를 통해 36도 안팎의 체온을 유지하듯 판구조운동도 지구의 신진대사를 돕는 것이다.(조선일보 2011.3.15.)(설명: 구조상으로는 '체온을 유지하듯'과 '신진대사를 돕다'가 호응해야 하는데 그러면 문장의 의미 파악을 하기 어렵다. '지구는 판구조운동을 통해 신진대사를 한다'처럼 바꾸면 호응이 된다.

. FTA 협정문은 일차적으로 통상교섭본부에서 한글로 번역한 뒤 각 부처 담당자들이 검토 의견을 내도록 돼 있다.(동아일보 2011.4.9.)(설명: 'FTA 협정문은'이 주어이다. 이 주어와 호응할 서술어가 없다. 만일 'FTA 협정문은'이 목적어라면 검토 의견을 내도록 돼 있는 대상 곧 무엇을 검토할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정보가 없는 문장이 된다.)

. TV, 그래픽카드, 3D 안경, 모니터 등은 3D 기능을 지원하는 기기를(→기기로) 추가로 사야 한다.(조선일보 2011.4.8.)

. 번역 오류는 체계적인 번역전담팀 없이 촉박한 FTA 추진 일정을 맞추려던 외교부의 실수가 크지만 관련 부처 실무직원들의 무성의한 검토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외교부의 주장이다.(동아일보 2011.4.9.)(설명: '번역 오류'와 '실수가 크지만'이 호응하지 않는다. '큰 실수 때문이지만'으로 바꾸면 호응이 된다.)

. 그러나 누군가를 울린 감동의 흔적은 문신처럼 짙게 새겨진 것은 아닐지라도 누군가의 가슴에 남고 영혼에 담긴다.(중앙일보 2011.11.15.)(설명: '새겨진 것'과 호응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새겨지진 않더라도'처럼 바꾸면 된다.)

. 취업 제한 기업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제출했지만 이를 비롯해 20건이 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낮잠자고 있다(서울신문 2011.5.12.).(설명: '개정안'이 주절과 종속절의 주어가 되도록 서술어를 구성하면 호응이 된다. '제출했지만 이 개정안은 다른 20개의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서 낮잠자고 있다.'처럼 고치면 된다.)

제4장 더 낫게 쓰기

어떤 상황에 어떤 언어가 더 나은지 판단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상황에 더 어울리고 적절한 낱말과 표현을 애써 찾아 사용하는 것이 자기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더 잘 이해시키고 자기 문장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는 길이다. 신문 언어도 그런 점에서 가장 적절한 낱말과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한자어 가운데에는 요즘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구시대적인 것이 많이 있다. 교육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어려운 한자로 된 한자어와 사자성어가 그것인데 이런 것들은 대중의 언어에 맞게 고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한국어 구문이 있는데 애써 영어식 구문으로 글을 쓰는 것도 적절한 언어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낱말과 표현을 더 적절한 낱말, 더 적절한 표현으로 바꿔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적절한 언어 사용이 될 수 없다.

1. 시대에 맞는 말로 바꾸기

<현해탄→대한 해협>

→현해탄은 일본 규슈의 북서부에 있는 해역으로서 예로부터 일본인이 조선이나 명으로 가는 주요 통로가 되었다. 배를 타고 우리나라와 일본을 오가려면 이 해역을 지나게 되므로 주로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가는 것을 현해탄을 건넌다고 했다. 그래서 이 지명은 우리에게 일제강점기를 떠올리는 점도 있다. 우리에게는 이 지명보다는 대한해협이 더 적절하다. 왜냐하면 대한해협을 건너면 이미 일본에 간 것과 같기 때문이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현해-탄(玄海灘)「명사」『지명』 대한 해협 남쪽, 일본 후쿠오카 현(福岡縣) 서북쪽에 있는 바다. 우리나라와 규슈(九州)를 잇는 통로로, 수심이 얕고 풍파가 심하다. 쓰시마(對馬) 해류가 동북쪽으로 흐르고 동해 해류가 남쪽으로 흐르며, 방어·정어리 따위의 난류성 어류가 많이 잡힌다. ≒겐카이나다.

. 산청군 경호강 은어를 찾아 현해탄(→대한해협)을 건너다(연합뉴스 2012. 6.20.)

. “재일교포 북송 저지하라” 50년전 현해탄(→대한해협) 건넌 ‘특공대’(중앙일보 2012.4.27.) 여러분 50여년 전의 기막힌 사건의 현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보겠습니다. 이승만 정부 시절, 60여 명의 비밀요원들이 재일교포의 북한행을 저지하라는 명령을 받고 맨 몸으로 현해탄(→대한해협)을 건넙니다. 하지만 작전은 실패했고 우리 정부는 그들을 버렸습니다.
. 현해탄(→대한해협) 건너 ‘경남 세일즈’(서울신문 2012.4.17.)
. “반값등록금의 감동, 현해탄(→대한해협) 건너오라”(한겨레 2012.2.16.)
. ‘갤럭시S2’, 현해탄(→대한해협) 건너 일본 진출(스포츠조선 2011.6.23.)
. 세종때 40여 차례 현해탄(→대한해협) 건너 ‘조선 체제안정’ 외교력 펼쳤다(쿠키뉴스 2011.11.25.)

<민초→민중/서민>

→이 낱말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에서 유래하였으나 나약하고 의지 없는 백성을 절대주의 왕권과 대비하여 일본에서 만들어 사용하던 말이므로 현대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사용하기 거북하다. 민초 대신 민중, 인민, 서민 같은 낱말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민초(民草)「명사」 ‘백성’을 질긴 생명력을 가진 잡초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 이름 없는 민초들/엎드려 바라옵기는 왕은이 넓고 넓어 하늘 아래 구석구석 민초에게도 융숭하옵시거니와….≪박종화, 금삼의 피≫

. 뒷짐 진 아동, 주저앉은 노인 … 민초(→서민)들 애환 오롯이 담겨(중앙일보 2012.5.18.)
. 그때 민초들(→민중)은 목숨 대신 신앙을 택했다(서울신문 2012.3.31.)
. 영웅은 평범한 민초였다(→시민이었다)(서울신문 2011.12.27) ‘아랍의 봄’을 만든 영웅은 평범한 민초였다(→시민이었다).
. 힘든 현실에서도 억척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민초(→서민)들의 모습이 여기 겹쳐져 장엄하다.(중앙일보 2012.6.29.)
. 전쟁의 시련 겪는 민초들(→민중) 삶, 쥐의 눈으로 보다(세계일보 2011.11.11.)

<공복→공직자/공무원>

→이 말은 ‘공공의 종’이라는 의미로서 전근대적인 상하관계를 상정하고 만들어진 낱말이다. 국민과 공무원 사이는 상하관계라기보다는 평등한 관

계이며 맡은 일이 공무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이 말은 부적절해 보인다. 공무원 선서도 '국민의 공복으로서' 대신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로 바꾼 것을 감안할 때에 이 말은 이제 근대적인 낱말로 갈음해야 할 것이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공복(公僕)「명사」 국가나 사회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으로, '공무원'을 달리 이르는 말. ¶ 국민의 공복/투철한 공복 의식.

. '방통위는 국민의 공복(→공공기관)인가, 통신재벌 3사의 대변인인가?'(노컷뉴스 2012.9.21.) 결국 이동통신요금 원가를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는 끝까지 비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공복(→공공기관)이 아니라 통신재벌3사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기존의 태도를 고수했다는 비난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공복(→공무원/공직자)이 이래서야" 제주도 공무원 음주운전 심각(제주의소리 2012.10.15.)

. 문 후보는 "모든 공직자는 직급에 상관없이 국민의 공복(→공공의 일꾼)이며 국민을 위해 일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 역시 한 명의 공직자로서 여러분과 다르지 않은 만큼 다음 정부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해 나가자"고 당부했다.(뉴스1 2012.10.20.)

. 참된 공복(→공직자) 가린다… 유례없는 면접(경인일보 2012.8.17.)

. 공복(→공무원)들의 휴일 잊은 봉사(대전일보 2012.5.20.)

. 유권자라는 '주인'이 국가 최고위 '공복(→공직자)'인 대통령을 뽑을 때 위험하지 않은 정치인을 고르는 안목이 필요하다. 공복(→공직자)을 잘못 고른 주인은 두고두고 피눈물나는 후회를 하게 된다.(조선일보 2012.9.3.)

. 대통령 형님이 국가기관의 인사를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는데 어느 국민이 대통령 형님 수족(手足)들로 짜인 장·차관, 청와대 수석, 공기업 사장, '형님 공천'을 받은 국회의원 등등을 국가의 공복(→공직자)으로 여겼겠는가. 대통령 형님의 사병(私兵)들로 봤을 것이다. 대통령 형님 눈치나 살피는 그들이 국사(國事)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을 리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대통령 가족의 국정(國政) 개입은 나라를 허무는 반(反)국가 범죄이자, 반(反)체제 범죄다.(조선일보 2012.7.4.)

. 지자체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을 관장하는 최일선의 대민(對民) 창구다. 공무원들이 투철한 공복(→공직자) 의식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비리다.(동아일보 2012.10.27.)

. 다산 정약용은 “천하의 나쁜 일들은 모두 돈을 버리지 못한 데서 온다”고 했다. 공직자가 청렴하지 못하다면 국민들은 그 누구를 믿겠는가? 공직자들의 윤리성과 공복(→공직자) 정신을 재정립할 때이다.(경향신문 2012.10.29.)

(2) 딱 들어맞는 말로 바꾸기

<와중(渦中)→중(中)>

→‘와중’은 일이 시끄럽고 혼란스럽게 벌어진 사이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단순히 어떤 일이 벌어진 사이를 나타내는 데는 사용하기 어려운데 심지어 정상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동안을 나타내는 데도 ‘와중’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산책하는 중에’를 ‘산책하는 와중에’처럼 쓴다면 웃음거리가 될 것인데 이런 사용법을 애용하는 기자가 꽤 있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와중(渦中)「명사」「1」흐르는 물이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2」((흔히 ‘와중에’ 꼴로 쓰여))일이나 사건 따위가 시끄럽고 복잡하게 벌어지는 가운데.

중(中) [Ⅰ]「명사」「1」등급, 수준, 차례 따위에서 가운데. 「2」규모나 크기에 따라 큰 것, 중간 것, 작은 것으로 구분하였을 때에 중간 것을 이르는 말. 「3」장기판의 끝으로부터 둘째 가로줄.「4」『교육』((일부 숫자 앞에 쓰여))‘중학교’의 뜻을 나타내는 말. 「5」『북한어』‘중년(中年)’의 북한어.

[Ⅱ]「의존명사」「1」여럿의 가운데. 「2」((일부 명사 뒤에 쓰여))((‘-는/-던’ 뒤에 쓰여))무엇을 하는 동안. 「3」어떤 상태에 있는 동안. 「4」((주로 ‘중으로’ 꼴로 쓰여))어떤 시간의 한계를 넘지 않는 동안. 「5」안이나 속.

. 1기가 끝나지 않은 와중에(→중에) 2기 부부 신청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SBS 2011.3.24.)

. 치료 중에 경과가 악화되거나 증상의 부위가 옮겨 다니면 심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거나 불안해 할 수 있습니다. 호전되는 중이라면 증상의 강도가 기복이 있더라도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와중에(→중에) 기복이 나타나게 됩니다.(연합뉴스 2011.3.25.)

. 신자유주의는 갈수록 공공부문이나 사회복지 영역을 축소한다. 사적 자본, 특히 대형 자본의 돈벌이만 유리해진다. 그 와중에(→그런 중에) 주택 보조금이나 교육 훈련 지원금,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이 줄었다. 빈곤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경향신문 2011.3.24.)

. 한국 정부는 23일 일본산 식품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됐을 경우 수입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인터넷에선 각국이 일본산 식료품의 수입 금지 등 통제를 강화하는 와중에(→중에) 한국 정부가 오염된 식품의 수입만 보류하겠다는 조치는 미흡하다며 불만을 나타내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동아일보 2011.3.24.)

<르네상스→전성기>

→르네상스는 어떤 특정한 시대의 문예를 부흥시킨다는 의미를 갖는다. 물론 유럽의 르네상스는 그리스·로마 시기의 문예를 부흥시킨다는 의미이다.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부흥시키고자 하는 어떤 시대의 문예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영·정조 시대를 한국 문화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한다면 이는 세종, 성종 연간의 문화를 상정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 신문이나 정부 기관에서는 단순히 발전의 의미로 이 말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르네상스(<프>Renaissance)「명사」『역사』 14세기~16세기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하여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인간성 해방을 위한 문화 혁신 운동. 도시의 발달과 상업 자본의 형성을 배경으로 하여 개성·합리성·현세적 욕구를 추구하는 반(反)중세적 정신 운동을 일으켰으며, 문학·미술·건축·자연 과학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유럽 문화의 근대화에 사상적 원류가 되었다. ≒문예 부흥01(文藝復興)·학예 부흥.

부흥(復興)「명사」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또는 그렇게 되게 함. ≒흥복02(興復).

.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전성기), 1990년대(경향신문 2012.7.13.)

. 김치랑 먹어도 칼칼… 호텔서 먹어도 달달…이유있는 르네상스(→전성기)(매일신문 2012.6.22.) 막걸리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제조 유통업체, 막걸리 주점 등이 급증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수출길이 열리면서 지난해 수출액이 5천280만달러에 이르렀다. 막걸리가 본격적인 르네상스(→전성기)를 맞고 있다.

. "역사자원 결합 백마강 르네상스(→전성기) 꿈 실현"(대전일보 2012.6.10.) 백마강 르네상스 시대(→전성기)를 꿈꾸며 달려온 부여군정의 현실과 관광 부여의 비전을 들어봤다.

. 낙동강에 도도한 新르네상스(→문화) 흐른다(경북매일 2012.6.29.)

. 전남 여수시 '해양 르네상스 발상지(→생태 문화 도시)' 로 재탄생(뉴시스 2012.6.29.) 민선 5기 전반기 여수시는 '해양 르네상스 발상지(→생태 문화 도시)'로 재탄생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다.

. 다음, 모바일 카페 르네상스(→전성기)를 꿈꾸다(전자신문 2012.6.25.) 다음이 스마트폰에 안성맞춤인 '캠프' 서비스를 내놓으며 '카페 르네상스(→전성기)'를 도모한다. 인터넷 커뮤니티 원조지만 노후한 이미지가 강한 카페를 스마트폰 붐을 계기로 다시 활성화한다는 전략이다.

<측면(側面)→면(面)>

→측면은 정면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사물을 측면에서 보는 경우와 정면에서 보는 경우가 다르다고 말할 때에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축구에서 측면 공격이라고 하는 말도 정면 공격에 대응하는 말이다. 요즘 신문에서는 측면을 '면'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측면 앞에 올 수 있는 말은 정면과 측면을 가진 단어이고, 굳이 정면과 측면을 가릴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면을 써야 옳다. 즉, '수익률 측면에서'보다는 '수익률 면에서'가 더 적절하다는 말이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측면(側面)「명사」 「1」=옆면「1」. 「2」사물이나 현상의 한 부분. 또는 한쪽 면. 「3」『수학』=옆면「2」.
면(面)「명사」 「1」사물의 겉으로 드러난 쪽의 평평한 바닥. 「2」입체의 평면이나 표면. 「3」무엇을 향하고 있는 쪽. 「4」어떤 측면이나 방면.

. 공연히 긁어 부스럼을 만든 측면(→면/점)이 있다.(조선일보 2011.3.15.)
. 수출 촉진을 위해 원화가치를 낮게 유지한 환율정책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충격에 빠진 한국경제에 불가피한 측면이(→면) 있었지만 대기업에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간 것도 분명하다.(동아일보 2011.4.26.)
.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장은 "상가 공급이 수요를 추월하면서 전반적인 수익률 수준이 하락한 게 사실"이라며 "투자할 때 입지별로 임차 수요와 수익률 측면(→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매일경제 2011.4.25.)
. 김 EP는 "시청자들이 여자주인공에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바란다

면 남자주인공에게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기대하는 측면(→면)이 있다"며 "20대 연기 전문 배우들은 감정의 폭이 깊기 때문에 작품의 주인공으로 캐스팅할 때 연륜이 적다는 점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스포츠조선 2012.10.21.)
. 한국인들이 경력, 교육, 평판, 외모 등의 측면(→면)에서 거의 달성이 불가능한 기준을 세워 아등바등 사는 것이 안타까워 보였기 때문이다.(매일경제 2012.10.21.)

(3) 외국어 투 표현 바꾸기

<에 있어서>

→'에 있어서'에 사용되는 '있다'는 아무 의미도 갖지 않는데도 습관적으로 이 어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 표현은 일본어 직역 투이기도 하다. 다른 어구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 외교부 관계자는 "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 여건에 있어(→의) 획기적인 변화"라며 "올 상반기 중에 미 의회 비준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조선일보 2011.4.11.)
. MSCI는 지수 사용료 등에 있어(→등에) 이전과는 달리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거래소도 협상 의지가 강해 늦어도 21일까지 최종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매일경제 2011.10.20.)
.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란 단지 정규시간을 다 일하지 않지만 상용직으로서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에) 달리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말한다.(경남도민일보 2012.6.24.)
. 선거는 정치 현실과 정치 변동에 있어서(→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이다.(기자협회보 2012.4.18.)
. 이들은 모두 박지성보다 객관적 기량에 있어서만큼은(→만큼은) 우위로 평가받았다.(다음스포츠 2012.4.16.)

<을/를 통해>

→'통하다'는 어느 지점이나 시점을 지남을 기본으로 삼는 낱말이므로 매개할 수 있는 경우 곧 거칠 수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말이다.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일본식이다. 이 표현 대신에 조사 '로/으로'를 사용하거나 어미 '-어'를 쓰면 매끄러워진다.

.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청담동의 한 커피전문점에 들어가면서 발레 파킹을 통해(→발레 파킹으로) 건물 주차장에 자신의 벤틀리 승용차를 맡겼다. 발레 파킹 업무를 맡은 주차관리업체 직원 지모씨는 김씨의 차량을 주차구역이 아닌 빌딩 앞 인도에 불법 주차했고, 열쇠는 주차관리실에 걸어놨다.(조선일보 2012.6.18.)
. 사람이 신진대사를 통해(→로) 36도 안팎의 체온을 유지하듯 판구조운동도 지구의 신진대사를 돕는 것이다.(조선일보 2011.3.15.)
. 논술에서는 수사법보다는 이슈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한겨레신문 2011.4.11.)
. 합법적 수단을 통해(→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상대를 설득하는 노력 없이 폭력적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민주화 시대에 걸맞지 않은 행동이다.(동아일보 2011.6.1.)
. 용인시는 시의 재정여건과 시의회를 포함한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협의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경향신문 2011.6.3.)
. 북한은 연초 신년공동사설을 통해(→에서) "남북 당국자회담을 열자"고 제안한 뒤 4개월 넘게 이어오던 대화 공세를 5월말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에서/을 이용하여)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경향신문 2011.6.3.)

<만남을 갖다→만나다, 회담을 갖다→회담을 하다>

→국어에서 '가지다'는 생각이나 물건을 가슴이나 몸 등에 지님을 나타내는 말이다. 어떤 행위를 하는 뜻으로 '가지다'를 쓰는 것은 영어식으로서 국어에 맞지 않다.

. 앞서 지난달 말 손보사 사장단은 금감원 고위관계자들과 만남을 갖고(→만나서) 업계의 고민과 건의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헤럴드경제 2012.6.27.)
. 6월10일 한 매체에 따르면 MBC '무한도전' 멤버인 유재석, 박명수, 정준하, 정형돈, 노홍철, 하하, 길은 서울 강남의 한 빌딩 지하 연습실에서 정기적인 만남을 갖고 있는(→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국경제 2012.6.11.)
. 칠레를 공식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은 22일 한·칠레 정상회담을 갖고(→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협정 서명식에 참석했다.(조선일보 2012.6.22.)

. 미국과 필리핀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양국 국방·외교장관이 참여한 안보회담을 갖고(→안보회담에서) 남중국해 등에서의 해상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서울신문 2012.5.2.)

<에서 자유롭다/로부터 자유롭다>

→'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영어식 표현으로서 국어로는 명쾌하게 해석이 되지 않는 문구이다. 이 말은 대체로 '무엇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처럼 쓰이는데 이 말은 '무엇을 피할 수 없다'라거나 '무엇을 벗어날 수 없다', '무엇을 면하기 어렵다'처럼 국어에 맞게 쓰는 것이 좋겠다. 굳이 '자유'라는 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 각종 축제에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전시성 행정이란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을 벗어나기 어렵다).(부산일보 2011.6.20.)
. 포스코가 주도하는 철강 시장도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을 벗어나기 어렵다.) 지난해 4월 포스코가 철강제품 가격을 최고 25% 인상하자 현대제철, 동국제강도 1주일 안에 일제히 같은 폭으로 가격을 올렸다.(경향신문 2012.4.20.)
. 왜 배우 하던 사람이 갑자기 시를 쓰겠다고 나섰을까, 얼마나 오래 시를 쓸지 두고 보자, 의혹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않다(→을 벗어날 수 없다).(한겨레신문 2012.6.13.)
.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선비인 이황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을 피할 수 없다). 그가 거느린 노비만 367명에 달했으며 논과 밭을 각각 1천166마지기, 1천787마지기 소유한 땅부자였다.(연합뉴스 2011.12.13.)
. 도도한 시대 흐름은 미래를 가리키는데 박근혜 리더십은 지나가 버린 박정희의 잔상(殘像)에서 자유롭지 않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조선일보 2012.6.21.)
. 지금보다 훨씬 출입처나 권력기관, 정치 양아치들로부터 자유로운(→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기사를 쓰며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전북일보 2012.6.26.)

<에 대하여>

→'에 대하여'는 '무엇을 대상으로 삼아'의 뜻으로 사용되므로 언제나 대상자나 대상물을 상정하고 그 대상을 객체로 인식한다. 그러나 조사 '에'

가 이런 대상을 나타내기 위한 부사격조사이므로 보통은 '대해'가 군더더기가 되기 쉽다. 어떤 경우에는 목적어를 나타내는 자리에 이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때는 그냥 목적격 조사를 써서 목적어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편이 낫다.

. 부회장 또는 사장 자리를 신설하라는 국토부의 요구에 대해(→에) 조합 측은 비상근 고문이면 안 되겠느냐며 대안을 냈으나 먹히지 않았다고 한다.(중앙일보 2011.6.1.)
. 외교이사회는 집행위원회에서 교섭한 통상 협정에 대해(→을) 승인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지난해 9월 16일 한-유럽연합 협정의 2011년 7월1일 잠정 발효를 결정한 바 있다.(한겨레신문 2011.3.15.)
. 집권당 대표가 영남권 신공항 재추진 의지를 밝힌 데 대해(→것은) 대구·경북을 비롯한 영남권 지역민들로선 일단 환영할 일이다.(경북일보 2011.8.18.)
. 안전위는 추가로 확인된 부품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검증품으로 교체하도록 한수원에 조치하고 민·관 합동조사단과 안전기술원이 교체와 관련한 전 과정에 대해(→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했다.(아주경제 2012.11.27.)

<배제할 수 없다>

→이 표현은 대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의 문구로 쓰이는데 의미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가능성이 있다' 또는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정도로 대체하여 사용해도 무리가 없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배제(排除)「명사」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함. ¶ 폭력의 배제.
배제-하다(排除--)「동사」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하다.

. 반면 신율 명지대 교수는 "안 원장 본인이 향후 대선을 꿈꾸고 있다면 너무 이른 때 등판했다."면서 "냉혹한 정치권의 검증 과정이 본격화될 경우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없지 않다)."고 전망했다.(서울신문 2011.10.25)
. 하지만 당내에서 부정 의혹 자체가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한풀이' 내

지 '딴지걸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때문에 실체가 없는 단순한 의혹 제기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없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경향신문 2012.5.13.)
. 8일 검찰에 출두하는 고 의원이 박 의장을 거론할 경우 현직 국회의장이 동료의원을 금품으로 매수하려 한 혐의로 사법 당국의 조사를 받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없지 않다).(국민일보 2012.1.6.)
. 새누리당도 최근 이 사실을 파악하고, 조만간 공론화시킬 것으로 전해져 부산 총선에 막판 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없지 않다).(부산일보 2012.4.7.)
. 특히 시형 씨가 낸 돈의 출처 내역에 따라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소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없지 않다).(문화일보 2012.10.15.)
.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물가상승만 불러일으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없지 않다).(국민일보 2012.10.17.)

(4) 불필요한 피동 표현 바꾸기

→한국어는 능동 표현에 익숙하고 무정물을 주어로 삼는 경우가 드물다. 이에 비해서 영어권 언어는 어떤 어휘가 주어로 와도 되고 피동 표현도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여기서 영향을 받아 한국어에 피동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어떤 피동 표현은 매우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신문도 부자연스러운 피동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요구되다>

. 주말 사이에 도내 곳곳에서 전기 합선 등의 화재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주의해야 한다).(제주일보 2011.8.15.)
. 초여름 날씨로 인해 식중독 지수가 높아지면서 식중독 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주의가 필요하다).(국민일보 2012.6.13.)
. 가출 청소년들의 빈집 절도 행위가 기승을 부려 주의가 요구된다(→주의가 필요하다).(충청일보 2012.6.18.)
. 그는 이어 "Pre-earning 시즌을 기점으로 대거 발표되는 실적 추정치들은 최근 경제지표의 부진을 반영하게 될 개연성이 크며, 이 경우 이익 지표들에 대한 실망감이 지수를 통해 표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가격에 대한 매력 보다는 단기적인 흔들림에 대한 주의가 보다 요구되는(→에 주의해야 하는) 시점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파이낸셜뉴스 2011.6.14.)

<되어지다>

. 대부분이 특급포도밭으로 이루어진 클레멘스부쉬의 포도밭들은 철저한 유기농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5~60년 이상 되어진(→된) 알테레벤(Alte Reben)리슬링들이 토양에 고착화 되어져있어(→고착화되어), 이 나무들은 전통적이고 엄격한 규율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조선일보 2011.4.25.)

. 물론 괄호 안에 있는 말은 '발언'되어진(→발언된) 적은 없다. 그러나 이런 커플일수록 결혼 후, '생각보다 그, 혹은 그녀(의 조건이)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었다'는 반응이 적잖다는 것도 현실이다.(조선일보 2005.7.12.)

. 운명이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자칫 공허해지기 쉬운 개념이다. 사건의 복잡한 인과를 생략한 채 결국 그렇게 되어진(→된) 것이라는 허무주의적 결과론만을 전달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동아일보 2009.11.24.)

. 이는 지난 5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전문대학도 간호과 4년제 학사학위 과정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져(→되어), 한국간호평가원 주관으로 전국 38개 대학이 참여해 교원 확보율, 교사(校舍) 확보, 학과 운영 및 교육과정(22개 항목) 등에 대한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33개 대학이 승인을 받았다.(동아일보 2011. 11. 30.)

. 또한, 종편 방송국인 MBN 본사와 다수의 인쇄·출판기업들, 방송·영상관련 기업들이 들어 오는 도시지원시설이 있어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개발 되어진다(→개발된다).(한겨레 2011. 12. 27.)

. 'GEE'는 3장의 DVD(개당 4편의 에피소드 포함), 3장의 오디오CD, 4권의 가이드북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네번째 책은 어머님들을 위한 별도의 지침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졌다(→제작되었다).(경향신문 2011. 12. 12.)

<발라지다>

. 한적한 시골 마을에 이상야릇한 취미생활을 가진 남자가 있다. 벼농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손길 사이로 보이는 손톱에 매니큐어가 발라진(→매니큐어를 바른) 농부. 그 주인공은 달마도부터 산수화에 전통문양까지 매니큐어로 그림 그리는 남자 김지선씨다.(경향신문 2012.4.11.)

. 크라운베이커리는 상자 안에 달콤한 생크림이 발라진(→생크림을 바른) 초콜릿과 토핑 재료, 생크림 주머니가 각기 따로 들어 있어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는 DIY형 '아트케이크'를 선보였다.(동아일보 2012.4.20.)

. 미라 제작엔 송진에 특별한 첨가물을 섞은 유약도 한몫했다. 머리뼈 안에 이 유약이 채워졌으며(→유약을 채웠으며) 붕대에도 발라졌다(→발랐다). 이집트 미라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이다.(한겨레 2007.1.10.)

(5) 쉬운 말로 바꾸기

<미제(未濟)>

→경찰의 수사 용어로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사건을 가리킬 때에 쓰는 말인데 일반인은 이 말의 뜻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미해결' 정도로 바꿔 쓰는 것이 좋겠다.

. 치과의사 모녀 살해 사건도 목격자나 확실한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피의자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면서 아직도 미제(→미해결)로 남아 있다.(한국일보 2012.6.29.)
. 지난 4월20일 충남 홍성군의 한 농촌마을에서 발생한 간이 상수도 물탱크 농약 투입사건이 '미제사건(→미해결 사건)'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2012.6.10.)
. 민주당 이인영(사진) 최고위원이 25일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전제조건(북한에 대한 사과 요구) 없이 차라리 '미제(未濟) 사건(→미해결 사건)'으로 남겨두고 6자회담이 진행되는 게 더 선(善)"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중앙일보 2011.7.26.)
. 4년마다 스크린을 강타하고 간 이 영화들에는 공통점이 있으니 바로 '장기미제 사건(→미해결 사건)'들을 다룬 영화라는 점이다.(헤럴드경제 2011.11.17.)

<초동수사(初動搜査)>

→'초동'은 검찰이나 경찰이 사용하는 용어로서 일반인에게는 낯설고 어려우므로 쉽게 바꿔 쓰는 것이 좋겠다. 대개 '초동 수사', '초동 진압'처럼 쓰이는데 이를 '초기 수사', '초기 진압'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초동(初動)「명사」 「1」맨 처음에 하는 행동. 「2」『지리』어떤 지역에 지진이 일어날 때, 큰 진동에 앞서 나타나는 작은 진동.
초동^수사(初動搜査)『법률』 사건 발생 직후에,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긴급 수사 활동. 범죄 현장을 관찰하여 수사 자료를 발견·확보하며 참고인의 증언을 듣는다.

. 수원중부서, 초동 수사(→초기 수사) 소홀로 애꿎은 시민 85일간 구속한 전력(중앙일보 2012.4.11.)

. 하지만 당시 지구대에서 폭행사건의 초동수사(→초기 수사)에 착수했다면 괴한의 단서를 잡는 데 한결 수월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경향신문 2010.7.27.)
. 한·미 양국은 최근 주한미군의 잇따른 성범죄와 관련해 우리 수사당국의 미군범죄 초동수사(→초기 수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11.11.10.)
. 최근 오원춘 토막살인사건, 중년 남녀 사망사건 등으로 경찰이 112센터 체제 개편 등 초동수사(→초기 수사) 강화를 위한 자구책을 잇따라 공표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 개정은 지지부진,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경기일보 2012.5.1.)
. 상담원은 즉시 112에 초동수사(→초기 수사)를 의뢰했고 동남구 원성파출소 소속 경찰관 5명이 현장에 출동해 가정폭력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해자를 입건해 사건을 해결했다.(충청신문 2012.5.31.)

<양동작전(陽動作戰)>

→'양동'은 '움직이는 척함'을 가리키는 말로서 대개 군사 용어로서 '양동작전'의 형태로 사용된다. 이런 어려운 군사용어를 일반인이 알아야 할 필요가 많지 않으므로 신문에서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아래 기사를 보면 기자들이 '양동작전'을 두 개의 작전이나 양쪽에서 하는 작전 정도로 오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자도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양동^작전(陽動作戰)『군사』 적의 경계를 분산시키기 위하여, 실제 전투는 하지 아니하지만 병력이나 장비를 기동함으로써 마치 공격할 것처럼 보여 적을 속이는 작전.

. 충북도와 옥천군 등 3개 군의 최대 현안인 대청호공동발전방안이 환경부에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도와 옥천군이 양동작전(→합동작전, 공동작전)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충북일보 2011.11.21.)
.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출 1조원 시대 달성을 위해 지역 수출업체와의 소통 및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에 나서는 양동작전(→전략)을 전개한다.(제민일보 2011.2.9.)
. 방송과 온라인을 포함한 그의 양동작전(→작전)에 누리꾼들의 호응은 다시 달아올랐다.(스포츠경향 2012.6.18.)
. 이들은 축구 게시판과 인터넷 기사의 댓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를 통해 양동작전(→홍보 전략)을 펼친다. 한편으로는 자신과 같은 유빠를 규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지몽매한' 일반 팬을 훈계하는 모양새다.(한겨레21 2012.6.15.)

<굴지(屈指)의>

→'굴지'는 단순히 손가락을 꼽는 행위이므로 굳이 '굴지'를 쓸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손꼽히는'으로 바꿔 쓰는 것이 좋겠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굴지(屈指)「명사」 「1」무엇을 셀 때, 손가락을 꼽음. 「2」((흔히 '굴지의' 꼴로 쓰여))매우 뛰어나 수많은 가운데서 손꼽힘.

. 런던의 미술 전문 출판사 트랜스글로브(Trans Globe)가 기획하고 세계 굴지의(→세계에서 손꼽히는) 미술 전문 출판사 템스앤허드슨(Thames&Hudson)이 판매하게 된다.(조선일보 2012.3.6.)
. 1937년 뉴욕 필에서 은퇴한 뒤엔 NBC오케스트라를 맡아 세계 굴지의(→세계에서 손꼽히는) 악단으로 성장시켰다.(한국경제 2012.6.29.)
. 또 국내 굴지의(→국내에서 손꼽히는) 병원 건강의학센터 관계자는 "커피는 한때 췌장암과 방광암 등의 강력한 위험인자로 거론됐지만 증거부족으로 논란이 끝났다"고 선언했다.(경기신문 2012.6.28.)
.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굴지의(→국내에서 손꼽히는) A선박회사는 2007년 국내 법인자금으로 사들인 선박을 파나마에 등록하고 운항 수입과 선박 매각대금 등 4000만 달러를 빼돌려 싱가포르 유령회사의 비밀계좌에 은닉했다.(세계일보 2012.6.26.)

<답보 상태(踏步狀態)>

→제자리걸음으로 대체하면 좋겠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답보(踏步)「명사」 =제자리걸음「1」.
답보-하다(踏步--)]「동사」상태가 나아가지 못하고 한 자리에 머무르다.

. 호남권 공약집의 국립노화연구소 설립이나 한국민주주의 전당 유치, 세계문화상품 복합단지 조성도 답보 상태(→제자리걸음 상태)에 머물고 있다.(동

아일보 2011.4.9.)
. 하지만 정부가 10년도 넘게 유수율 제고와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각종 사업을 벌였음에도 개선은 답보 상태(→제자리걸음 상태)에 머물고 있다.(서울신문 2012.6.25.)
. 수년간 답보 상태(→제자리걸음 상태)인 청라국제도시의 핵심사업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경인일보 2012.6.28.)
. 이처럼 '개그콘서트'는 한때 시청률 20%를 웃돌며 명실공히 주말 예능 프로그램 중 최고로 떠올랐지만, 현재는 답보 상태(→제자리걸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세계일보 2012.4.23.)
. 하지만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들며 답보상태(→제자리걸음 상태)를 나타냈다.(이투데이 2012.6.28.)

<미증유(未曾有)>

→상당히 어려운 낱말이다. 특별히 이 말을 써야 할 이유가 없으니 쉬운 말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전에 없는'이나 '전에 없던'으로 상황에 맞게 바꿔 쓰는 것이 좋겠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미-증유(未曾有)「명사」 지금까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음. 「참고 어휘」 전대미문(前代未聞).

. 미증유(未曾有)의(→전에 없던) 재난을 당한 일본을 돕기 위해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중앙일보 2011.3.15.)
. 분명 무르시 후보의 당선은 이집트 역사상 미증유의(→전에 없던)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한다.(조선일보 2012.6.25.)
. KAIST는 지난해 학생 4명과 교수 1명의 자살이라는 뼈아픈 상처를 겪었다. 미증유의(→전에 없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습 과정에서 총장과 교수협의회가 갈등을 거듭했고 결국 현재까지 이르렀다.(대전일보 2012.6.26.)
. 이렇게 되면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앞두고 우리 국방시스템 전체에 미증유의(→전에 없던) 혼란이 초래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한겨레신문 2012.6.25.)
. <미증유의(→전에 없던) 장마뒤 폭우>부랴부랴 현장으로… 뒤늦게 부산 떠는 정치권(문화일보 2011.7.28.)

<민심 이반(離叛)>

→'민심 이반'은 민심이 떠남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반'이라는 말이 어려운 한자로 되어 있어 이해하기 쉽지 않다. '떠남', '등 돌림' 등으로 바꾸면 좋겠다. 특히 '이반'의 '반(叛)'은 민주 사회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한자이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이반(離叛/離反)「명사」 인심이 떠나서 배반함.
이반-하다(離叛--/離反--)「동사」 인심이 떠나서 배반하다.

. 서울시장 보선을 통해 한나라당을 외면하는 수도권 민심이 뚜렷이 드러났다. 20~40대 민심의 이반은(→등 돌림은) 심각한 수준이다.(동아일보 2011.11.30.)
. 역대 정권의 집권 4년차는 '지지율 급락'과 '민심 이반'(→민심의 등 돌림)으로 나타났다.(서울신문 2011.7.2.)
.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3일 통신요금 인하 방안 발표를 미룬바 있다. 이는 한나라당이 민심이반(→민심의 등 돌림)을 거론하며 통신요금 인하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에서다.(서울신문 2011.6.2.)
. 이러한 불만세력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민심이반 흐름(→민심의 등 돌림)은 점차 가속화되는 분위기다.(연합뉴스 2011.2.21.)
.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전세대란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며 "전세대란으로 인해 수도권 민심이반(→민심의 등 돌림)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한국경제 2011.2.11.)

<폄하(貶下), 폄훼(貶毁)>

→'폄하'는 원래 가치보다 못하게 깎아내리는 의미이고, '폄훼'는 깎아내리는 방법으로 헐뜯음을 의미하지만 한자어로 이 의미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고 말하는 사람도 이를 구별하여 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쉬운 말로 '깎아내리다'와 '헐뜯다'로 바꿔 사용하면 좋겠다. 헐뜯는 행위에는 깎아내리는 행위가 포함되지만 깎아내리는 행위에는 헐뜯는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구별하는 실익은 있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폄하(貶下)「명사」 「1」가치를 깎아내림. 「2」『역사』치적이 좋지 못한 수령을

하등으로 깎아내리던 일.
폄훼(貶毁)「명사」 남을 깎아내려 헐뜯음.

. 보건복지부가 최근 '보편적 복지'를 비한하고 복지정책 수혜자를 '베짱이'로 폄훼하는(→헐뜯는) 내용을 담은 복지 관련 책자 수백권을 사 직원들에게 읽힌 것으로 드러났다.(한겨레신문 2011.5.18.)
. 협상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얻어내고, 처음 만난 사람에게 물건을 팔아 오는 성격이 주목받는 시대가 되면서 내성적인 성격은 폄하되기(→깎아내려지기) 시작했다.(매일경제 2012.6.29)
.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용사들에 대한 폄훼(→헐뜯기)의 역사를 이제부터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문화일보 2012.6.28.)
. 전남지역 모 의원은 "정세균 대표 시절 배심원제를 도입해 얼마나 많은 내홍을 겪었느냐"며 "배심원제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꼼수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깎아내렸다).(광주일보 2011.8.9.)

<환골탈태(換骨奪胎)>

→어려운 사자성어여서 기자들이 '환골탈퇴'로 잘못 사용하기도 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굳이 이런 말을 쓰지 않고 '거듭나다', '전혀 달라지다', '완전히 새로워지다' 등으로 바꿔 쓰는 것이 좋겠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환골-탈태(換骨奪胎)「명사」 「1」 뼈대를 바꾸어 끼고 태를 바꾸어 쓴다는 뜻으로, 고인의 시문의 형식을 바꾸어서 그 짜임새와 수법이 먼저 것보다 잘되게 함을 이르는 말. 중국 남송의 승려 혜홍(惠洪)의 <냉재야화(冷齋夜話)>에 나오는 말이다. 「2」 사람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하여 전혀 딴사람처럼 됨.

. 선수협회의 주인인 선수들이 제기한 질문과 의심은 철저히 무시당했고 주객전도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선수들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선수협회가 환골탈태했다(→완전히 달라졌다). 지난 1월 박재홍 회장, 박충식 사무총장 등 새 집행부가 들어선 뒤 선수협회엔 소통의 통로가 조금씩 뚫리기 시작했다.(스포츠서울 2012.6.26.)
. 공격적인 투구와 완급 조절을 앞세워 '환골탈태'한(→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달라진 이용훈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일간스포츠 2012.6.25.)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올해 2월 발표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창사

이래 최초로 최고등급을 획득하며 환골탈태하고(→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구태 의연했던 공기업 이미지를 벗게 된 원동력은 지난 2010년 10월 이후 공단을 이끌고 있는 정정택 이사장의 리더십이 답이다.(세계일보 2012.4.4.)

. 청원군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옥산면민들이 강소농으로 환골탈태(→거듭나기)를 모색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충북일보 2012.2.1.)

<희화화하다(戱畫化-)>

→발음하기도 어렵고 의미를 알기도 어려운 말이니 '웃음거리로 만들다', '우스개로 만들다' 등으로 바꿔 쓰는 것이 좋겠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희화화-하다(戱畫化--)「동사」 어떤 인물의 외모나 성격, 또는 사건을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풍자하다. ¶ 고위 관료의 부정부패를 희화화하다/그 판소리에서는 한민족의 애환을 희화화하고 있다.

. 그래서 종종 '뽕짝'이란 말로 그 음악적 가치가 희화화되기도(→웃음거리가 되기도) 한다. 그런 트로트가 달라졌다.(중앙일보 2011.11.15.)

. 그는 주로 자신의 '못생긴 외모'(그가 못생겼다는 뜻 아니다)를 대상화하고 희화화하는(→우스개로 만드는) 방식으로 웃음을 유발했다.

. 이어 "서거3주기를 맞아 추모행사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의 한 사람으로 지난 과거를 반성해야 마땅한데도 오히려 그런 분의 죽음을 희화화하다니(→우스꽝스럽게 만들다니) 참담하다"며 "인턴의 실수는 누가 책임져야하느냐. 자신의 이름으로 한 것이라면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뉴시스 2012.5.20.)

. 부산에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동화 속 '백설공주'로 희화화한(→우스꽝스럽게 만든) 포스터가 대량으로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아시아경제 2012.6.28.)

. 민주당의 '자작극' 주장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당연히 경찰이 치명상을 입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정치적 소리(小利)를 탐하기 위해 국가의 공권력을 희화화한(→웃음거리로 만든)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공권력은 정치적 이해와는 관계없이 그 권위가 보호되고 지켜져야 한다.(서울신문 2011.12.7.)

<영어(囹圄)의 몸>

→'영어(囹圄)'가 어렵고 낯선 한자어이므로 쉬운 말로 바꿔야 한다. '영어의 몸'이란 '옥에 갇힌 몸'의 의미이므로 이 뜻을 살려서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영어(囹圄)「명사」 =감옥(監獄).

. 전 대표는 1999년 커뮤니티 사이트 프리챌을 설립해 회원 1000만명을 확보하는 등 큰 성공을 거뒀던 벤처 사업가 출신. 하지만 당시 유료화 정책의 부진 등 악재가 겹치면서 거액의 부채가 발생, 한때 영어의 몸이 되기도(→옥에 갇히기도) 했다.(한국일보 2012.6.28.)

. 운영하던 사업체가 부도나기도 했고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영어의 몸이 되면서(→옥에 갇히면서) 자연스럽게 일반인들의 관심에서 멀어져갔다.(영남일보 2012.6.20.)

. 이명박 대통령의 '심복'으로 불리며 정권 핵심실세 역할을 자임했던 박전 차관이 구속됨에 따라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왕의 남자들'이 잇따라 영어의 몸이 되는(→옥에 갇히는) 불운을 겪게 됐다.(머니투데이 2012.5.7.)

. 굳이 종편 허가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최씨는 방송과 통신을 마음껏 주물렀다. 파이씨티 인허가 비리 건으로 영어의 몸이 됐으나(→옥에 갇혔으나) 그를 둘러싼 여러 다른 불미스러운 설들은 여전히 난무하는 상황이다.(한국일보 2012.6.27.)

<천명하다(闡明-)>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는 자주 쓰이지만 일반인의 언어에서는 좀처럼 쓰이지 않으므로 일상어로 바꿔 주는 것이 좋겠다. '밝히다'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천명-하다(闡明--)「동사」 진리나 사실, 입장 따위를 드러내어 밝히다.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겠다"고

천명했다(→밝혔다).(경향신문 2011.6.3.)
. 이번 발언은 최근 잇따른 북한 지도부의 대남 강경 발언에 우리 측도 북한이 만에 하나라도 무모한 도발을 해올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대응 방침을 공개 천명한(→밝힌) 것으로 풀이된다.(문화일보 2012.3.7.)
.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적인 스마트그리드 선도 지역으로의 도약을 천명했다(→도약할 계획을/의지를 밝혔다).(제주일보 2011.11.1.)

<쾌척하다(快擲-)>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자주 사용되지만 일반 언어생활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낱말이므로 쉬운 말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특히 '흔쾌히 던지다'의 의미가 그것이 뜻하는 내용(기부 행위)와 어울리지 않는 점도 있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쾌척-하다(快擲--)「동사」 금품을 마땅히 쓸 자리에 시원스럽게 내놓다

. 송영무 순천대 총장(사진)이 학교 발전기금으로 2000만원을 쾌척했다(→흔쾌히 내놓았다). 순천대는 지난 11일 제 7대 총장으로 취임한 송영무 총장이 대학 발전기금 2000만원을 쾌척하는(→내놓는) 등 기금 모금에 앞장서고 있다고 15일 밝혔다.(경향신문 2011.11.15.)
. 가마솥 중탕기법을 현대화한 가정용 건강기능식품 제조회사인 오쿠가 13일 국립암센터에 발전기금으로 2억원을 쾌척했다(→흔쾌히 내놓았다).(매일경제 2012.6.13.)
. 즐거운 행사에 빈 봉투 쾌척(→내놓기) "장난하냐?"(경기일보 2012.6.24.)

<대단원(大團圓)>

→'단원'을 결말이나 끝의 의미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일이므로 '대단원'을 일반인이 '사건을 해결하고 끝내는 마지막 장면'의 의미로 이해하기는 더욱 어렵다. 연극 쪽에서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일반인이 알기 쉽게 단순하게 표현하면 좋겠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대-단원(大團圓)「명사」 「1」=대미(大尾). 「2」『문학』 연극이나 소설 따위에서, 모든 사건을 해결하고 끝을 내는 마지막 장면.

대미(大尾)「명사」 어떤 일의 맨 마지막. ‘맨 끝’으로 순화. ≒대단원02「1」.
단원(團圓)「명사」 결말이나 끝.

. 시상식에 이어 허남식 BIFF 조직위원장의 폐막 선언, 축하공연이 펼쳐졌고 폐막작인 일본 하라다 마사토 감독의 ‘내 어머니의 연대기’ 상영을 끝으로 영화제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막을 내렸다).(국민일보 2011.11.14.)
. 전국체육대회가 12일 오후 6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1주일간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행사를 끝냈다).(수원시민신문 2011.11.12.)
. MBC 드라마 ‘해를 품은 달’ 이 해피엔딩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막을 내렸다).(스포츠조선 2012.3.15.)
. 올해 코스피는 마지막 거래일 보합세를 나타내며 1,820대 중반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장을 마쳤다).(연합뉴스 2011.12.29.)
. 이어 국악 실내악과 전통 타악기의 협연곡인 ‘신뱃놀이’와 ‘신모듬’을 연주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막을 내린다).(충청신문 2012.6.28.)

<소기의(所期-)>

→‘소기(所期)’는 ‘기대하는 바’를 뜻하는 한문 투 낱말이다. 여기에 관형격 조사 ‘의’를 붙여 ‘기대한 만큼’의 뜻으로 사용하는데 이 말을 꼭 써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소기(所期)「명사」 ((주로 ‘소기의’ 꼴로 쓰여)) 기대한 바.

. 서울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대형마트와 SSM 업체들은 소기의 목적을(→기대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조선일보 2012.6.23.)
. 그러나 이런 소기의 성과(→기대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시행정에 그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체계적인 준비 없이 도시를 치장하고 보여주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한국일보 2012.6.29.)
. 미국의 경우 의사면허 재갱신에는 아동학대에 관한 소기의(→정해진)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했는지가 필수요건으로 되어 있을 만큼 아동학대를 중요한 의료적 문제로 인식한다.(매일경제 2012.6.27.)
. KBS2 ‘드림하이2’ 에 출연한 무명신인 JB와 Jr은 5월 남성듀오 JJ프로젝트로 데뷔, 소기의 목적(→기대한 목적)을 달성했다.(스포츠서울 2012.6.29.)

<수수하다(收受-, 授受-)>

→'수수하다'는 한자에 따라서 두 가지로 쓰인다. '수수(收受)'는 거두어 받는 행위로서 법률적으로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경우에 사용한다. '수수(授受)'는 주는 행위와 받는 행위를 아울러서 표현하는 낱말이다. 보통 신문 기사문에서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했다고 할 때는 전자의 한자어를 사용한 것이고, 공무원과 업자가 뇌물을 수수했다면 후자의 한자어를 쓴 것이다. 같은 소리인데 한자의 다름으로 인해서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런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무원은 뇌물을 받는 것이고, 업자는 뇌물을 주는 것이므로 '받다'와 '주다'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수수-하다(收受--)「동사」 「1」거두어서 받다. 「2」『법률』무상(無償)으로 금품을 받다. 형법에서, 수뢰죄 및 장물죄 따위를 구성하는 요건이 되는 일이다.
수수-하다(授受--)「동사」 물품을 주고받다.

. 또 임 회장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수수한(→받은) 혐의로 전 국세청 서기관 남모 씨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동아일보 2012.6.21.)
. 이 전 국장은 2006년 6월 퇴직한 직후 김영편입학원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수수한(→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경향신문 2011.6.25.)
.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를 수수하다(→주고받다) 적발된 의약품의 가격을 강제로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제약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것과 관련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YTN 2012.6.12)
. 계약 편의를 제공해주거나 용역비를 과다 지급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다(→받다) 적발되기도 했다.(노컷뉴스 2012.5.14.)
. 그 대가로 프로구단 스카우트 담당으로부터 모두 5회에 걸쳐 8256만 원을 수수했다(→받았다).(머니투데이 2012.6.7.)

<빈축(嚬蹙/顰蹙)>

→이 단어는 주로 '빈축을 사다'의 형태로 쓰이는데, '빈축'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면서 쓰기는 어려운 한자어이다. '비난'으로 갈음하는 것이 좋겠다. 문맥에 따라서 '찡그리다'나 '찌푸리다'를 쓰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빈축(嚬蹙/顰蹙)「명사」 「1」눈살을 찌푸리고 얼굴을 찡그림. 「2」남을 비난하거나 미워함.

. 개막식 축하무대였던 폴 메카트니의 '헤이 주드(Hey jude)'가 흘러나오던 중 갑자기 방송을 중단해 빈축을 샀고(→비난을 받았고), 개막식 사회를 맡은 '위대한 탄생' 출신인 배수정의 '영국인' 발언이 논란이 됐다.(동아일보 2012.8.11.)
. 그러나 주요 경기의 경우 중계진이 다음 경기를 안내하면서 '잠시 후'라는 자막을 남발해 빈축을 사기도(→눈살을 찌푸리게) 했다.(조선일보 2012.8.5.)
. 트위터에서 잇따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경솔한 언동을 일삼는 등 숱하게 구설수에 올랐던 작가 공지영이 또다시 트위터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빈축을 사고(→비난을 받고) 있다.(국민일보 2012.6.27.)
. 중국 당국의 탄압에 항의하는 티베트인의 분신 사건은 거의 보도하지 않는 관영 신화통신이 8일 티베트 20대 여인의 가정불화 분신 사망사건은 비중 있게 보도해 빈축을 샀다(→비난을 사고 있다).(연합뉴스 2012.8.8.)
. 3급 이상 실·국장 간부회의에 참석하고, 공식·비공식 만남을 통해 공직사회 관품(官品)을 뛰어넘는 발언과 행동을 보여 빈축을 사고(→얼굴을 찡그리게 하고) 있다.(충청일보 2012.2.9.)
. 한편 동반위 대기업 위원 9명중 5명이 불참해 빈축을 샀다(→비난을 받았다).(내일신문 2012.5.10.)

<방불케 하다(彷彿-/髣髴-)>

→'방불하다'가 '비슷하다'의 뜻이므로 '방불케 하다'는 부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관용어로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표현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방불(彷佛)'이 너무 어려운 글자이다. 한글로 적더라도 어려운 한자라는 점 때문에 이해를 하기 어렵게 되므로 이런 낱말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와 같다', '을 연상시키다'처럼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방불-하다(彷彿--/髣髴--)「형용사」 「1」거의 비슷하다. 「2」흐릿하거나 어렴풋하다. ¶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이 방불하게 눈앞에 떠오른다. 「3」((주로 '…을 방

불케 하다' 구성으로 쓰여))무엇과 같다고 느끼게 하다.

. GS칼텍스, 실전 방불케 하는(→실전 같은) 소방훈련 눈길(경향신문 2009.11.12.) GS칼텍스 직원 100여명이 나서 마치 실전을 방불케하는(→실전처럼) 소방훈련을 펼쳤다.

.이어 공개된 이하얀 집은 가히 충격적인 모습. 거실에는 정체 모를 여러 종류의 짐이 쌓여 있고, 주방은 창고를 방불케하며(→창고와 같았으며), 재활용 쓰레기통에는 유통기한이 2년 지난 찻잎까지 발견돼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조선일보 2012.7.5.)

. 요즘은 그야말로 한여름을 방불케하며(→한여름처럼) 강렬한 햇빛이 쏟아지는 완연한 여름 날씨이다. 최근에 지속되는 뜨거운 날씨로 인해 다들 어디론가 때 이른 피서를 떠나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이중 대한민국 국토 중 최남단에 위치한 이국적인 섬 제주도는 더더욱 바캉스 여행객들을 유혹하기에 안성맞춤이다.(중앙일보 2011.7.11.)

. 사진 한 컷이지만 배달을 하고 있는 두 명의 자세를 보면 레이싱을 방불케하며(→레이싱을 하는 것 같고) 옆으로 넘어질 듯 기울어진 모습이 마치 쇼트트랙의 코너링을 하는 듯하다.(한국경제 2012.2.18.)

.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경기도 평택공장 점거농성 진압을 위해 전시를 방불케 하는(→전시 같은) 경찰력과 장비가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한겨레 2012.9.20.)

<사필귀정>

→모든 사자성어가 그렇듯이 이 말도 하나의 문장이지 낱말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사리를 말하는 표현인데 우리는 이를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처럼 사용해서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잉여적으로 사용한다. 그냥 '당연한 결과'라고 하면 된다. 아래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사필귀정(事必歸正)「명사」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

. 이에 전교조는 15일 논평을 내고 "이는 사필귀정의 당연한(→당연한) 결과라 생각한다. 충청북도교육청을 비롯해 정당 후원 교사에게 징계를 남용한 교육청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이들 교사들에 대해 즉각적인 원상회복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검경일보 2012.6.15.)
. 강운태 광주시장은 8일 가족의 계좌 자금 수사에 대한 검찰의 내사종결과 관련해 "사필귀정으로 당연한(→당연한) 결과지만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뉴시스 2012.3.8.)
. 염 시장은 "과학벨트의 근본취지만 되새겨도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사필귀정(事必歸正)의 당연한(→당연한) 결과"라면서 "지자체들의 소모적 논쟁과 갈등을 하루빨리 풀고 지역경제에 미칠 효과에만 급급하기보다 나라 전체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합리적 결정에 승복하는 분위기 만들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아시아경제 2011.5.16.)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이는 사필귀정의 당연한(→당연한) 결과라 생각한다.(뉴스와이어 2012.6.14.)
. 황 군수는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난 뒤 "정당한 행정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린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바르게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 며 "재판부와 그동안 성원해준 군민, 지지자에게 모두 감사드리며 앞으로 심기일전해 군수의 임무를 더욱 충실히 하겠다" 고 말했다.(연합뉴스 2011.2.24.)

<일축하다>

→신문에서는 반대하거나 거절하는 뜻을 가리킬 때에 이 말을 습관적으로 쓰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경기에서 상대를 쉽게 이긴 경우에도 이 낱말을 쓰는데, 이 말은 어렵기도 하고 상대를 소홀히 대접하여 예의에 어긋나기도 하고 의미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일축-하다(一蹴--)「동사」 [1] 「1」 제안이나 부탁 따위를 단번에 거절하거나 물리치다. 「2」 소문이나 의혹, 주장 따위를 단호하게 부인하거나 더 이상 거론하지 않다. [2] 운동 경기 따위에서 상대를 손쉽게 물리치다.

. 수원 스테보 FA컵 16강 쐐기골 작렬 '반칙왕' 일축(→벗어나)(세계일보 2012.6.20.) 수원 공격수 스테보(31)가 FA컵 16강전 쐐기골로 '반칙왕'의 오명을 일축했다(→벗었다).
. 김현정 "성폭행 여가수 A씨, 나 아냐" 루머 일축(→반박)(세계일보 2012.7.4.)
. 임태희 "한일정보보호협정 내용보다 절차의 문제"(연합뉴스 2012.7.4.)

그는 다만 야당의 국무총리 해임요구에 대해선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반박했다).

. 손학규, 안철수 겨냥 “지금은 준비된 대통령 필요”(동아일보 2012.7.4.) “후보가 PK 출신이라 해서 추가로 얻을 수 있는 표는 그렇게 많지 않고, 설령 꽤 된다고 해도 지역적 한계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크지 않다”고 일축했다(→주장했다).

. 5년 전엔 MB 의혹, 이번에는 형님 … 최재경 vs 김상희 창과 방패 2차전(중앙일보 2012.7.4.) 하지만 “최 중수부장은 정치색이 별로 없는 특수통 검사”라는 게 법조계의 중평이다. 그는 올 초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진행자인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구속수감된 직후 정치권 일각에서 BBK 재수사 논란이 일자 ‘촉견폐월(蜀犬吠月·촉나라의 개는 달이 뜨면 짖는다)’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 일축했다(→반박했다).

. 신보라 “음원수입? 멤버가 네 명이라...”(TV리포트 2012.7. 4.) 3일 방송된 KBS 2TV ‘승승장구’에 출연한 신보라는 “저작권료로도 재미를 봤을 것. 음원수입이 어떤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멤버만 네 명이다”라고 답했다. 불만은 없다고 일축하면서도(→말하면서도) 신보라는 “멤버를 늘려도 되나?”라는 질문에 “더 늘릴 필요는 없다”라고 답하는 것으로 입담을 뽐냈다.

. 이상득 수사, ‘만사형통’ 아닌 ‘만사법통’ 보여줘야(경향신문 2012.7.3.)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어제 마침내 대검찰청 포토라인에 섰다. 이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는 때를 놓쳐도 한참 놓친 뒤에야 이루어졌다. 지난 4년간 이 전 의원에 대한 조사 요구가 수없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때마다 “조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일축하거나(→무시하거나) 간단한 서면 조사로 면죄부를 주지 않았던가.

. 이상득과 노건평(문화일보 2012.7.3.) 이후 자신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의혹과 논란이 있었지만 이 전 의원은 음해라고 일축했고(→반박했고), 당시 한나라당 소장파 55명이 연명을 해 요구한 18대 국회의원 불출마도 거부했다.

. EU, 이란 석유 금수 내달부터 시행(조선일보 2012.6.26.) 그러나 EU 외무장관회의는 이란이 핵프로그램 중단에 대한 요청을 계속 거부하는 상황에서 예정대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그리스의 요청을 일축했다(→거부했다).

. 시위대 위생 담당자인 로런 디지오이어(26·여)는 “우리는 24시간 공원을 청소하고 있다”며 공원이 지저분해져 대청소를 해야 한다는 뉴욕시의 주장을 일축했다(→반박했다).(중앙일보 2011.11.15)

. 베트남은 최근 남중국해 분쟁 도서의 주권을 명시한 해양법 개정과 관련한

중국의 항의를 일축하고(→물리치고) 이들 도서의 영유권을 거듭 확인했다.(세계일보 2012.6.20.)
. 이탈리아 대표팀 골키퍼 잔루이지 부폰이 불법베팅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부인했다).(스포츠조선 2012.6.2.)
. 그녀는 "우리 입장에서는 남한의 방위를 위한 전술 핵무기의 필요성도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을 배치할 어떤 의도나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일축했다(→부인했다).(오마이뉴스 2012.5.16.)

<치킨 게임(chicken game)>

→이 말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겁쟁이를 가리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치킨이 미국 속어로 겁쟁이를 나타내는 말이다. 미국의 문화를 모르는 우리 독자들에게 이 말을 쓰는 것은 현학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사안에 대해 대립하는 두 집단이 있을 때 한 사람이 그 사안을 포기하면 겁쟁이로 낙인찍히지만 둘 다 무사하게 되고, 둘 다 포기하지 않으면 용감한 승리자가 되지만 둘 다 죽게 되는 게임이다. '겁쟁이 가리기 경기' 또는 '무모한 경기'라고 쓸 수도 있겠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 국회가 각종 법률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치킨게임'(→겁쟁이 가리기 경기) 식으로 정면충돌하면서 국정원법등 국가안전보장 관련법들이 정치적 논란과 구호만 요란한 채 또 다시 방치·표류할 것이라는 우려는 실로 낙담과 위기감을 불러 오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데일리안 2008.12.31.)
. 재벌개혁 저승사자들의 '치킨게임'(→무모한 경기)이 시작됐다. 12월 대선판을 좌우할 최대 화두로 떠오른 재벌의 소유구조 개혁 싸움에서 밀릴 경우 '경제민주화' 주도권은 물론, 표심(票心)마저 잃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이 여의도 정치판을 뒤흔들고 있다.(헤럴드경제 2012.10.15.)
. 보조금 과당 경쟁이 한창이던 지난 10일 한 이통사 관계자는 "현재 치킨게임(→무모한 경기) 중"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손해지만 너도 손해다. 가는 데까지 가보자!'라는 통신사들의 태도는, '네가 포기하라'며 외나무 다리에서 마주보고 돌진하는 치킨게임(→무모한 경기)과도 같다는 지적이었다. 도박판에서 좋지 않은 패를 가지고 되레 강하게 베팅하는 블러핑(공갈) 게임과도 유사하다.(한겨레 2012.9.23.)
. 센카쿠열도 치킨게임(→무모한 경기)…中경제 경착륙 비상(한국경제 2012.9.26.)

. 이동통신 3사의 2분기 실적이 동반 추락했다. LTE시대를 선점하기 위한 보조금 경쟁이 화를 불렀다. 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제한된 파이를 서로 차지하려고 출혈경쟁을 벌이다 보니, 결국 이동통신시장 자체가 '치킨게임'(→무모한 경기)이 되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한국일보 2012.8.3.)
.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벌어진 '치킨게임'(→무모한 경기)으로 D램을 주력으로 삼던 엘피다가 파산, 마이크론에 흡수 합병된 가운데 낸드플래시서도 '치킨게임(→무모한 경기)'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 낸드플래시 시장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 도시바가 낸드플래시 생산량을 30% 감축할 계획이다.(아시아경제 2012.7.24.)

<포퓰리즘(populism)>

→원래 포퓰리즘은 엘리트 중심에 반하는 의미의 대중주의 또는 민중주의로 해석할 수 있는 용어이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을 펴는 것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경향이 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져 '대중 영합주의' 또는 '민중 영합주의'로 해석되고 있다. 언론인이 포퓰리즘을 사용할 때에는 학자나 정치인이 이를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대로 따라서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문가나 엘리트 위주보다는 대중 위주의 정책을 펴는 것이 어느 의미에서는 더 민주주의에 가깝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 따라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것이라면 처음부터 부정적인 개념인 '인기영합주의'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 정치권·학계 '안철수 개혁안' 정치 불신에 영합한 포퓰리즘(→편승한 인기영합주의) 비판(경향신문 2012.10.23.) 국민 열망을 이유로 기존 정당 정치의 대수술을 요구해 정당 후보들보다 우위에 서겠다는 뜻도 엿보인다. 하지만 정치권을 불신하는 대중의 뜻에 영합하는 포퓰리즘(→편승하는 인기 영합주의)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 이날 발표에 나선 최원목 이화여자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상분쟁을 야기하는 통상포퓰리즘(→인기 영합 통상정책)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매일경제 2012.10.22.)
. 증세 없다더니…'복지포퓰리즘(→인기 영합 복지정책)' 결국 국민세금에 떠넘기나(문화일보 2012.10.17.)
. 0~2세 무상 보육을 놓고 국회와 정부가 한판 승부를 겨루고 있다. 소득 상위 30%의 무상 보육 여부가 쟁점이다. 정부는 소득이 많은 상위 30%는

무상 보육에서 제외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내놓았다. '무상 시리즈'를 남발하는 정치권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얘기다.(조선일보 2012.10.21.)

. “군 복지도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으로 흐르다 보니 병사들에게만 집중돼 병사들을 감독하는 중대장 이하 초급 간부 삶의 질이 형편없다. 숙소가 병사들 내무반보다 못하다.”(동아일보 2012.10.19.)

. 그러나 그렇다고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을 비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은 정치의 병리적 현상이기는커녕 정치 그 자체의 원리를 넌지시 비추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한국일보 2012.9.6.)

. 친환경무상급식연대 등은 당시 서 위원에 대해 “(서울시 정무부시장)임기 중 토건사업·전시성 사업을 적극 주창하면서 채무 폭증 오점을 남겼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복지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이라며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적극 주도 및 비호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한겨레신문 2012.9.23.)

. 하지만 2002년 쿠데타와 2004년 국민신임투표에서 살아남은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 정치인 차베스는 이번에도 존재감을 과시했다.(경향신문 2012.10.9.)

(5) 상투적인 표현 바꾸기

<거듭나다>

→이 말은 기독교에서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뜻을 가리키는데 언론에서 이를 기존의 것을 새롭게 바꾸는 경우에 많이 사용한다. 단순히 조금 달라진 경우에는 이 말을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거듭-나다「동사」「1」『기독교』원죄 때문에 영이 죽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영적으로 다시 새사람이 되다. ≒ 중생하다. 「2」지금까지의 방식이나 태도를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다.

. 삼성전자, "갤럭시노트로 예술 작품 만든다"(연합뉴스 2012.4.18.) 갤럭시노트가 국내 예술가 6명을 만나 예술작품을 만드는 도구로 거듭났다(→바뀌었다).

. 봉화, 양파의 고장으로 거듭난다(→변신한다)(경북매일 2012.6.13.)

. 월정사 템플스테이 대표 사찰로 거듭난다(→만든다)(강원일보 2012.5.9.) 대한불교 조계종 4교구 본사인 월정사가 템플스테이 대표 사찰로 거듭난다(→만들어진다).

. 여수 엑스포, 스마트 엑스포로 거듭난다(→가꾼다)(이티뉴스 2012.2.8.) 5월 개막하는 '여수 세계 엑스포'가 첨단 전시회로 거듭난다(→가꾸어진다).

. 나라 지키는 軍, 문화재 지킴이로 거듭나(→활동)(천지일보, 2012.5.15.)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합심해 국내 문화재 지킴이로 거듭난다(→활동한다).

. 李대통령 "수산업, 신성장동력으로 거듭나(→떠올라)"(연합뉴스 2012.4.2.) 이명박 대통령은 2일 "국내 수산업도 이제 국가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거듭나고(→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 '빛과 그림자' 이필모, 안재욱 공백 틈타 권력 실세로 거듭나(→바뀌어)(머니투데이 2012.3.27.) 지난 26일 방송된 MBC 월화드라마 '빛과 그림자'에서는 권력의 실세로 거듭난(→바뀐) 차수혁(이필모)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 기신정기, 성장주로 거듭난다(→바뀌어)(세계일보 2012.4.9.) 한화증권 9일 기신정기에 대해 "올해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거듭나는(→바뀌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9000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 1300억 투입, 새로 태어난 렉스턴 미리보니(중앙일보 2012.5.25.) 렉스턴이 신형으로 거듭났다(→다시 태어났다). 이름도 렉스턴 W로 바꿨다.

. 강릉사투리 문화상품으로 거듭났다(→떠올라) “어서 오우야, 여긴 강원도래요. 내 말 똑떼기 들어요…”(한국일보 2011.11.9.) “반갑소야(반갑습니다) 여긴 강릉이래요.” 강릉사투리가 특색 있는 문화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추신수, 2루타 머신 등극… AL 2루타 공동 1위(스포츠동아 2012.6.21.) 루타를 날린 추신수는 아메리칸리그 이 부문 공동 1위 그룹에 오르며 ‘2루타 머신’으로 거듭났다(→변신했다).
. 유인나 열애인정, ‘멘붕’을 ‘확신’으로 바꿔 준 사람은 누구?(한국일보 2012.6.19.) 이렇듯 유인나의 어머니는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었고, 유인나는 지현우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공식적인 연인으로 거듭났다(→연인이 되었다).
. 개념녀, 이효리의 세상과 소통하는 법(조선일보 2012.6.17.) 화려한 패션과 스타일을 넘어 대중적이지 않았던 채식과 유기견 입양, 모피 반대 등에 대한 바람을 불러일으킨 것도 이효리다. 트위터를 활발하게 하면서 소셜테이너로 거듭났다(→변신했다).
. KLPGA 상반기 마지막 대회 ‘누가 웃을까?’ (조선일보 2012.6.12.) 데뷔 7년 만에 우승을 차지한 정혜진(25·우리투자증권)도 2주 연속 우승을 노리고 있다. 프로 생활 7년 동안 충분히 경험을 쌓은 정혜진은 지난주 막을 내린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에서 생애 첫 승 신고를 하면서 챔피언으로 거듭났다(→챔피언이 되었다).
. 재활용품이 장학금으로 거듭났다(→변신했다)(한국일보 2011.12.1.) 자원봉사자들이 재활용품을 팔아 모은 푼돈이 매년 장학금으로 거듭나고(→변신하고) 있다.
. ICC 제주가 마이스 산업의 전초기지로 거듭나기(→변신하기) 위해선 관련 산업의 기반 구축과 전문 인력 확충이 절실한 것도 이 때문이다.(제주일보 2011.8.3.)
. 국내에서 가장 긴 둑길,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나(→변신)…(조선일보 2012.6.15.)

<겸허히>

→이 말은 자신이 자기 태도를 남에게 가리킬 때에 쓰기 어렵다. 그 자체가 겸허한 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개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거나 스스로 자기에게 사용하는 말인데 요즘은 자기 태도를 남에게 가리킬 때에 사용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가고 있다. 언론이 먼저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겸허-히(謙虛-)「부사」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태도로. ¶ 겸허히 스스로를 돌이켜 보라. /담당 부서에서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비」 겸손히.

. 올해부터 '연예-드라마대상' 대상은 '작품'에 수여(조선일보 2011.12.27.) MBC는 이 같은 시청자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그대로 받아들이고) 연말 시상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인에게 최고의 상을 수상하는 방식에서 한해를 빛낸 최고의 연예, 드라마 부문 작품에 대상을 수상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김대중·노무현 없는 진보 세력의 미래(중앙일보 2009.8.20.) 부디 장례 기간만이라도 우리 사회가 선 자리를 겸허히(→진지하게) 돌아보고 나아갈 길에 대해 진지하게 살펴보자.

. 조중연 축구협회장 "감사 결과 겸허히 수용"(조선일보 2012.2.3.) 조중연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3일 "대한체육회의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그대로 수용하겠다고)"고 말했다.

. 대통령 격려문자에 경찰 "심판할 것" 답문(조선일보 2012.1.28.) "부적절한 행동… 겸허히(→진심으로) 반성"

. 장 교육감 "특채 죄송, 감사 수용"(조선일보 2012.3.20.) 그는 "감사 결과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이의 없이 수용하고), 처분 대상자 개인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부당하게 내려진 징계·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등 정당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 "위안부 관련 헌재 판결 겸허히 수용"(조선일보 2011.8.30.) 29일 헌법재판소가 일제 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원폭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분쟁을 우리 정부가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違憲)이라고 결정한 데 대해 정부는 이날 "헌재의 선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 청와대 "현명한 선택을 한 국민들에게 감사"(중앙일보 2012.4.12.) 새누리당이 1당이 뚜렷해진 오후 11시 넘어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국민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그대로 받아들인다). 현명한 선택을 한 국민들에게 감사한다"며 "정부는 안정된 국정운영과 민생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익과 미래를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사상 최초로>

→역사에 기대어 말할 필요가 없는 작은 사건을 그 의미를 과장하기 위하여 신문에서는 대개 '사상 최초로'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 같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사상(史上)「명사」 =역사상(歷史上).
역사-상(歷史上)「명사」 역사에 나타나 있는 바.
최초(最初)「명사」 맨 처음.

. 금융감독원은 27일 조재현 금융감독원 거시감독국 선임조사역이 BIS가 주관하는 국제논문대회에서 '거시경제 불황하에서 금융네트워크 관점에서 보는 시스템 리스크 관리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아시아권에서는 사상 최초로(→처음으로) 올해의 '최우수논문상(FSI AWARD)'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한국경제 2012.6.27.)
. 올림픽 사상 최초로(→올림픽에서 처음으로) 한국 남녀 하키의 '동반 메달 획득' 꿈이 영글어가고 있었다.(문화일보 2012.6.26.)
. 사우디아라비아가 다음달 개막되는 2012 런던올림픽에 사상 최초로(→처음으로) 여자 선수들의 대회 참가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영국 BBC 방송이 24일 보도했다.(뉴시스 2012.6.25.)
. 고래 짝짓기 포착 장면이 사상 최초로(→처음으로) 공개됐다.(한국경제 2012.6.25.)

(6) 모호한 표현 바꾸기

어순, 모호한 낱말, 많은 관형어 나열 등으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것은 피해야 한다.

. 네이버, '말' 많아졌다(아시아경제 2012.7.6.)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세계 각 나라의 어학 사전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소수의 이용자들을 위해서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지만 세계 시장 공략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6일 포털 업계에 따르면 최근 네이버가 다음, 네이트 등 경쟁 사이트와 달리 사전 서비스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독일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등을 추가해 모바일로 6개의 언어 사전을 제공하고 있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는 9개의 언어 사전을 서비스 중이다.(→'말 많아졌다'는 일반적으로 수다스럽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

기서는 외국어 사전이 많아졌다는 뜻으로 썼다. 비상식적이다.)

.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강간미수 30대男 긴급체포(연합 2011.11.5.)(→조사원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자를 체포한 것인지 조사원이 강간미수범인 30대 남자를 체포한 것인지 포호함.)

. 스페인 강력한 흡연 정책…최대 9억 원 벌금(뉴시스 2011.1.3.)(→흡연 정책인지 금연 정책인지 모호함.)

제5장 품격 있게 쓰기

1. 품위 없는 말 피하기

(1) 저속한 표현

신문은 공기(公器)이므로 저속하거나 야만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와 관련해서 신문 언어를 규제하는 신문 윤리 강령에는 아래와 같이 신문 언어의 품위 유지를 선언해 놓았다.

> **신문 윤리 강령**
>
> 제7조 언론인의 품위
> 우리 언론인은 높은 긍지와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저속한 언행을 하지 않으며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끄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위 다짐은 언론인의 품위 유지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문 언어를 품위 있고 고급스럽게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교양인이라면 쓰지 않을 정도로 저속한 언어를 신문에서는 일절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요즘 미국을 중심으로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의 언어를 사용하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상대를 배려하면서 단어 하나라도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세심하게 사용하고 정의롭고 공정하게 언어를 사용하려는 것인데, 이 정신이 신문 언어 사용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아래 몇 가지 예는 신문에 나타난 저속하고 상대를 비하하는 낱말들이다. 이런 낱말들은 신문 언어로서 적합하지 않다.

<짖다>

. 짖지 않는(→침묵하는) MB 정부의 '집 지키는 개'(→지킴이)(조선일보 2012.4.12.) 표현이 고상하지 않은 점을 무릅쓰고 비유해본다. 장관과 대통령 참모들은 '나라 지키는 파수견(犬)'(→지킴이)이다. 눈을 부릅뜨고 대문 앞에 앉아 나라 살림과 안보와 사회 기강과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국익을 해칠 위협 요인이 생겼을 때 이들은 지체 없이 나서 문제를 경고하고, 맞서 싸워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는 이들에게 많은 권한과 특전을 준다. 그러나 MB 정부의 장관과 참모들은 파수견의 '짖는 본

능’ 을 잊어버렸다.(설명: 이명박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개’라고 한 것은 어떤 경우라도 품위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양아치>

→아래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처럼 ‘양아치’를 속된 말로 본다면 이 말을 신문에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양아치’를 ‘거지’의 뜻으로 썼다면 양아치 대신에 바로 ‘거지’를 쓰면 되지만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품위 있게 일컬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을 품위 있게 일컫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저질’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대체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저질, 망나니, 구나방 같은 말로 대체할 수도 있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양-아치 「명사」 「1」‘거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 「2」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 철퇴 맞은 ‘양아치(→저질) 정치’(조선일보 2012.4.12.) 사람은 무례(無禮)를 접했을 때 상대가 미안해하거나 겸연쩍어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 실제 그런 반응이 나오면 마음이 풀어진다. 반면 상대가 짝다리를 짚고 눈을 치켜뜨면서 “내가 잘못한 게 뭔데…” 라고 한다면 극도의 불쾌감을 느낀다. 그건 뒷골목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이다. 정당이 국민에게 표를 달라면서 취할 태도는 아니다.

. 지금보다 훨씬 출입처나 권력기관, 정치 양아치(→저질 정치인)들로부터 자유로운 기사를 쓰며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전북일보 2012.6.26.)

<멍청하다>

→멍청한 사람에게 멍청하다고 하는 것도 신문 언어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하물며 정부를 멍청한 정부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 ‘배알 없는 무개념 정권’도 품위 있는 표현이 아니므로 다른 표현으로 바꿔야 한다.

.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에 역행한 여운형과 주세죽(박헌영의 처)에 대한 훈장에는 손도 못 대면서 기왕에 준 장지연 선생의 훈장이나 도로 빼앗는 배

알 없는(→이념 없는) 무개념 정권으로 낙인찍히고 말 것이다. …… '멍청한 정부(→무능한 정부)' 탓에 개인적으로는 가장 존경하는 언론인 대선배의 명예가 더럽혀졌지만 나는 그래도 장지연 상을 자랑으로 간직하고자 한다.(조선일보 2011.4.18.)

<미치다>

→'미치다'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여 '대단한'의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종횡무진' 캡틴 구자철의 미친(→대단한) 존재감(마이데일리 2012.7.14.)

. '광해'에서는 광해군의 반대 세력 행동책으로 '미친(→대단한) 존재감'을 보여줬다.(한국일보 2012.11.1.)

. 전창진 부산 KT 감독이 고양 오리온스에서 첫 선을 보인 전태풍의 활약에 감탄했다. 전태풍은 미친(→대단한) 존재감이었다. 전반은 팀 플레이 전념하며 시동을 걸었고, 팀이 크게 뒤진 후반 본색을 드러냈다.(매일경제 2012.10.13.)

.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은 '지키는 야구'의 핵심 멤버. 그가 빠진 삼성 마운드는 상상 불가다. 그야말로 미친(→대단한) 존재감이다. 올 시즌 28홀드(평균자책점 1.71)를 거두며 정규시즌 2연패 달성에 큰 공을 세웠다.(조선일보 2012.11.1.)

(2) 차별하는 표현

신문 윤리 실천 요강 제1조 제4항에는 지역 간, 계층 간, 성별 간 갈등을 일으키는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되고 이를 근거로 차별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장애인, 외국인 등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도 갖지 말라고 규정하였다.

신문 윤리 실천 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④ (차별과 편견의 금지) 언론인은 지역간, 계층간, 성별간 갈등을 야기

하는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을 차별해서도 안 된다. 언론인은 아울러 장애인, 외국인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이런 편견과 차별적 태도가 있는데 이를 기사에 표출시키면 사회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것이므로 신문 언어에서 이런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나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

<처녀>

→처녀가 아래 사전에서 「3」과 「4」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성적 차별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처녀의 정조를 강조함으로써 남성 중심의 사고방식을 보편화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처녀 출전, 처녀 출판, 처녀 등정' 같은 사용법은 실제로 처녀가 하는 행동으로 오해될 소지도 있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처녀(處女)「명사」 「1」결혼하지 아니한 성년 여자. 「2」=숫처녀. 「3」일이나 행동을 처음으로 함. 「4」아무도 손대지 아니하고 그대로임.

. 영국의 여류작가 애거서 크리스티 역시 처녀작(→첫 작품) '스타일즈장(莊) 살인사건'부터 '오리엔트 특급 살인사건''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쥐덫' 등 대부분의 대표작에서 밀실살인을 다루었다.(서울신문 2007.5.24.)

. 이효리가 작가로 변신해 처음으로 내놓은 처녀작(→첫 작품)인 '가까이'는 동물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작가가 입양견 순심이와 함께한 일상 속 이야기를 사진과 함께 담고 있다.(한국경제 2012.5.22.)

. 구(舊)소련에서도 '부란'이라는 이름의 무인 우주 왕복선을 개발해 1988년 처녀 비행(→첫 비행)에 나서 무사히 귀환하기도 했었다.(조선일보 2012.6.18.)

. 청주국제공항에서 일본 오사카를 오가는 정기노선이 21일 처녀비행(→첫 비행)을 했다.(동아일보 2010.6.22.)

. 21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3대 자동차 디자이너로, 삼성전자와 최근 계약을 맺은 크리스 뱅글이 최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을 다녀가 그의 '처녀작(→첫 작품)' 출시가 머지않았음을 예고했다.(연합뉴스 2011.7.21.)

. 수컷없이 4년연속 '처녀생식'(→단성생식)한 희귀 상어(서울신문 2012.1.11.) 두바이의 한 호텔 수조에 사는 희귀상어 한 마리가 수컷 없이 4년 연속 처녀생식(→단성생식)을 기록했다고 6일(현지시각) 미 내셔널지오그래픽

뉴스가 보도했다.
. 2004년 발표된 황 박사팀의 줄기세포(NT-1)는 체세포핵이식이 아니라 우연한 처녀생식(→단성생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밝혀졌다. 처녀생식(→단성생식)은 핵을 제거하지 않은 난자가 충격을 받아 정자가 들어온 것으로 착각해 수정란을 만드는 것이다.(조선일보 2011.10.6.)
. 연극동아리 '새얀'은 처녀출전(→첫 출전)으로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대본 각색에서 연기, 음향, 소품 준비에 이르기 까지 모든 것을 학생 스스로 함으로 연극동아리의 단합을 보여 주었다.(연합뉴스 2012.7.19.)
. 대한민국 '에어포스 원' 처녀비행(→첫 비행)(파이낸셜뉴스 2010.4.12.)
. 미 국방부는 아직 실물을 공개하지 않아, 개념도 수준의 럭비공 모양의 그림만이 존재할 뿐이다. 미군은 이르면 다음 주 뉴저지의 매콰이어-딕스-레이크허스트 합동기지에서 처녀비행(→첫 여행)을 할 예정이다.(조선일보 2012.7.1.)

<절름발이, 벙어리>

→다리를 저는 사람을 '절름발이', 말을 못하는 사람을 '벙어리'라고 하는데 이 말은 공공언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벙어리 냉가슴 앓듯', '꿀 먹은 벙어리' 같은 속담도 적절하게 다른 말로 갈음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절름발-이「명사」「1」한쪽 다리가 짧거나 다치거나 하여 걷거나 뛸 때에 몸이 한쪽으로 자꾸 거볍게 기우뚱거리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2」발 달린 물건의 한쪽 발이 온전하지 못한 것. 「3」사물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조화가 되지 아니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벙어리「명사」「1」'언어 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 「2」범죄 집단의 은어로, '자물쇠'를 이르는 말.

. 경찰 가정폭력 대책 '절름발이(→불완전)' 우려(내일신문 2012.5.7.)
. 지난해 GDP 3.6% 성장…수출에만 의존한 '절름발이(→불균형) 성장'(노컷뉴스 2012.3.30.)
. 절름발이 된(→균형을 잃은) 통화정책(조선일보 2012.2.27.)
. LG 크리스탈폰이 절름발이였던(→불완전하였던) 이유도 '화이트리스트'(조선일보 2011.11.14.)
. 최중경 "하드웨어 없는 소프트웨어는 절름발이(→불완전)"(조선일보 2011.9.2.)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2일 "융합시대에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하드

웨어와 서비스의 뒷받침이 없다면 절름발이(→불완전한) 경쟁력을 벗어날 수 없다” 고 강조했다.

. 절름발이(→불완전한) 보안서비스를 받고 있지는 않으십니까?(연합뉴스 2011.8.22.)

. 김정은 제1비서의 부인으로 여겨지는 여성이 연일 TV 화면을 누비는데, 국정원은 여전히 꿀 먹은 벙어리다(→말이 없다). 혹시 두어 달 전 원세훈 국정원장의 “김 제1비서는 아직 결혼한 적이 없다”는 장담이 부담으로 작용했을지 모른다.(중앙일보 2012.7.24.)

. 사건 이후 주민들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말도 못하고) 바깥출입을 자제했고,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한국일보 2012.2.17.)

. 하나는 영국인 아빠와 영어강사 엄마 사이에서 태어나, 원어민 과외를 받거나 영어 유치원을 따로 다닐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영어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었다. 하지만 하나의 실제 영어 실력은 벙어리(→입도 뻥긋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스포츠조선 2011.4.4.)

<된장녀>

→비싼 명품을 즐기는 여성들 중, 스스로의 능력으로 소비 활동을 하지 않고 애인이나 가족 등에 의존하는 여성들을 풍자한 유행어로서 여성을 비하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에 비해 ‘간장녀’는 돈을 깐깐하게 사용하는 여성으로 좋은 의미를 내포하는 유행어이다. 세태를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신문에서 이런 낱말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기사에서 무분별하게 이런 말을 확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베이글녀로 유명세를 탄 한지우는 각종 드라마, 버라이어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신인 여배우다. 한지우는 E채널 ‘단단한 가족’에서 오광록-김완선 부부의 큰 딸 지우 역을 맡아, 4차원 성격의 된장녀 역할을 선보인다. 한지우는 귀엽고 발랄한 이미지로, 자유분방하면서도 사랑스러운 20대 대학생의 모습을 소화해낼 예정이다.(강원일보 2012.10.17.)

. ‘내사랑 나비부인’ 경찰서 끌려간 염정아, 된장찌개 못 먹는 된장녀로 웃음 폭탄(한국일보 2012.10.13.)

. 2001년 개봉한 동명 영화를 원작으로 2007년 브로드웨이에서 공연된 이 작품은 주인공 우즈가 '된장녀'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렸다.(대전일보 2012.9.25.)

. '된장녀' 세계1위는 한국…"경제력만 있으면"(세계일보 2012.9.28.)

. 간장녀(남)란 분수에 맞지 않게 자기과시적인 소비를 즐기는 '된장녀(남)'의 상대 개념으로, 실속을 중시하면서 발품과 정보력으로 남들보다 물건을 싸게 구입하는 실속파 '짠물' 소비 계층이다.(동아일보 2012.7.16.)
. '된장녀' 지고 '간장녀' 뜬다… 깊어가는 불황에 과소비 대신 알뜰 소비 늘어(국민일보 2012.7.12.)
.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여성들의 소비 트렌드에도 변화가 왔다. 자기 과시를 위해 명품으로 치장하고 값비싼 커피를 마시던 된장녀가 지고, 직접 발품을 팔아 다양한 할인 정보를 얻어 실속있게 소비하는 간장녀가 뜨고 있다.(스포츠조선 2012.7.3.)

(3) 과격한 표현

우리 사회에는 언어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정치권, 교육 현장, 군대 등 언어폭력이 심각한 수준에 있는데 언론이 어느 정도 이를 부추기는 면이 있다. 신문 언어가 사회의 폭력성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신문의 사명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신문 언어에 폭력적이고 과격한 언어를 순화할 필요가 있다.

<직격탄>

→이 낱말은 군대에서 적을 향해 쏘는 여러 포탄 가운데서 가장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는 포탄인데 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것은 언어의 과격성과 폭력성을 조장하는 행위이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직격-탄(直擊彈)「명사」 「1」곧바로 날아와서 명중한 탄환이나 포탄, 폭탄. ≒직탄. 「2」직접적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주거나 타격을 가하는 일.

. 최근 좋은 성적을 내며 수익률을 회복하고 있던 일본펀드가 동일본 대지진의 직격탄을 맞아(→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수익률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투자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동아일보 2011.3.15.)
.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과 중국 등이 긴축을 하게 되면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이 직격탄을 맞기(→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광주일보 2011.8.8.)
. 지난달 경상수지가 2년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가 한

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 직격탄을 날린(→직접 영향을 미친) 탓이다.(연합뉴스 2012.2.28.)

<초토화>

→'초토화'는 군사작전의 하나로서 퇴각할 때에 적이 전리품을 챙기지 못하게 모조리 태워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불에 타서 아무 것도 남지 않은 황폐한 상태를 가리키는데, 신문에서는 이 낱말을 엉뚱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초토-화 (焦土化)「명사」 초토가 됨. 또는 초토로 만듦.
초토(焦土)「명사」 「1」불에 타서 검게 그을린 땅. 「2」불에 탄 것처럼 황폐해지고 못 쓰게 된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애프터스쿨' 막내 가은, 탁재훈에 '아빠?'(조선일보 2012.7.16.) 장난기가 발동한 가은이 탁재훈에게 "아빠"라고 부르자, 탁재훈은 "들어가서 공부해, 네 엄마하고 이야기하자"며 깨알 같은 개그로 스튜디오를 초토화시켰다(→웃음바다로 만들었다).

. 장근석, 日주말 인기 예능 프로그램 점령 "역시 아시아 프린스"(아시아투데이 2012.7.16.) 배우 장근석이 일본 주말 오전시간을 초토화시켰다(→완전히 장악했다).

. 그동안 '넝굴당'에 출연한 카메오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해 1위에 올랐다. 양희경이 속한 먹자계 회원으로 등장. KBS 2TV '개그콘서트'의 인기코너 '아빠와 아들' 속 캐릭터 설정을 그대로 살려 고깃집의 음식들을 초토화시키는(→모조리 먹어 치우는) 모습을 보여줬다.(일간스포츠 2012.7.16.)

. 2010년 6월 29일 충칭(重慶)에서 중국과 대만은 '양안(兩岸)판 자유무역협정(FTA)'인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했다. 대만은 당시 중국에서 상당한 양보를 받았다. 그런데도 대만 내의 반대는 거셌다. 야당인 민진당과 농수산업계, 노동단체들은 격렬히 반대했다. 대륙의 값싼 농수산물로 대만이 초토화된다는(→큰 피해를 본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비준에 반대하며 의회 폭력사태도 발생했다.(동아일보 2012.7.16.)

. 강원 삼척 도계의 한 폐광마을 상인들이 고리 사채의 늪에 빠져 초토화됐다(→황폐해졌다). 이 마을 상인 10명 가운데 4명 꼴로 한 사채업자의 불법 고리대부에 시달렸다.(연합뉴스 2012.7.15.)

. “엄중히 처리” 하라던 MB에 청와대는 ‘초토화(→쑥대밭)’(중앙일보 2012.7.14.) 지난해 5월 대선 캠프 참모였던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부산저축은행 금품 수수설이 나오자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찾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철저하게 처리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주문 이후 14개월이 흘렀다. 검찰의 칼날은 이 대통령 주변, 특히 청와대를 초토화하고(→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 김기열, 차별대우 분노 ‘1대100’ 공격 개시에 게시판 ‘초토화’(→응원글로 도배돼)(한국일보 2012.7.16.)

<충격>

. ‘미코 이하늬’ 소문 사실이었다니 ‘충격’(→삭제)(아시아경제 2012.5.25.)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이하늬가 방송에서 채식주의자라고 밝혔다. 이하늬는 24일 방송된 케이블채널 온스타일의 ‘이효리의 소셜클럽 골든12’에서 9년차 채식주의자임을 털어놨다. ‘이하늬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라는 루머가 사실이었던 것. 하지만 채식을 하게 된 이유는 몸매 때문이 아니다. 알고 보니 그녀에겐 고기를 먹지 못하는 동생이 있었던 것.(설명: 제목만 보면 이하늬 씨의 소문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내용은 그녀가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이다. 황당한 제목이 아닐 수 없다. ‘충격’이 미끼로 사용되었다.)

. 빙상 국가대표 이강석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 충격(→삭제)(중앙일보 2012.7.24.)(설명: 국가 대표 선수가 음주 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것이 충격적인 일은 아니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 올랜도 블룸-미란다 커까지? 결별설 ‘충격’(→삭제)(한국일보 2012.7.24.)(설명: 외국의 한 연예인 커플이 결별한다고 해서 한국 독자가 충격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 김동성 이혼? 아내사칭女가 벌인 사기극 ‘충격’(→삭제)(스포츠조선 2012.7.24.)(설명: 김동성의 아내를 사칭한 여자가 거짓으로 김동성과 이혼했다고 해서 충격이라고 표현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김동성이 실제로 이혼했다면 이 부부가 금실이 좋은 것을 안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고졸이세요?’ 신한은행, 고객 학력 확인 후… ‘충격’(→이자율 차등 적용)(중앙일보 2012.7.24.)(설명: 내용은 고졸자가 대졸자에 비해서 신용가 낮다고 보고 이들에게 적용하는 대출 이자율을 차등 적용했다는 내용이므로 기사 내용에 맞게 제목을 쓰는 것이 좋겠다. 그 기사를 읽은 독자가 충격을 받을지라도 기자가 먼저 충격이라고 적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경악>

. 예뻐진다는 양악 수술, 반값 된 이유가… '경악'(→삭제)(조선일보 2012.7.22.)(설명: 기사 내용은 손님이 줄어서 값이 반으로 떨어졌다는 설명이므로 '경악'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 나나 몸무게 망언 "살이 쪄서 51kg" 살찌기 전 몸무게는? 경악(→삭제)(서울신문 2012.7.24)(설명: 구체적으로 몸무게를 제시하여 독자를 놀라게 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몸무게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독자에게 기자가 먼저 놀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가장 게으른 나라, 몰타..사망자 중 19.2% 신체활동 부족 '경악'(→영향)(서울신문 2012.7.23.)(설명: 앞의 말과 연결이 안 된다.)

. 아름이 살해범, 최초 목격자라며 방송 인터뷰 '경악'(→응해)(동아일보 2012.7.23.)(설명: 앞의 말과 연결이 안 된다.)

. 제주 올레길 40대女 살해범, 알고보니 '경악'(→이웃에 사는 남자)(매일경제 2012.7.23.)(설명: 범인이 이웃에 사는 평범한 남자였으므로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 이젠 여중생까지… 강남 간 뒤 몇시간 후 경악(→성형수술)(조선일보 2012.7.19.)(설명: 졸업 앨범 사진을 찍기 전에 여중생들이 강남에 가서 몇 시간 만에 성형수술을 받고 온다는 기사이므로 제목을 기사 내용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본다.)

<기타>

. "김제남, 이석기 의리 지키고 국민 등에 칼 꽂다(→국민을 배반하다)" 이석기-김재연 제명 표결 기원으로 무산시킨 김제남에 네티즌 비난 쇄도(뉴데일리 2012.7.27.)

. 한국의 젊은 패션, 뉴욕 강타(→놀라게)(동아일보 2010.9.11.)

. '주영·태희 골' 홍명보호, 뉴질랜드 2-1 격침(→이겨)(스포탈코리아 2012.7.14.)

. 여야 없이 '5.16 발언' 융단폭격(→맹공격) … 박근혜 고립무원?(이데일리 2012.7.18.)

. '맞춤 훈련' 홍명보 감독, "3주 후 멕시코전 정조준(→맞춰)"(인터풋볼 2012.7.2.)

(4) 외모에 치우치는 표현

불필요하게 여성의 얼굴이나 몸매를 초들어 이야기하거나, 과장되게 말하면 기사의 진정성을 의심 받기 쉽다. 정확하고 명료한 낱말, 상황에 가장 알맞은 낱말을 골라서 쓰는 것이 신문 언어를 바르게 쓰는 방법이다.

<미모>

→여성에게는 무조건 이 낱말을 사용함으로써 실제 미모를 갖춘 여성을 꾸며 줄 말이 없을 지경이다. 여성의 미모 지상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여성에게 무조건 '미모의'라는 관형어를 붙이는 습관을 버리는 것이 좋겠다.

. 호랑이들은 좁은 우리 안을 뱅글뱅글 돌거나 주저앉아 있었다. 우리에 천을 덮었다가 들추자 호랑이 대신 마술사를 돕던 미모의 여성(→여성)이 누워 있었다. 마술쇼의 관람료는 성인 3만5000원, 청소년은 2만8000원이었다.(한겨레신문 2012.5.4.)

. 김병만 예비신부 개그맨 김병만(37)의 예비신부가 40대 초반 미모의 여교사(→초반의 교사)로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궁금이 커지고 있다.(부산일보 2011.11.25.)

. 한편 정준하는 10세 연하의 미모의 일반인(→여성과)과 오는 20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린다.(OSEN 2012.5.8.)

. 설운도는 30일 방송된 '스타 인생극장'에 출연, 미모의(→삭제) 아내 이수진 씨와의 결혼 스토리를 털어놓으며 눈길을 끌었다.(스포츠조선 2012. 1.31.)

. 10일 오전 11시30분께 인천 서구 시천동 경인 아래뱃길 인근의 한 농수로에서 숨진채 발견된 여성은 서울 강남에서 실종신고 된 미모의(→삭제) 모델 지망생 A(19)씨로 확인 됐다.(뉴시스 2011.11.10)

<얼짱>

→'얼짱'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오르지 않은 낱말로서 비속어 또는 은어로 분류된다. 네이버의 오픈사전에는 '얼짱'을 세 가지 의미로 풀이해 놓았는데 첫째 뜻풀이가 처음 광범위하게 사용되던 뜻이고, 둘째와 셋째 뜻풀이는 후에 의미가 확장된 것이다. 신문에서는 주로 첫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어떻든 이 낱말은 신문의 품격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낱말이므로 신문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자료: 네이버 오픈사전>

얼짱[명사] 1.얼굴이 아주 잘 생긴 사람. 2. 얼굴이 큰사람. 얼굴 크기짱. 3. 얼굴이 짱나게 생긴 사람

. 서울대 출신 얼짱女(→여성), '상위 1% 파티'갔다 그만(매일경제 2012.6.1.)
. 다름 아닌 얼굴이 매우 예쁘다 혹은 잘 생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얼짱'이 그 주인공이다. 많은 일반인들 사이에서 지금도 이슈화되고 있는 다양한 연령의 얼짱들(→미녀들), 이와 같은 예쁘고 잘생긴 얼짱(→여성)들이 사랑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중앙일보 2011.9.26.)
. 그 이전까지 기사도 소설은 얼짱(→미녀)과 몸짱(→건장한) 주인공을 내세워 독자들을 거짓으로 현혹시켰다.(조선일보 2012.2.27.)
. 그것이 버스의 얼굴이다. 표정이 가장 잘 잡히는 얼짱(→삭제)각도도 있다. 정면에서 왼쪽으로 약간 비켜 눈높이보다 조금 낮추었을 때다. 정면과 출입구가 달린 왼쪽이 모두 나와 버스의 구조적인 특징은 물론 행선표, 광고판 등 부착물이 한꺼번에 잡힌다.(한겨레신문 2012.5.16.)
. 하지만 대조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얼굴뼈가 발달되거나 턱을 괴거나 음식물을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으로 얼굴의 좌우가 차이나는 사람은 얼짱(→예쁜 얼굴)과 동안얼굴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연합뉴스 2012.6.26.)
. 김연아 능가하는 '얼짱'(→삭제) 피겨요정의 탄생(연합뉴스 2012.1.18.)(설명: 실력이 아닌 얼굴로 김연아와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 노원에 뜬 김태희 포착 '자체발광 여신미모'(→삭제)(마이데일리 2012.7.21.)(설명: 지나치게 과장되고 선정적이다.)

2. 합리적으로 기사 쓰기

기사문은 육하원칙에 따라서 하나하나 사실대로 적으면 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최소한의 원칙이 없을 수 없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를 자기 나름의 순서에 따라서 일정하게 전개하는 것이 독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글 흐름의 일관성을 지킨다는 것은 독자가 편하게 기사를 읽게 하는 덕목이다. 평론문은 주장과 근거가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특히 다른 사람을 비평할 때에는 설득력 있는 이론과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설득력이 없는 글이 되고 만다. 합리적인 기사를 작성하는 데 준거가 될 만한 내용을 신문 윤리 실천 요강이 잘 제시하고 있다.

신문 윤리 실천 요강

제3조 보도준칙

보도기사(해설기사 포함)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기자는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진실을 적극적으로 추적, 보도해야 한다.

①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기자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도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기자는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보도기사를 고르거나 작성해서는 안 된다.

② (미확인보도 명시 원칙) 기자는 출처가 분명치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그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③ (선정보도의 금지) 기자는 성범죄, 폭력 등 기타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되며 또한 저속하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

제9조 평론의 원칙

평론은 진실을 근거로 의견을 공정하고 바르게 표명하되 균형과 절제를 잃지 말아야 하며 특히 고의적 편파와 왜곡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평론은 정치적 입장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으며 논쟁적 문제에 대해 다양한 공중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논설의 정론성) 사설은 소속 언론사의 정론적 입장을 대변해야 하며 특히 언론사의 상업적 이익이나 특정 단체와 종파의 이권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
② (정치적 평론의 자유) 사설 등 평론은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표명하는 등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다.
③ (반론의 기회) 사설 등 평론이 개인 또는 단체를 비판하는 경우 비판받은 당사자의 적절한 해명과 반론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사실에 맞게

→신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사로 적는 것은 신문의 공공성을 해치는 치명적인 잘못이다. 의도하였건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건 기사문에 나타나는 사실관계의 잘못은 그 신문에게는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많은 신문 기사에 이런 부끄러운 잘못이 나타나고 있다.

. 4대강 보(洑)에 모인 물 4억㎥, 전국 가뭄 농지에 콸콸콸(조선일보 2012.6.21.) 전국적으로 가뭄이 확산되자 정부가 4대강 유역 16개 보(洑)에서 4억㎥의 물을 확보해 전국에 공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농업용수를 공급한 지역은 4대강 사업 이전에는 갈수기(渴水期)에 수시로 가뭄에 시달렸던 지역이다. 과거에는 가뭄이 들면 큰 강에서도 수위가 내려가는 바람에 주변에 양수장이 있어도 퍼올릴 물이 없었다. 새로 물을 공급하는 지역은 전국 농경지 107.2㎢(여의도 13배 면적)에 달한다. (중략) 새로 물이 공급된 지역은 경북 칠곡, 경남 창녕 등 낙동강 주변 농지가 대부분(105㎢)이다. (중략) 4대강 사업으로 전국의 가뭄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4대강 본류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농업용 수로가 깔려 있지 않으면 물을 흘려보낼 방법이 없다. 현재 충남 서산·태안·예산 등의 천수답이 많은 농촌지역이 가뭄에 시달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천수답은 저수지나 수로가 없어 빗물에만 의존해 경작하는 논이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해온 환경단체와 야당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가뭄을 해결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모든 곳의 논밭 가뭄을 4대강 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설명: 이 기사의 제목은 내용과 사뭇 다르다. 제목에서는 4대강 보에 모인 물로 전국의 가뭄 농지에 물을 콸콸콸 공급한다고 했지만 기사 내용에서는 경북 칠곡, 경남 창녕 등 낙동강 주변 농지에만 공급된다고 적어 놓았다. 그렇다면 이 기사 제목은 4대강 보의 기능을 가뭄 해소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믿게 할 의도로 사실관계와 다르게 적었다고 볼 수 있다.)

. 김재철 사장, '무용가 J씨 출연시켜줘라' 지시(미디어오늘 2012.5.3.) 김재철 MBC 사장이 지난해 재일동포 무용가 J씨가 이끄는 무용단을 전주대사습놀이 부대 행사에 출연시키라고 지시하고 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설명: 이 기사는 사실과 달라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 보도 명령을 받았다.)

. "윤진식·윤증현에 저축銀 퇴출무마 청탁 함께 돈 줬다"(서울신문 2012.7.27.)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윤진식(66) 새누리당 의원과 윤증현(66)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퇴출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9일 "임 회장으로부터 윤 의원과 윤 전 장관에게 청탁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설명: 이 기사에 대해 윤진식 씨는 허위 사실 보도 책임을 물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다.)

.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이명박 전(→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이 솔로몬저축은행 임석(50)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업무와 관련해 5억원 안팎, 코오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으로 1억 5000만원을 받은 협의와 관련해 3일 이 전 의원을 대검중수부 조사실로 불러 조사한다.(조선일보 2012.7.3.)(설명: 현직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으로 잘못 적은 것이다. 이런 실수는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큰 실수이다.)

. 사회안전망에도 가입하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382만 명이나 된다.…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가사노동자, 영세자영업자도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 이들 중 59%에 이르는 507만 명이(설명: 어떻게 해서 59%가 507만 명인지 알 수 없다. 이들의 수가 총 859만 명이라는 말인데 이 숫자는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다.) 돈이 없어 사회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서울신문 2011.7.5.)

. 미래의 파국을 예고하는 한국판 '아키마루 보고서'는 수백 수천 종류가 나와 있다. 8년 뒤부터 인구는 감소로 돌아서고, 이르면 40년 뒤면 국민연금이 바닥나게 된다.(설명: 주관적인 예측을 기정사실처럼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때쯤이면 지금의 복지수준을 유지하더라도 GDP의 46%를 복지에 쏟아부어야 한다.(설명: 근거 제시가 없다)(조선일보 2011.6.23.)

(2) 논리적으로

→문장이 논리적이고 앞뒤 모순이 없어야 적절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억지가 없고 논리 비약이 없고 필요한 정보와 자료가 제공되어 독자가 손쉽게 글을 읽어 나가고 거기서 유익한 정보를 얻도록 해야 한다.

. 보복의 굿풀이 벌인 신정아씨(조선일보 김광일 칼럼 2011.3.28.) 1년6개월 동안 감옥을 살고 나온 신정아씨는 4년간 일기를 토대로 책 '4001'을 출간했다. 그녀는 훨씬 무서운 가해자가 돼 있었다(설명: 어떤 점에서 그녀가 가해자가 되어 있었다는 것인지 제시되지 않았다.). 피의자 신분인 그녀의 귀국을 만류했다는 전직 대통령도, 권한 밖의 직책과 교수직을 제안했다는 전 국립대 총장도, 문화 부문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기자 몇 사람도, '재벌 이야기만 나오면 꼬리를 내린' 것으로 묘사된 변호사도, 신씨의 전임 큐레이터도, 서양미술사를 전공한 서울대 교수도 하루아침에 '4001'이란 칼을 맞고 '허접한 인간'이 돼버렸다. 칼끝엔 실명(實名)이란 독(毒)이 묻혀 있었다.(설명: 책과 그녀를 너무 간단하게 비난하고 있다.) (중략) 신정아씨나 출판사나 이 사회로부터 일방적인 노이즈 마케팅을 배웠을 것이다. 신정아 사건의 최대 피해자일 젊은 20~30대들이 지금 보복용 일기 쓰는 법과 신정아 마케팅을 학습하고 있다.(설명: 아무 근거도 대지 않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그런 학습을 한다는 정황도 없다.)

. 이제 8월이다.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달이다. 특히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는 데 최적기라 할 수 있다. A자형 인재가 만들어지는 시기다.(설명: 다짜고짜 8월을 A자형 인간이 만들어지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8월과 A자형 인간의 상관관계도 제시하지 않았다.)(제주일보 2011.8.1.)

. 정운찬 위원장이 애초 초과이익공유제라는 낯선 표현을 들고 나오는 대신 성과 공유제를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으면 이런 소통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름을 잘못 붙이는 바람에 공연히 긁어 부스럼을 만든 측면이 있다. 초과이익공유제를 둘러싼 지금의 이념논쟁이 실속 없이 겉돌 수밖에 없는 이유다.(조선일보 2011.3.15.)(설명: 이름 때문에 이익공유제가 겉돈다고 본 것은 논리 비약이다.)

. 그래도 젊은 부부들에게 있어 '아기 백일'에 대한 감회는 여전하다. '지난 백일' 못지않게 '남은 백일'도 각별하다(설명: 지난 백일과 남은 백일의 개념이 모호하다). 우리나라에서 대입수능일은 대통령 선거 다음으로 큰 국가적 행사다.(제주일보 2011.8.2.)

(3) 지나치지 않게

→과장하는 표현은 사건의 실체나 본질을 호도하거나 편향되게 전달하는 역기능을 하기 쉽다. 신문은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임무이고 그것의 의미는 별도로 해설하거나 논술하는 방법으로 독자에게 전하는 것이 정도이다.
"편집자는 사내외의 압력이나 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공개된 편집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집해야 한다. 또한 편집자는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등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는 안 된다.(신문 윤리 실천 요강 제10조 편집 지침)"

. "한마디로 코미디"… 날벼락 맞은 박근혜(서울경제 2012.7.22.) '박근혜 캠프'의 한 관계자는 "이 원내대표가 복귀해 올해 말까지 일한다면 한마디로 코미디"라면서 "박근혜 전 위원장도 7월 회기까지라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의 근본적 원인은 박 전 위원장이 막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 친박계 인사는 "박 전 위원장은 이 원내대표의 사퇴를 만류한 후 말을 아끼고 당 의원들은 그게 박 전 위원장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가장 큰 피해자는 박 전 위원장"이라고 꼬집었다.(설명: 박근혜 씨가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이를 날벼락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과장이다. 박근혜 씨가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도 한 사람의 생각일 뿐이다.)
. 지자체 엉터리 사업들이 나라를 거덜낸다(조선일보 2011.10.8.)(설명: 지자체가 일차로 거덜나야지 나라가 거덜난다고 한 것은 지나치다.)
. 한국 여고생 괴물에 발칵 뒤집힌(→깜짝 놀란) 일본(서울경제신문 2012.6.22.) 국내 여자골프에 유례없는 괴물이 나타났다. 17세 여고생 김효주다. 그는 4월 초청 선수로 출전한 국내 프로 대회에서 우승하더니 지난 10일 끝난 일본 프로 대회마저 제패해 버렸다. 역대 최연소 우승·최저타 기록 등으로 일본 골프계를 발칵 뒤집어놓았다(→깜짝 놀라게 했다.).
. 인피니트, 10월 日 아레나투어 개최…일본도 접수(→에서도 인기)!(영남일보 2012.7.18.)
. '천년에 한번 볼 수 있다'...흰까마귀 강원도 출현(연합뉴스 2012.7.21.)(설명: 검증되지 않은 말을 함부로 제목에 달았다.)
. 다 쓰러져 가는 집에서(→서민들에게서) 나온 돈으로 술 먹고, 밥 먹고, 수억 원의 뇌물도 받고 떡값도 받았다.(부산일보 2011.6.20.)
. 이들은 이날 최근 옥주현의 리메이크로 다시금 인기를 얻고 있는 '천일 동

안'을 비롯해 '그대가 그대를' '덩크슛'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등 세대를 아우르는 사랑을 받고 있는 메가톤급 히트곡(→대단한 히트곡)을 선사한다.(강원일보 2011.8.12.)

(4) 인용, 출처 제시 정확하게

→'법조계', '야권', '새누리당'처럼 자연인이 특정되지 않고 그 자연인이 속한 집단을 내세워 그 집단의 의견이라고 내세우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고 의롭지도 않은 보도 태도이다. 결국 기자가 원하는 말을 해 주는 한 사람의 의견을 그 집단의 전체 의견처럼 호도하여 독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 때문이다. 특정한 방향으로 여론을 몰아가려는 사심이 있는 기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어법이다. 신문은 너무 쉽게 한 사람의 의견을 그 집단의 의견으로 일반화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

. 그러나 형사처벌 논란과는 별도로 법조계에선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문 고문이 저축은행 대주주가 앞에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압력으로 느낄 수 있는 청탁 전화를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적 정점에 있는 대통령의 최측근이 비리 의혹이 있었던 저축은행을 감싸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설명: 법조계의 시각을 어떻게 알 수 있나?).(동아일보 2012.7.2.)
. 야권에서는 검찰이 문 고문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해도 정치적으로는 상처를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설명: 야권의 누구에게 들었나?). 새누리당 시각에선 이번 사건이 문 고문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호재(好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설명: 새누리당에 호재가 될 거라고 새누리당이 전망하였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전망하였나?).(동아일보 2012.7.2.)
. "안철수, 힐링캠프 출연해 거짓말 했다"(조선일보 2012.7.25.) 박근혜 캠프의 한 의원은 "정치공학이 너무 심하다. 비겁하고 위선적"이라며 "진심·상식 등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위험천만한 정치 아마추어의 등장"이라고 혹평했다. 한 캠프 관계자는 "안 원장의 발언 중 거짓말이 있는데 앞으로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도 했다.(설명: 이 기사는 안철수의 반대파일 수밖에 없는 박근혜 선거 운동원의 한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게다가 그가 그 캠프의 책임자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인용하는 것은 스스로 공신력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할 만하다.)
. 안철수 생각 감상법...박근혜는 선동에 약한 그들을 이길 재주 있나? "나는

反 박근혜 연합전선의 산토끼 담당!"(조선일보 2012.7.21.)(설명: 제목만 보면 안철수 씨가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보면 이 글을 쓴 류근일 씨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되어 있다. 큰따옴표가 미끼로 사용되었다.)

(5) 편파성을 벗어나 공정하게

→'편파적'이란 적용하는 기준을 대상에 따라서 달리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같은 주장을 이쪽이 하면 칭찬하고 저쪽이 하면 비난하는 태도가 편파적인 태도이다. 이쪽의 행위에 대해서는 나쁜 것도 좋게 포장하여 보도하고, 저쪽의 행위에 대해서는 좋은 것도 깎아내리는 태도도 편파적인 태도이다. 또 이쪽의 행위 가운데에서는 좋은 것만 말하고, 저쪽의 행위 가운데에서는 나쁜 것만 지적하는 것도 편파적인 태도이다. 우리 언론은 대체로 이런 편파성에 젖어 있는 것 같다.

. 최 전 위원장 왜 지금에야…알선수재 혐의 벗기 위한 '꼼수'?(세계일보 2012.7.17.) 최 전 위원장이 이날 대선자금 얘기를 다시 꺼낸 이유를 두고 알선수재 혐의를 벗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설명: 이런 의도가 깔려 있다고 판단한 근거와 이런 관측을 한 주체를 숨기는 것은 신문 언어에서는 부적절하다.) "대가성이 없다"는 그간의 진술과 일치하지만, 대선자금 카드가 받아들여질 경우 알선수재 혐의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 그렇다면? 승패의 관건은 이들에게 팍팍 먹힐 선전선동이다. 그들은 선동에 약하다. 그들은 감성적이다. 그들은 재미를 추구한다. 그들은 다분히 삐딱하다. 이 삐딱한 정서를 박근혜가 과연 어떻게 다만 얼마라도 끌어 올 수 있을지? 박근혜 씨, 그런 재주 있나요?(설명: 박근혜 씨를 편드는/씨에 편향적인 언론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문장이다.)(조선일보 2012.7.21.)

. 2007년 신정아 사건의 본질은 학력위조 파문이었다. '애꿎은' 인사(설명: 거론된 인사들을 두둔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학력을 위조한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10여 명도 자신의 학력 기재가 잘못됐다며 대중 앞에 불려 나와 고개를 숙여야 했다.(조선일보 2011.3.28.)

. YS·DJ 재임중 아들 구속 '불명예'(서울신문 2012.7.4.) 이 대통령 역시 다른 전직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친인척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 정점을 이 전 의원이 찍게 됐다. 부인 김윤옥(65)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72)씨는 세방학원 이사로 재직하면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2) 회장으로부터 4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자리를

주겠다며 김종원(71)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으로부터 30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옥희(76)씨도 김 여사의 사촌언니이다. 전두환 정권 이후 친인척 비리에 시달리지 않은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 기환씨는 노량진수산시장 운영권 강제 교체에 개입한 혐의로 전 전 대통령 퇴임 직후인 1988년 구속됐고, 동생 경환(70)씨도 새마을운동중앙본부 회장 시절 70억원대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구속됐다. 전 전 대통령의 형제들을 구속시킨 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다를 바 없었다. '6공 황태자'라 불리며 실세임을 자부하던 노 전 대통령의 처사촌 박철언(70) 전 의원은 역시 노 전 대통령 퇴임 직후인 1993년 슬롯머신 업자로부터 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돼 1년 6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이하 생략)(설명: 기사문에는 많은 전직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가 소개되어 있는데 제목에 유독 김영삼, 김대중의 이니셜만 제시한 것은 민주화 투쟁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을 흠집 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좌파 교육감이 이끄는 경기도교육청과 전북도교육청이 학교장 재량의 휴업을 허용해 이들의 주장에 동조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부풀려 국민을 선동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설명: '좌파 교육감'이 무엇을 말하는지 용어도 모호한데 이를 단순히 반대자를 내리깎으려는 의도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동아일보 2011.4.9.)

. 서울대생들은 후배들에게 법인화의 기초를 다진 선배로 남을 것인지, 법인화에 반대해 대학의 발전을 가로막은 선배가 될 것인지(설명: 지나치게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깊이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동아일보 2011.6.1.)

. 이대통령 "한일 정보협정 임기내 계속 추진" 박근혜 "절차 유감" 친박 "차기 정부 몫으로"(조선일보 2012.7.3.)(설명: 정파의 견해를 제시할 때에는 공식적인 정파의 의견을 두루 제시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박근혜와 박근혜 친위대의 의견만 제시했다. 이는 이 신문이 박근혜와 그 지지자의 의견만 중요시한다는 분석을 할 수 있고 새누리당의 공식 견해나 민주통합당과 진보통합당 같은 공식 정당의 견해는 무시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 사적 이익에서 벗어나 공익에 맞게

→신문 논설은 단순히 개인의 생각이나 주장 또는 좋고 싫음을 표현하는 난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맞추어 합리적인 주장을 펴는 공간이다. 개인적인 편견이 포함되는 부작용이 없을 수 없겠지만 이를 최소화하면서 정

정당당한 논설을 펼치는 것이 기본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생각이나 주장에 사로잡혀 사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논설을 쓰면 안 된다. 이익의 대변을 순서대로 말한다면 '사회의 이익에 합치되는가', '회사의 이익에 합치되는가', '나의 이익에 합치되는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의 이익'에 합치되는 것이 '회사의 이익'에 합치되지 않을 수 있고, '나의 이익'에도 합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 신문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사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 얼핏 작은 사안인 것처럼 보이지만 장지연 선생의 서훈 박탈은 이 땅에 보수정치가 마감되고 있음을 예고한다. '멍청한 정부' 탓에 개인적으로는 가장 존경하는 언론인 대선배의 명예가 더럽혀졌지만 나는 그래도 장지연 상을 자랑으로 간직하고자 한다.(설명: 신문에서 사적 감정을 지나치게 드러냈다.)(조선일보 2011.4.18.)

. 지난 3월 7일 자살한 탤런트 장자연씨의 이른바 '문건'의 경우가 그렇다. 그 문건이라는 것에는 아무런 정황이나 구체성 없이 조선일보의 한 고위인사가 온당치 않은 일에 연루된 것처럼 기술돼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심각한 일이었다. 그것은 단지 그 특정인사의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조선일보 전체 기자와 직원들의 도덕성과 명예에 관한 문제이고 더 나아가 조선일보라는 신문 그 자체의 존재가치에 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조선일보 2011.4.12.)(설명: 언론사 사주의 도덕성 문제를 회사의 명예와 존재가치의 문제로 바꿔 보는 것은 옳지 않다.)

(7) 가치를 왜곡하는 단어 피하기

→특정 단어를 특별한 가치를 가진 단어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보도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세금 폭탄'이라고 하면 세금이 마치 폭탄처럼 공격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당연히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정 여론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떡값 검사'라고 하면 명절에 떡값을 받은 검사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뇌물의 액수와 문제점을 축소하는 기능을 할 수 있게 한다.

<세금 폭탄>

. 지금의 내 아이, 이대로라면…직장 다닐 때, 세금폭탄(→세금)이 재앙수준?(국민일보 2012.8.21.)

. 판매금지 미술품에 333억원 세금 폭탄(→세금)(중앙일보 2012.7.24.)

<떡값>

. '떡값(→수뢰) 검사' 명단 공개 노회찬, 항소심 승소(조선일보 2011.12.10.)
. 檢, 공무원에 '떡값'(→뇌물) 전달 혐의 건설사 간부 영장(연합뉴스 2012.2.15.)
. 여기에 최시중 전 위원장이 정씨를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떡값'(→뇌물)을 돌렸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그를 둘러싼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조선일보 2012.2.18.)
. 김 씨는 명절에 부산지방국세청 직원들에게 '떡값'(→뇌물)을 전달하고 세무조사 때마다 금품을 전달해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동아일보 2012.11.7.)
. 전북도의원 해외연수 떡값(→뇌물) '물의'(한국일보 2012.9.6.)
. 공직자, 100만원 이상 '떡값'(→뇌물) 무조건 처벌(한겨레 2012.8.16.)

(8) 미끼 제목 달지 않기

제목은 기사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기사의 얼굴이다. 그래서 신문윤리 실천 요강 제10조에는 아래와 같이 기사 제목(표제)을 적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요점은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사 제목이 기사의 핵심 내용을 대표해야 하고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말라는 점이다.

신문 윤리 실천 요강

제10조 편집지침
편집자는 사내외의 압력이나 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공개된 편집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집해야 한다. 또한 편집자는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등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는 안 된다.
① (표제의 원칙)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② (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편집자는 사내외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기사를 없애거나 기사의 면 배치, 면 위치, 크기 등 내용을 바꾸어서는 안 되며 음란하거나 잔혹한 내용으로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는 안 된다.
③ (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 편집자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확인

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과대하게 편집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요즘 신문의 제목은 일반인의 시각을 어지럽힐 정도로 과장과 왜곡이 심하다. 특히 인터넷 포털의 위력이 강해지자 클릭 수를 늘리기 위해서 과도하게 자극적인 제목을 붙이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 제목이 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엉뚱한 것도 많이 나타났다. 일단 클릭하게 하고 보자는 심산 때문에 이른바 '미끼'를 던져 놓는 것처럼 선정적이고 궁금증을 유발하는 제목을 다는 것이 보편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신문 기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나아가서 신문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신문의 품격을 신문사와 신문 기자들이 스스로 낮추고 있는 셈이다.

. '음독자살' 논란 박혜경 "함께 있던 남자는…" 경찰·구조대 출동…경찰 "음독자살로 보긴 어려워"(서울신문 2012.11.9.) 경찰 관계자는 "이번 일을 음독자살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거나 동거를 하는 사이도 아니고 가정을 꾸린 것은 더더욱 아니다. 단지 연인들의 다툼일 뿐이다. 사건 처리도 하지 않은 단순한 해프닝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박혜경 역시 연예매체와 전화통화를 통해 "자살 시도를 왜 하겠느냐."라면서 일부 언론 보도가 사실 무근임을 밝혔다.(설명: 자살시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다툼이 있는 사건을 보도하면서 제목에 '음독자살'과 '자살시도'라고 표현하여 박혜경이 마치 자살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다.)

. 서울대 출신 얼짱女, '상위 1% 파티'갔다 그만(MK 뉴스 2012.6.1.) 김혜정 듀오 대표 "노블레스 파티가 인연"…10년 업계 1위 수성(설명: 제목은 서울대 나온 아름다운 여인이 잘나가는 사람들의 파티에 나갔다가 무슨 험한 꼴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그 파티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말이다. '그만'이 미끼로 사용되었다.)

. 문재인vs손수조 총선 지지율 "의외로…"(머니투데이 뉴스1 2012.3.6.)(설명: 제목만으로는 손수조 씨의 지지율이 문재인 씨의 지지율보다 높거나 거의 비슷한 정도에 이른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지지율 차이가 25%에 이르는 것으로 적혀 있다. 30% 이상 차이가 날 것처럼 생각했는데 25% 차이이니 의외라는 말인지 모르겠다. '의외로'가 미끼로 사용되었다.)

. '이대통령 교회 폭행사건' 진실 총정리(스포츠한국 2011.1.7.)(설명: 이 대통령이 다니던 소망 교회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난 것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폭행 사건이 일어난 교회의 이름을 대지 않고 그 교회에 다니는 이 대통령

을 대는 이유가 무언지.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 제목이다. '이 대통령'이 미끼로 사용되었다.)

. 안철수·김제동 강연 한번하고 받는 돈이(한국경제 2012.6.30.) '토크콘서트', '청춘페스티벌', '청춘콘서트', '세상을 바꾸는 1천개의 직업' 등에서 김제동·박원순·안철수·박경철·이윤석·김국진 등이 연사로 나서 인기를 끌었다. (중략) 국내 강연자는 섭외료가 15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나뉜다. 명강사나 베스트셀러 작가 및 명사, 특급 명사 등에 따라 150만, 300만, 500만, 700만, 1000만 원 이상으로 구분되며 평균 200만~300만 원 선에서 결정된다. 섭외료가 가장 비싼 직업은 연예인으로, 일반 '행사비'와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진다.(설명: 제목으로는 안철수, 김제동 씨가 강연하고 받는 돈이 무척 많을 것처럼 해 놓고 내용에는 외국인의 강의 수입만 소개한 뒤에 정작 이 두 사람의 강연 수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안철수, 김제동'이 미끼로 사용되었다.)

. 20대 된장女 단아하게 은행 문 열더니 '헉'(MK뉴스 2012.7.29.) 서울 강남에 사는 K모씨는 요즘 혼기가 찬 딸의 배필을 찾는 게 주된 관심사다. 내년이면 딸의 나이가 서른이라 그 전에 사윗감을 만든다는 목표다. 이에 K씨는 수소문 끝에 VIP고객 자녀들만 연결시켜 준다는 00은행의 PB센터를 찾았다.(설명: 제목은 실제로 된장녀가 은행에 들어가 특별한 언행을 한 것처럼 연상시키지만 내용은 은행이 특별한 고객을 잡기 위해서 마담뚜 구실까지 하는 등 경쟁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맺음말

기자는 우리 사회에서 글을 잘 쓰는 집단으로 인식되는 게 사실이다. 거기에는 기자의 글에는 규범적 잘못뿐 아니라 사실적 잘못, 논리적 잘못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신문 기사에 여러 잘못이 있고 그 잘못이 사회의 언어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도 보았다. 신문 언어를 바람직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기자 개개인의 언어적 소양을 높이는 일도 필요하고, 기자가 언어적 소양을 높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회사 내에서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마땅한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하다. 이 연구 자료가 이런 요구에 어느 정도 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붙임: 찾기

가능한(→가능하면) 16
감격해하다(→감격하다) 60
가진(→갖은) 11
갖다 73
갖어(→가져) 11
갖은(→가진) 11
같애(→같아) 7
같은 경우 49
갱신/경신 38
거듭나다 96
결제/결재 36
겸허히 97
경악 110
곤욕/곤혹 37
공복(公僕) 67
공정하게 기사 쓰기 119
과격한 표현 107
과장 표현 117
굴지의 80
그리고/그러고 34
근거 제시 118
글씨/글자 32
까지/마저/조차 52
꺼려하다(→꺼리다) 61
껍질/껍데기 32
-ㄴ다/-다 54
-ㄴ지/-ㄹ지/-던지 22
나열의 일치 63
낱말 사용법 46
낱말의 의미 26
논리적으로 쓰기 116
높임의 일치 62
-는/-은 55
담구다(→담그다) 9
답보 상태 80
당기다/댕기다/땅기다 38
당황해하다(→당황하다) 60
대단원 86
대하여 74
데/-는데 23
돌입 44
되어지다(→되다) 77
된장녀 106
들리다(→들르다) 10
등교길(→등굣길) 20
등극 27
딛어(→디뎌) 12
떡값 122
띄어쓰기 21
-ㄹ지/-ㄴ지/-던지 22
르네상스 70
마저/조차/까지 52
만 21
만남을 갖다 73
매니어(→마니아) 18
멍청하다 102
-면서/-며 56
모호한 말 99
문장 부호 24
미끼 제목 122
미모 111
미제(未濟) 78
미증유 81
미치다 103
민심 이반 82
민초 67

바램(→바람) 6
밖에 21
반증/증거/증명 30
발라지다/바르다 77
방불케 하다 89
배제할 수 없다 75
벙어리 105
부분/부문 39
분석이다/평가다/지적이다 62
불완전한 문장 62
빈축 88
뿌리채(→뿌리째) 7
사사하다 47
사상 최초로 99
사실 보도 114
사이시옷 20
사적 이익 대변 120
사필귀정 90
상투적 표현 96
선열(先烈) 45
성분 간 호응 63
세금 폭탄 121
소기의 87
수 24
수수하다/받다 88
수퍼(→슈퍼) 19
쉬운 말 78
-스런(→-스러운) 13
승패/성패 31
-시키다 57
애환 47
양동작전 79
양아치 102
어미 54
얼짱 111
에 대하여 74
에 있어서 72
에/에게 53
에/에서 53
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74
여부 46
연출 28
영어의 몸 85
와 같은 경우 49
와중/중 69
왜곡 121
외국어 투 72
외모 111
요구되다 76
용의자/피의자 44
우유값(→우윳값) 20
유래/유례 40
유명세 48
'은/는'과 '이/가' 51
을 통해 72
일체/일절 41
일축하다 91
일치 62
임대/임차 41
임산부/임신부 35
있어서 72
장마비(→장맛비) 20
저속한 말 101
절대절명(→절체절명) 13
절름발이 105
접사 57
접수/제출 31
조사 51

조차/마저/까지 52
주어 없는 문장 62
주의가 요구되다 76
지 23
지놈(→게놈) 18
직격탄 107
직접 인용문 57
짖다 101
쫓다/좇다 42
차별 언어 103
채/-째 7
채소값(→채솟값) 20
처녀 104
천명하다 85
첫 59
첫 번째/첫째 36
초동수사 78
초토화 108
충격 109
측면 71
치루다(→치르다) 8
치킨 게임 93
컨셉트(→콘셉트) 17
컨텐츠(→콘텐츠) 16
콘텐트(→콘텐츠) 16
쾌척하다 86
큰따옴표 24
틀리다/다르다 33
통해 72
파장/파문 29
편파적 태도 119
폄하/폄훼 82
포퓰리즘 94
품위/품격 101
피동 표현 76
피의자/용의자 44
한글/한국어 26
한참/한창 42
현해탄 66
형태/행태 43
호응 63
홀홀단신(→혈혈단신) 14
환골탈태 83
환골탈퇴(→환골탈태) 15
회담을 갖다 73
희화화하다 84

연구 책임자: 남영신(사단법인 국어문화운동본부)
보조 연구원: 박종분(사단법인 국어문화운동본부 국어문장사)

담당 연구원: 김형배(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기자를 위한 신문 언어 길잡이

발 행 인 민현식
발 행 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27
인 쇄 일 2012년 11월 29일
발 행 일 2012년 11월 29일